HUMAN
NATURE
BUSINESS

2005 지속가능성 보고서

the posco movement

2005 지속가능성 보고서

posco

TABLE OF CONTENTS

00 보고서 개요
02 The POSCO Movement
04 CEO's Message

SUSTAINABILITY AT POSCO
06 미션과 공유가치
07 경영 전략
10 이해관계자와 함께
12 기업지배구조
14 기업윤리
16 위험관리체제
18 지속가능경영 성과

HUMAN
22 안전과 보건
24 직원
29 고객사와 공급사
33 사회공헌

NATURE
40 기후변화
44 환경경영체제
46 환경활동
50 환경성과

BUSINESS
58 경제적 성과

GLOBAL POSCO
64 Business Network
66 USS-POSCO Industries
68 창원특수강
70 포스코 인디아
72 장가항포항불수강

APPENDIX
73 헌장, 규범, 방침
74 보고서 발간 절차와 기준
75 검증의뢰서
76 검증보고서(Assurance Report)
78 GRI Content Index
80 용어 색인
81 2005 지속가능성 보고서 독자 의견 설문서
82 보고서 발간 현황
83 연락처

보고서 개요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포스코의 노력을 크게 사회, 환경, 경제 세 가지 관점에서 조망합니다. 관련된 정보를 균형 있고 투명하게 보고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포스코의 세번째 지속가능성 보고서이며,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포항 본사 및 서울사무소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활동과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4개의 지역별 주요 출자사를 선정하여 이들의 지속가능경영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보고서의 특징

1. 이 보고서는 세계 유수 기업들의 발간 사례 분석 결과와 금융권의 평가 기준 등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여러 기준을 참고했습니다. 특히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2002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지침' 을 따랐습니다.

2.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을 확대하고자 기존의 피드백 절차 외에 주요 이해관계자를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내용 선정 과정에 활용했습니다.

3. 지난번 보고서 검증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고서 발간 절차와 지표 보고 기준 등을 정립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4.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 보고서의 내용은 KPMG로부터 선택된 항목에 대하여 제3자 검증을 받았습니다. 검증 항목은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진술 내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보고서 데이터의 기준

2005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재무정보는 포스코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연결 재무제표 및 관련 정보는 2005 Annual Report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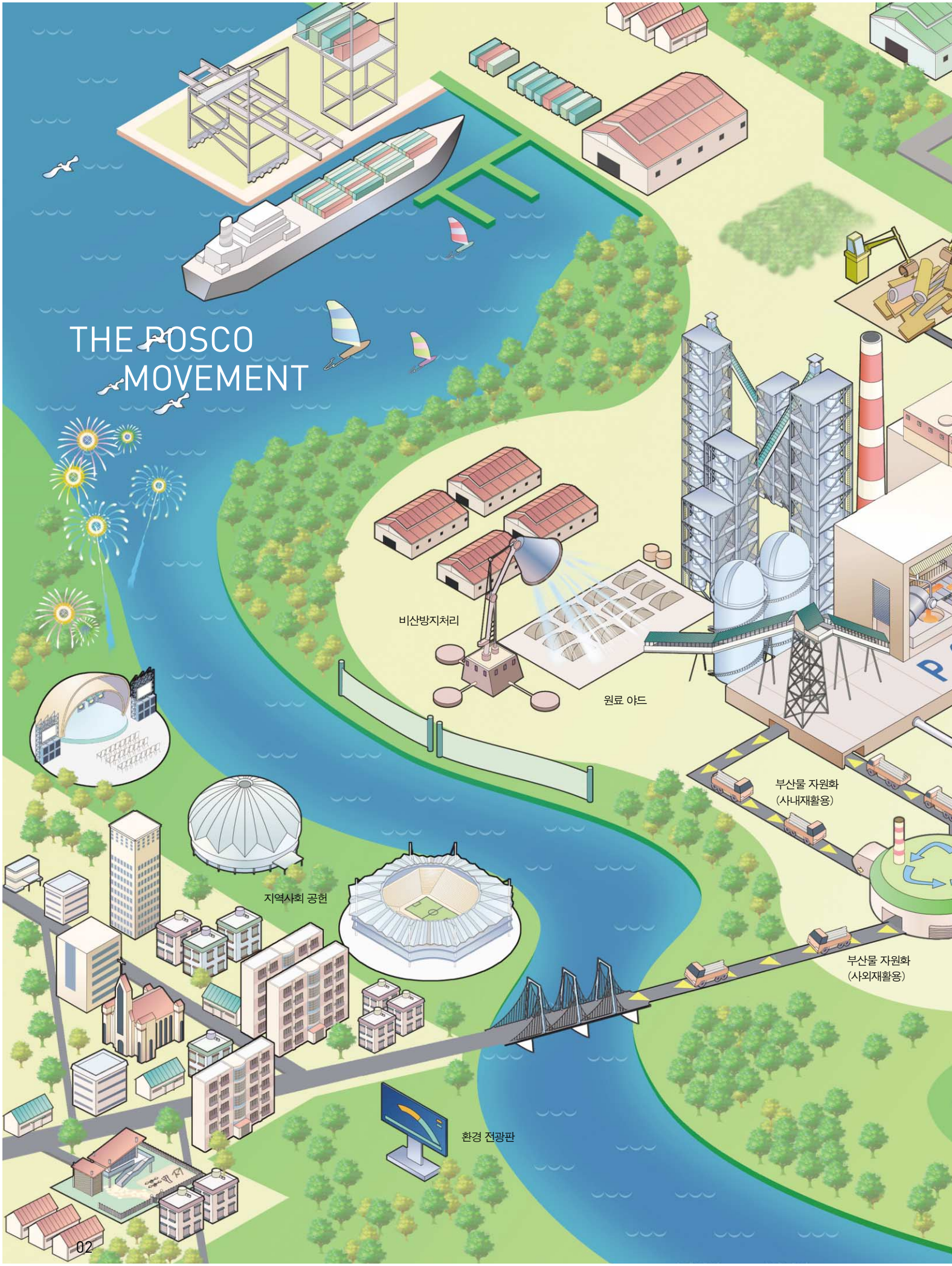
보고서의 수치 데이터는 한국 원화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회계 수치 또한 원화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 12월 30일 뉴욕의 미국 연방준비은행 정오 매입 환율을 기준으로 1 미국 달러에 1,010.0원입니다. 단위 톤(Ton)은 Metric ton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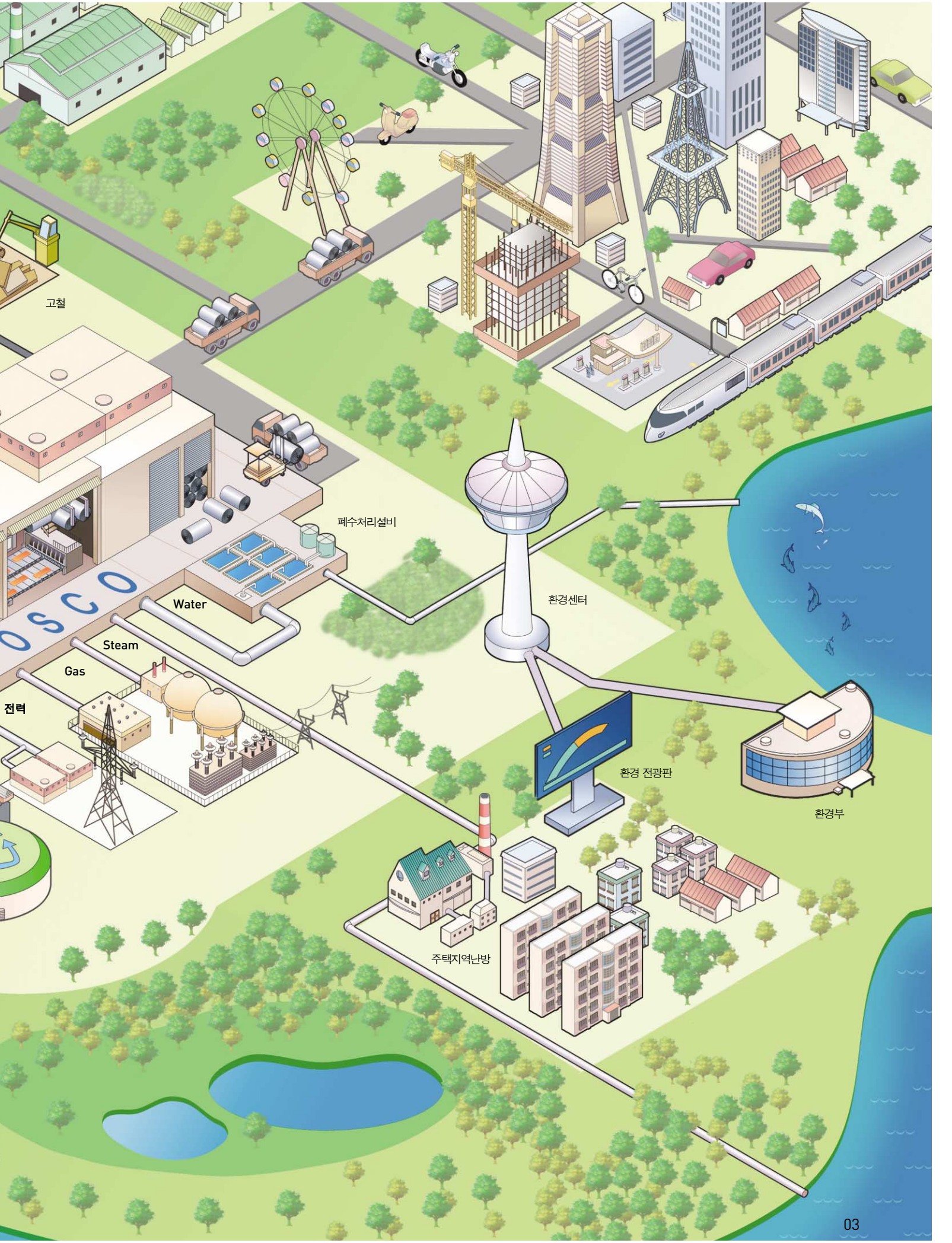
보고된 데이터를 산출한 기준에는 본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변동이 없습니다. 보고서는 영어판과 한글판 두 가지로 발간하였으며, 번역상 의미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판 보고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Sustainability Report 2005

함께 성장하는 길을 향하여

지속가능경영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희망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그 희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포스코는 항상 연구하고 혁신하고 도전합니다. 바르고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조화롭게 어울리며, 진정한 마음을 나눕니다. 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탁월한 경영 성과를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글로벌 포스코로 도약하려는 것도 그 희망을 좀 더 빠르게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래는 꿈꾸는 사람의 것이고 도전하는 기업의 것입니다. 포스코는 사회, 환경, 경제와 균형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세계의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더 아름다운 미래, 더 풍요로운 내일을 선사하겠습니다.


THE POSCO
MOVEMENT
비산방지처리
원료 야드
부산물 자원화
(사내재활용)
지역사회 공헌
부산물 자원화
(사외재활용)
환경 전광판


고철
폐수처리설비
Water
Steam
Gas
전력
환경센터
환경 전광판
환경부
주택지역난방

CEO'S MESSAGE

우리는 여러분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슈를 확인하고 이를 경영에 반영할 것이며,
우리의 사업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로의 발전이
지속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포스코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전 세계 고객, 주주 그리고 이해관계자 여러분!

올해로 세 번째 발간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포스코가 펼쳐온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해 말씀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포스코는 2005년 한 해 동안 매출 21조원, 순익 4조원, 조강생산 3,050만 톤이라는 견실한 경영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원료가격 상승과 공급과잉 상태에서의 힘든 경쟁, 철강사 간의 인수합병이라는 경영환경에서 거둔 실적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도의 오리사주 정부와 일관 제철소를 건설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지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은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이 경제적 수익은 물론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균형있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포스코는 지속가능경영이 결국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할 것임을 인식하고 관련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특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부문은 환경과 기후변화, 안전과 보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그리고 교육, 문화예술, 체육 분야를 통한 다양한 사회공헌입니다.

기후변화가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에 꾸준히 많은 투자를 해 온 포스코는 향후 한국에도 적용될 교토의정서에 대비하여 정부, 민간단체 등과 함께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작업장 및 인근지역의 안전과 보건 활동은 기업의 기본적인 책임 중 하나입니다. 포스코는 체계적인 안전 조직과 제도를 갖추고 철저하게 관리하여 2005년에는 최근 5년 내에 가장 낮은 재해건수를 기록하였습니다.

포스코는 일찍부터 공급사와 외주파트너사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이들과 동반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공급사와 함께 개선과제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베네핏 셰어링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우수 사례로 알려져 여러 회사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육재단, 축구단, 문화예술 지원, 그리고 직원들이 참여하는 봉사단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포스코 청암재단을 설립하여 아시아 지역까지 사회공헌 활동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공헌 활동은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 보다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포스코는 2006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더욱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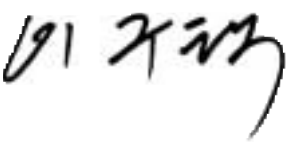
위와 같은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포스코는 지난해 9월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샘 다우존스 지속가능성지수(SAM DJSI)에 철강 부문 우수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번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GRI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제, 환경, 사회적 성과를 균형 있게 담고 있어 회사의 전략과 실행성과를 파악하는 데 매우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동안의 발간 경험을 바탕으로 '포스코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정립하여, 변화하는 경영환경과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독자의 이해와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포스코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사회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6. 5. 31



회장 이구택

미션과 공유가치

포스코의 미션은 사회의 기반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최고를 지향하고, 창의를 존중하며,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존경 받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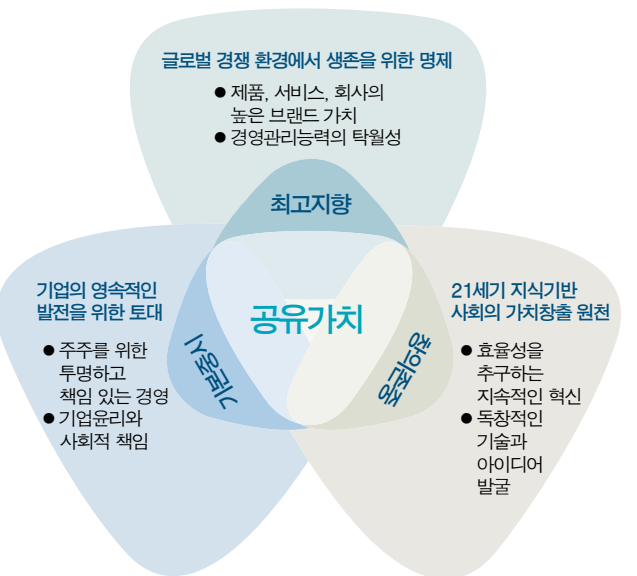
포스코는 1968년 창립되어 산업의 기초 소재인 철강재 공급으로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설립 초기 기술과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인력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단지와 각종 편의시설과 학교를 건설함으로써 직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해외 선진 철강사에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직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장학재단과 문화시설, 프로축구단 설립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밀접하게 유지하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다변하는 직원의 욕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복리후생 운영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부출연, 자원봉사 등의 방법으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철강재는 기초 소재로서 산업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되면서도 생산 과정에서 많은 양의 자원을 소모하고 공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제철소 건설 초기부터 공원과 같은 공장 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을 가지고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는 한편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법 기준치보다 엄격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1980년대 이후 지속가능 발전이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등 환경 문제가 더욱 강조됨에 따라 환경을 보존하는 공정과 제품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환경 영향을 평가하여 경영에 반영하고 환경 관련 데이터를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포스코는 2000년 민영화를 통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국가 경제의 발전에 근간이 되어 온 기업을 넘어 전세계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미션과 공유가치를 재정립하고 프로세스와 기업문화의 혁신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6년 동안의 대규모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 시스템으로 통합하였고, 6시그마 활동을 통해 합리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추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선포된 윤리규범의 적용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윤리적 기업문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경제, 환경, 사회적으로 균형을 이룬 성장을 이루고자 지속가능경영을 선포하여 관련 활동을 체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05년 말 현재 19,00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포항과 광양 두 제철소에서 열연, 냉연, 후판, 선재, 스테인리스 등 중간재를 생산합니다. 이들은 건축 자재, 선박, 자동차, 가전제품, 음식료 용기, 의료기기 등 수많은 제품에 쓰입니다. 국내에 14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건설, 철강재 제조 및 판매, 설비, 정비 등 포스코의 철강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해외에는 호주,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 철강재 무역 및 원료 판매 관련 자회사가 있고, 중국, 일본, 동남아에 철강재 제조 또는 가공, 판매 관련 자회사가 다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에 1,200만 톤 규모의 일관제철소 건설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 전략

세계적인 경쟁의 심화는 철강산업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포스코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철강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기술과 경영 혁신을 강화함과 동시에 글로벌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세계 철강산업은 2004년 조강 생산량 10억 톤 돌파로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철강회사 간의 경쟁도 심화되어 경영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합니다. 세계 철강기업들의 통합화, 대형화, 글로벌화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며, 원료 수급의 불균형과 원료시장의 과점화로 공급사의 주도권이 강화되어 철강사들의 원료확보 경쟁도 중장기적으로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5년 하반기부터는 철강재 시장의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반재 철강 생산 급증으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아시아 지역의 가격하락 현상이 초래된 반면, 고급강 시장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국제적 인수합병으로 인한 세계 철강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국내 대량 유입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까지 글로벌 성장 기반과 철강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원가경쟁력과 조직문화 혁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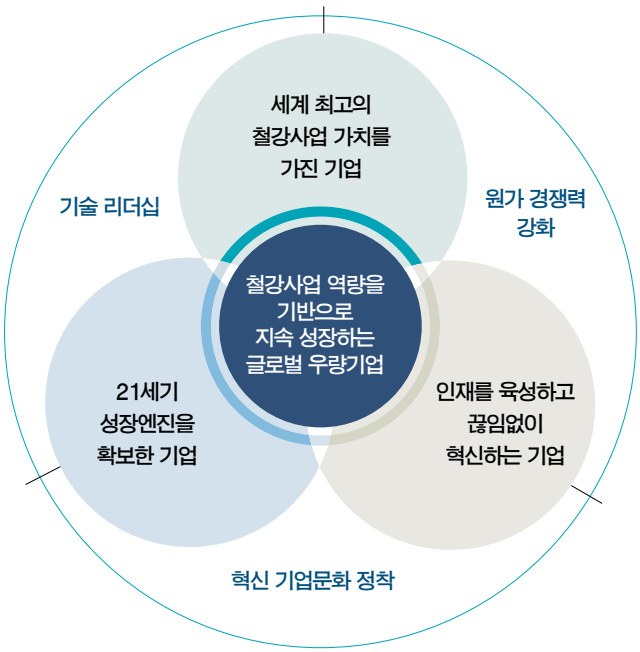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

포스코는 2010년까지 국내외에서 총 5,000만 톤 규모의 조강 생산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품 고도화를 위한 설비 신예화와 생산능력 증강에 집중 투자하여 2008년까지 국내 조강 3,500만 톤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도제철소 건설과 중국, 브라질 등으로의 진출로 2010년까지 1,500만 톤 규모의 해외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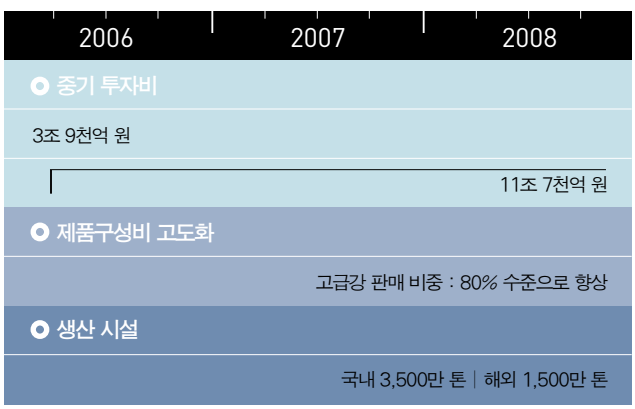
미래 성장엔진 확보

포스코는 미래 성장엔진을 확보하기 위해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강도가 뛰어나 자동차를 경량화 할 수 있는 마그네슘 판재와 같은 비철금속 사업과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5년 광양 LNG 터미널 준공과 포스코파워 인수를 계기로 LNG Value Chain 상의 여러 분야에 대한 진출을 검토하여 에너지 분야의 사업영역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VISION 2010



중기 투자계획



기술 리더십

2005년 포스코는 일반강에서 고급강으로 제품 구성을 전환하는 것을 중기 기술 개발 전략으로 확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마케팅 부문은 전략제품 신시장 개척과 신수요 개발, 연구소는 신제품 연구개발과 EVI(Early Vendor Involvement)활동 강화, 제철소는 고급강 생산 기술 확립과 신설 설비 조기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05년 전체 제품 중 40%를 차지하던 전략제품 비율을 2008년에는 80%까지 높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포스코 고유의 차세대 신제선 기술인 파이넥스와 슬래브를 만들지 않고 제강에서 바로 압연하는 혁신 기술인 스트립 캐스팅의 상용화를 통해 철강 기술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원가경쟁력 강화

포스코는 향후 3년간 1조 원의 원가절감을 목표로 원가구조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글로벌 생산 체제에 맞춰 원료를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원료를 직접 개발하거나, 개발 사업에 투자해 구매하는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2005년에는 스테인리스 주원료인 니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뉴칼레도니아의 니켈 광석 수출회사인 SMSP와 합작해 니켈광산 회사를 건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혁신 기업문화 정착

포스코는 6시그마 활동을 중심으로 혁신의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글로벌 기업에 걸맞은 조직역량을 갖추고자 합니다. 6시그마 활동은 2002년 5월 시작되어 2005년까지 약 3년 반 동안 총 5,864건의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이 중 Black Belt 과제가 1,859건, Green Belt 과제가 3,969건이었으며, 전 직원의 25%인 4,364명이 벨트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2005년에는 6시그마 활동의 추진 방향을 ① 포스코형 6시그마 개발과 적용, ② 대형 프로젝트 활성화, ③ 현업 주도 6시그마 정착, ④ 관련사 6시그마 지원 강화 등으로 정했습니다. 포스코형 6시그마는 도요타 생산방식 등의 장점을 도입하여 포스코의 상황에 맞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의 적용에 전 임직원이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6시그마 혁신 활동의 정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005년 혁신기획그룹의 출범으로 회사 혁신활동의 구심점을 가지게 되었으며, 전문부서에 의해 조직역량 혁신과 표준업무 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 정립이 대형 6시그마 과제(Mega Y)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직역량 혁신은 제도와 직원역량, 조직문화를 세계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혁신한다는 목표로 ① 일하는 방식 글로벌화, ②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체계 구축, ③ 미래 경영리더의 전략적 육성, ④ 직책보임자 리더십 역량 계발, ⑤ 현장 중심의 평생 학습제 조기 정착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준업무 운영절차 또한 직원 개인의 업무처리 절차를 정의함으로써 개인별 편차를 줄이고 업무 성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6시그마에 의한 기업문화 혁신

전략제품 성과

자동차용 강판		• 합금화 용융아연도금 외판재 고속 연속생산기술 완성 • MAFE강, ACE강 개발 • 490Mpa급 Dual Phase형 고강도강 상용화 • 국내외 9개 자동차사와 공동으로 차체 개발 및 설계 • TWB(Tailor Welded Blank) 및 하이드로포밍 설비 준공
고급 API 강재		• 유전개발환경 악화와 원거리 수송 증가에 대응 • 저온인성용 극후물 API-X70 열연강판 양산 • 원유 수송용 내부식성 API-X65 양산 • 내sour용 극후물 X60 개발
400계 스테인리스강		• 표면 결함 및 리징성 결함 개선으로 품질 향상 •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신규시장 개발로 판매비율 제고 • 저원가 고기능형 신제품 개발
전기강판		• 최고급 방향성 전기강판인 두께 0.23mm 자구미세화 강판 양산 설비 준공 • 방향성 전기강판 7만 톤 생산체제 구축 • 전기/하이브리드/연료전지 자동차의 구동모터로 사용되는 2.1watt급 최고급 무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개발
고기능 열연재		• 내황산 부식강, 고가공 튜브용강, 고기능 구조용 제품 등의 경쟁력 향상 노력
TMCP 강재		• 조선 산업에서 수요가 확대되는 TMCP형 고강도강 양산 체제 구축 노력
고급 선재		• 타이어 코드 선재의 고객 맞춤형 제조 프로세스 설정 • 고객사와 타이어 코드 선재 기술협력위원회 구성
고기능 냉연재		• 고기능 표면처리강재: 내지문 크롬-프리 제품, LCD/PDP용 EG 제품 등 • 특수기능 냉연 제품: 내황산강, 고탄소강 등 • 모니터용 강재: Inner shield, Shadow mask 등 • 초극박 용기용 강재: D&I, DR-BP 등

✚ MAFE강: Micro Alloy Free Exposed. 특수합금 무첨가강. 나노 크기의 CuS, MnS, AlN 등을 석출하여 입자를 미세화한 고강도강.
✚ ACE강: Aerosols Charged with Electrostatic. 용융도금강판의 표면에 입힌 금속을 미세화하여 미관과 기능을 향상시킨 강판.
✚ 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 TMCP(Thermo Mechanical Control Process): 일반적으로 두꺼운 강재의 경우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량의 합금원소가 첨가됨에 따라 탄소당량이 높아져 용접성이 저하된다. TMCP강은 제어 압연과 가속냉각에 의한 입도 미세화로 고강도를 확보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보다 탄소당량이 적어 용접성이 뛰어나다.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업은 사회적 존재로서 주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포스코는 여러 의사소통 경로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경영 전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포스코의 경영이념을 실현시키는 데 바탕이 되는 활동이며, 포스코의 발전에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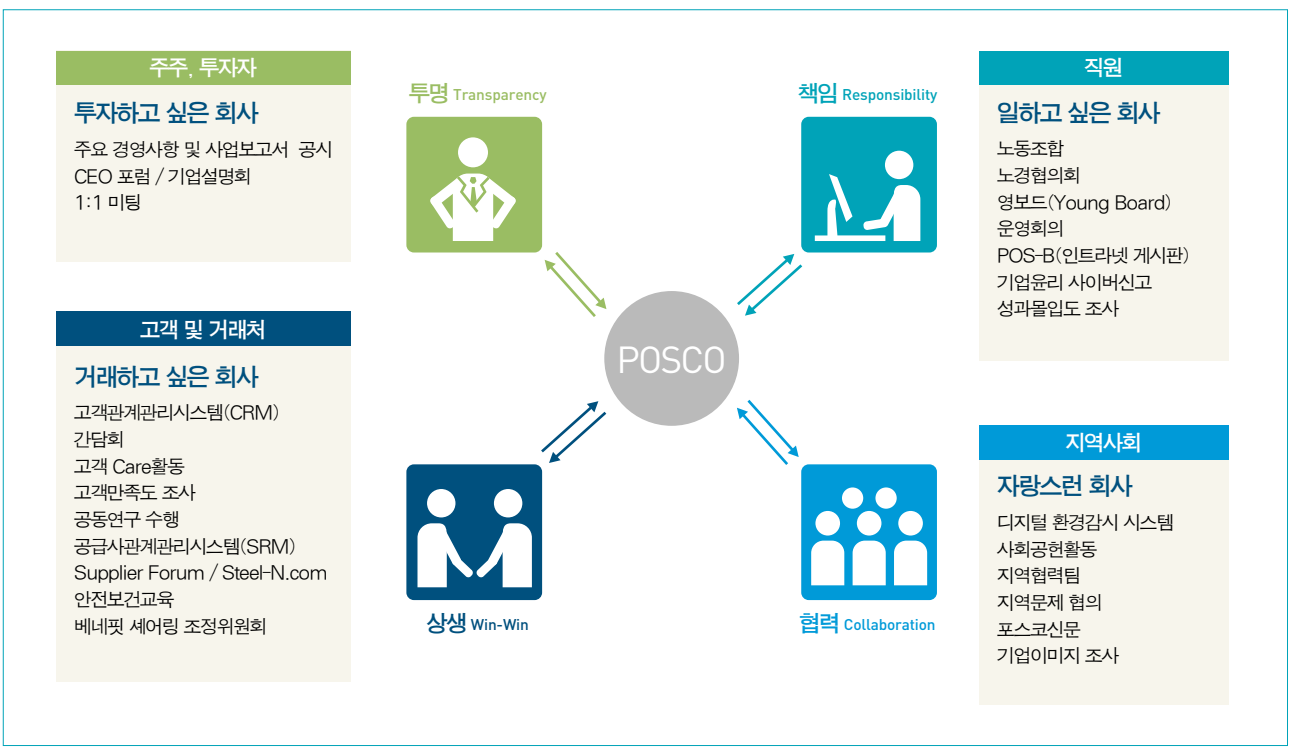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수단

의사소통 활동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동반 발전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스코는 규모와 산업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또한 영향력 있는 단체와 대중으로부터 많은 요구사항을 듣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활동은 경영활동에서 매우 중요하며 회사의 여러 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과 의견 청취, 그리고 상호 협력을 위한 대화는 기업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회사 각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활동의 예를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 내 관련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

포스코의 CSM팀은 2005년 11월 NGO 기관 4곳을 포함하여 총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포스코의 지속가능경영 정책과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도된 이해관계자 조사는 14명이라는 표본 조사의 한계로 인해 답변이 갖는 대표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와 전문가들을 설문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배구조 개선의 궁극적 지향점, 사회공헌의 전략 수립, 비영리기구 및 NGO와의 파트너십 강화 등을 2006년 계획 중인 지속가능경영 부문별 실행 가이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포스코의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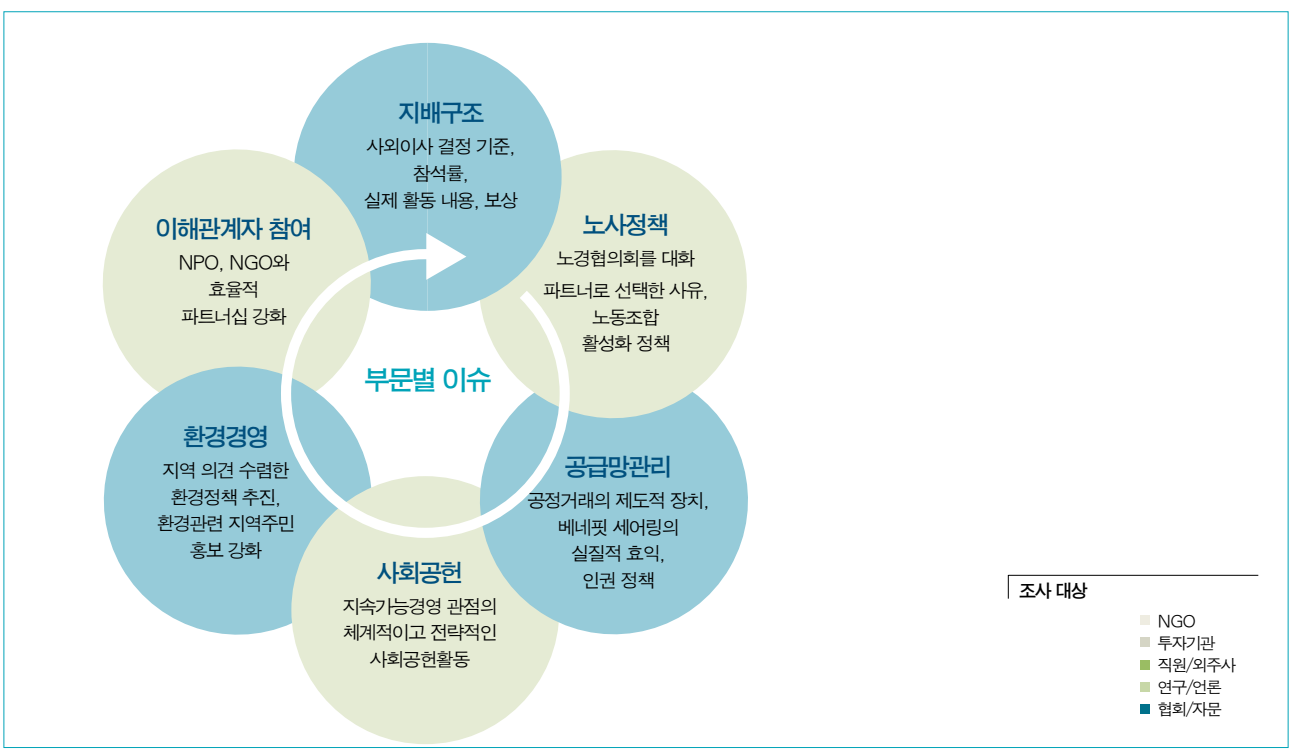


조사에 의하면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포스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배구조, 환경경영, 이해관계자 정책 등 총 10개 중 9개 조사 영역에서 인식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사회 이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은 NGO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GO 소속 4명은 10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인식이 개선되었고, 2개 영역에서 변화가 없었으며, 나머지 4개 영역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설문 대상자들은 보고서 발간에 임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 또는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문위원회를 포함한 사외이사 활동의 구체적 내용, 윤리 활동의 구체적 사례와 성과, 미디어와 민원으로 제기된 환경 이슈들과 그 해결 과정, 노경협의회의 역할 및 노사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 인도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베네핏 셰어링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내용 등입니다. 2005년 보고서는 이러한 요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의 본격적 시행을 모색하는 첫 시도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CSM팀은 관련 부서 및 연구원들과 협력하여 NGO와 관련 산업계를 중심으로 하는 포럼을 개최하는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이슈들은 지속가능경영 및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에 반영될 것이며,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준비하는 핵심 자료가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성 이슈 조사결과



기업지배구조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이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는 필수 요소입니다. 포스코는 전문경영진의 책임 경영과 이사회의 독립적 역할, 이해관계자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등 선진형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소유가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다수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회가 전문경영진의 활동을 감시하는 형태의 지배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문경영진과 이사회는 균형 있는 견제 속에서 사업을 수행하여, 장기적인 주주 가치 증진을 추구합니다. 2000년 민영화 이후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실효성을 위해 사외이사 비율 확대, 이사 선임 프로세스 개선, 전문위원회 역할 강화 등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2004년 3월 제정된 기업지배구조헌장은 이러한 노력을 잘 대변합니다. 2006년 2월 주주총회에서는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하기로 결정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선진형 기업지배구조 구축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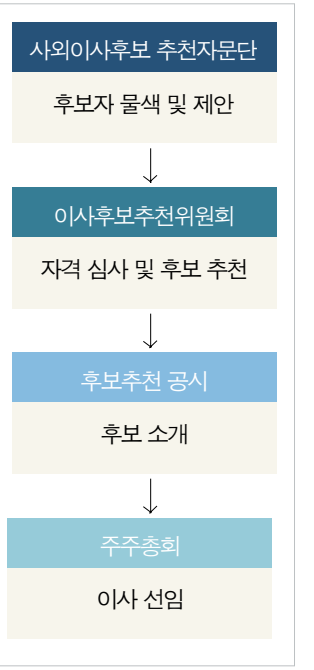
1997. 3	사외이사제 도입
1999. 3	글로벌 전문경영체제(GPM Global Professional Management) 도입
2000. 3	의결기능을 갖춘 전문위원회 제도 확대, 개편
2004. 3	기업지배구조헌장 채택, 사외이사 비율 60% 확대, 집중 투표제 및 서면 투표제 도입(소액주주권리 강화), 전환우선주 발행조항 삭제
2006. 2	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 CEO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근거 신설

이사회 구성

현재 15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 9명이 사외이사이며, 이들의 실질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이 선임할 이사 수의 3배를 추천합니다. 이후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자격을 심사하여 후보를 추천하며, 최종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결정됩니다.

이사회는 6개의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그 중 5개는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에서 정한 독립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2005년에는 모두 7회의 이사회가 열렸으며, 사외이사의 참석률은 85.7%, 전체 참석률은 91.4%입니다. 주요 의결사항은 도쿄증권시장 상장, 자사주 매입, 한국종합에너지 한화지분 인수, 인도 일관제철소 건립 등이 있습니다. 부가적인 정보는 포스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과정



이사 및 임원 보상

사외이사 및 상임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2005년 2월 주주총회는 보수 한도액을 45억 원으로 승인하였으며, 실제 집행금액은 40.1억 원이었습니다. 2006년 2월 주주총회에서는 보수 한도액 60억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임원의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이사회에서 직위별로 기준금액을 결정하고, 성과연봉은 이사회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인센티브는 연도 경영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초과 달성한 정도에 연계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회의 주요 역할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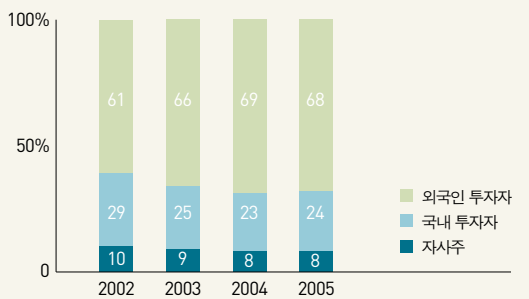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사후보의 자격심사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상임이사 중 대표이사 선임 전문위원회 위원 선임 사전 심의	상임이사 1 사외이사 3
평가보상위원회	경영진 평가, 보상에 관한 사항 사전 심의 경영성과 평가	사외이사 4
재정 및 운영위원회	주요 사외투자 계획,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 사전 심의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기부찬조 심의 의결 사채 모집 및 중요한 자금 차입 관련 안건 심의 또는 의결	상임이사 2 사외이사 3
경영위원회	주요 사내 투자 계획 사전 심의 또는 심의 의결 직급체계, 인력개발, 근무제도 및 복리후생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의결	상임이사 6
감사위원회	이사의 직무집행 감사, 외부감사인 선임 등 법정 권한 행사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 임명 동의 이사회 위임사항 수행	사외이사 4
내부거래위원회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내부거래 사전 심의 또는 심의 의결	사외이사 4

CEO의 성과연봉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종합한 전사 경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됩니다. 정량평가는 EVA, EBITDA, 매출액, 주가 변동률 등의 항목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경영목표 및 과거실적에 대비한 성과달성 정도에 따라 계산되며, 정성평가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평가보상위원회에서 중기경영전략 과제별 달성노력도를 평가합니다. 또한 CEO를 제외한 상임이사와 집행임원은 전사 경영성과와 CEO의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이 지급됩니다. 이 밖에 임원 퇴직금 등 보상에 대한 일체의 세부사항은 평가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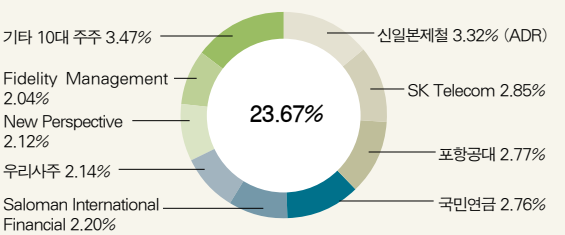
주주 구성

2005년말 기준으로 포스코의 최대 주주는 SK텔레콤으로, 발행주식의 2.85%인 2,481,0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증권거래소에서 미국 주식예탁증권(ADR) 형태로 보유한 주식보유 비율은 27.38%이며, 최대 주주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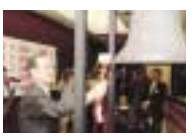
주식 보유 비율



2005년 주주 구성비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상장



포스코는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했습니다. 총 발행주식의 4% 수준인 350만 주에 해당하는 미국예탁증권(ADR) 1,400만 주는 2005년 11월 22일부터 공식적으로 거래가 개시되었습니다. 1994년 뉴욕증권거래소(NYSE ADR: PKX), 1995년 런던증권거래소(LSE: 0549q.L)에 이어 시가총액 기준 세계 2대 증권시장인 도쿄증권거래소(5412)에 상장됨으로써 주주 구성을 다변화하고 세계 3대 증권시장에서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글로벌 주식거래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기업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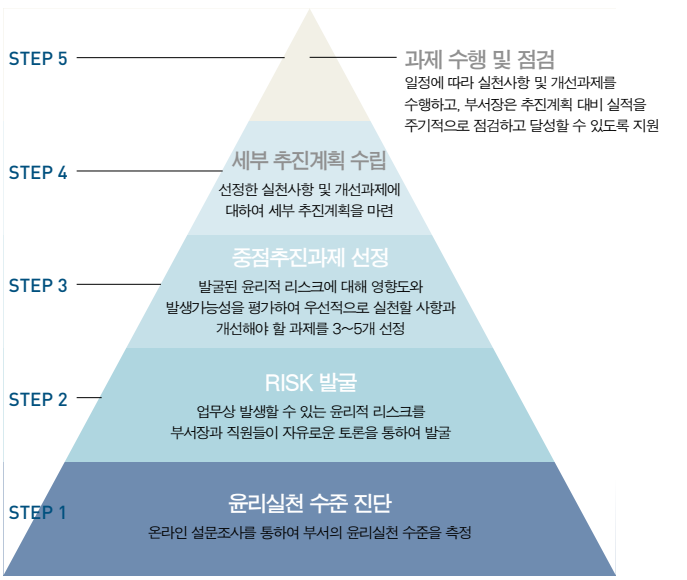
"포스코가 지속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모든 포스코인의 가슴속에 '도덕성'이라는 핵심 가치가 면면히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리규범 준수 서약식에서 CEO, 2005.1.3)

'기업윤리와 회사 이익이 상충된다고 느낄 때 기업윤리를 우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최고 경영자의 말은 포스코의 기업윤리 실천의지를 잘 말해줍니다. 포스코의 엄격한 기업윤리 준수 노력과 그 실질적 효과는 이미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과 단체로부터 모범 사례로 평가되어, 2005년에는 부패방지위원회의 대통령 표창과 한국기업윤리학회의 기업윤리 대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포스코는 여러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임직원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당 연간 20시간의 e-러닝 교육과 4시간의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기존의 e-러닝 과정에 더하여 사례 학습을 위주로 하는 e-러닝 과정을 개설했으며, 중간관리자층인 주임, 직책보임자인 팀리더와 부 · 실장, 그리고 임원에 대해 계층별 집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숫자 6과 2의 발음이 '윤리'을 연상시키는 데 착안, 6과 2로 끝나는 날을 윤리의 날로 정하여 사내 인트라넷 로그인 때 윤리 팝업이 뜨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5년 윤리 팝업은 윤리적 행동 테스트 등 내용의 실질적 효과를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윤리 자율실천 프로그램 단계별 주요 내용



포스코는 2005년 6월부터 비윤리행위 예방을 위하여 '기업윤리 자율실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부서장이 자율적 윤리 실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 단계 성숙한 윤리 실천 활동으로서, 부서별 윤리 리스크를 자체 발굴하고 스스로 개선과제를 수행하는 1년 주기의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전사적으로 340여 개의 실천과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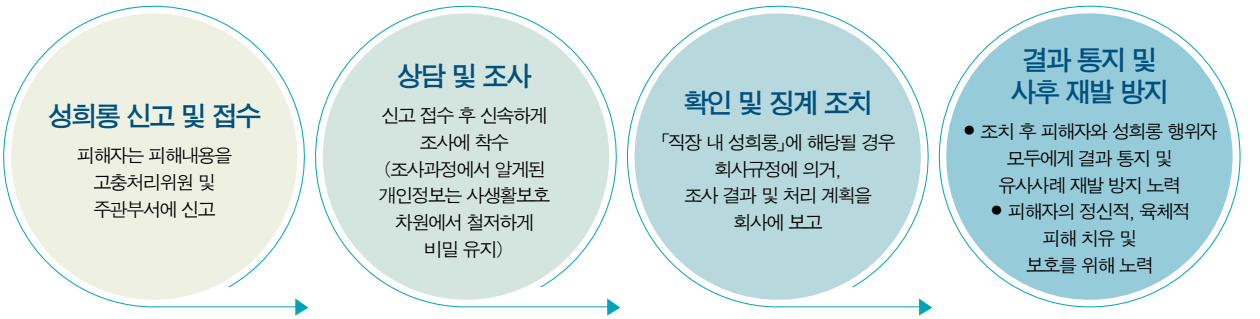
* 기업윤리 워크숍

기업윤리는 포스코의 출자사는 물론 여러 이해관계자와 함께 실천할 때 더욱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신규거래사 기업윤리 설명회, 고객사 경영진 기업윤리 워크숍, 자재공급사 윤리설명회 등을 통해 포스코의 윤리경영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해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실천 내용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인권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강제 노동과 15세 미만의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회원국이며(1999년 가입), 아동 노동에 관한 협약(Convention 138)에 비준(ratify)하였습니다. 따라서 포스코는 강제

직장 내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노동과 아동 노동을 금지한 근로기준법과 ILO의 아동 노동에 관한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출신지역, 성, 연령,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차별이 있다고 느낄 경우에 직원은 기업윤리 상담이나 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의 채용, 승진, 급여, 교육, 퇴직 등의 처우에 있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음을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직원들은 성희롱 방지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며,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대처하고 있습니다.

기업윤리 관련 상담과 신고는 직원은 물론 일반인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2005년 윤리상담센터에는 총 106건(온라인 71건, 이메일 13건, 전화 22건 등)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이해관계 상충뿐 아니라 회사자산의 보호, 건전한 사회생활 등으로 다양해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비윤리행위 신고보상제도를 통해 2005년 12월 현재 7건에 대해 1억 1천여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공정거래(Fair Trade)

포스코는 기업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창의적인 영업활동 보장,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 등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합니다. 사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정착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5년 내부거래위원회는 7건의 내부거래를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을 13명에서 15명으로, 공정거래 실천리더를 10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율준수협의회 3회, 실천리더 워크숍 3회, 출자사 워크숍 2회 개최 등 활발한 공정거래 관련 운영 협의체의 가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심의 결정 사례 및 Q&A를 대폭 보완한 공정거래준수편람 개정판을 제작하여 관련 부서 및 계열회사에 배포했습니다. 2004년 8월 하도급 부문, 2004년 11월 불공정거래 및 약관 부문에 이어 2005년 5월에는 대규모기업집단 부문에 관한 편람을 배포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직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율점검 안내서를 발간하여 이를 전직원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공정거래 e-러닝 과정 개편을 통해서도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개설 후 2005년까지 총 10,386명이 수료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전문가를 초청한 실무교육을 병행하여 2005년까지 총 14회, 854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였습니다. 인트라넷 팝업창을 통해 임직원들의 자율점검 및 준법의식을 강조하고, 임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사내외 동향을 담은 '공정거래 소식지' 를 매월 발간하였습니다.

2005년 공정거래 유관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인식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외 전문가를 활용한 계층별, 부문별 맞춤식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의무수강 부서를 기준으로 95% 이상의 직원들이 e-러닝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기업집단 차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계열사 운영회의 등을 활용하여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계열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준수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자율준수 프로그램: 2002년 8월 제정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 감독 등 회사 내부의 준법 시스템

위험관리체제

기업경영에서 예상되는 불안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포스코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RMS)를 기반으로 위험 요인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무보고 내부통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Sarbanes-Oxley법 등 국내외 회계제도 개혁법에서는 재무보고서 산출과정(Process)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경영진에게는 사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20-F) 제출시 내부통제의 효율성에 대하여 확인하고 인증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에게는 내부통제에 대한 입증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NYSE에 상장된 포스코는 2003년 12월 공시 및 내부통제에 대한 CEO/CFO의 인증절차 수립, 윤리규범 및 공시규정 보완, 공시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내부통제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004년 2회, 2005년 1회에 걸쳐 전사 2,656개의 통제활동에 대해 총 57개 부서가 자가 진단한 후 독립부서가 객관적인 테스트 검증을 실시한 결과, 효과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진이 매 반기마다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에 주요 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2005년 3월에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주요 계열사로 확대 구축하여 연결재무제표상의 재무보고 산출·공시에 대한 신뢰성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내부통제 운영을 위하여 내부통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부통제를 위한 설계, 조직구성과 역할, 보고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회사여건에 맞는 프레임워크를 제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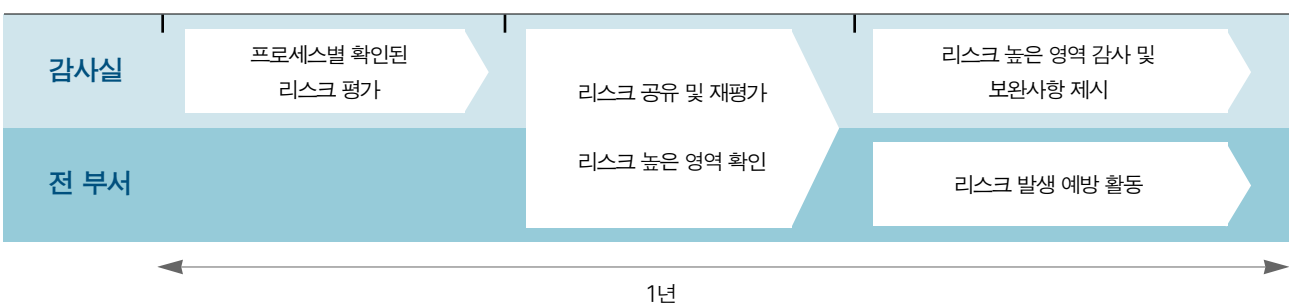
내부 감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을 사후에 밝혀내는 감사보다는 업무 리스크 최소화를 통해 경영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포스코는 위험관리 시스템 기반의 내부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위험관리 시스템은 과거 수년 간의 감사실적과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바탕으로 2004년에 구축되었으며,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302개로 분류된 전사 프로세스의 목적과 그 장애 요인을 분석해 1,004개의 리스크를 설정하고, 개별 리스크에 대해서는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 현재 관리수준을 평가해 리스크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리스크에는 매출이나 이익 증대에 장애를 주는 요인, 불필요한 비용 유발 요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년 4/4분기에 감사실과 각 부서가 협의를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재평가합니다. 여기에서 도출된 새로운 사항 등을 등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서별 자체 예방 활동을 수행하여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게 됩니다. 또한 익년도 감사계획도 이를 토대로 수립되어, 리스크가 높은 부문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부서별 예방 활동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현업 부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최소화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 발생 예방 효과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2005년 광양제철소 정비부서는 위험관리시스템를 활용해 자체 점검을 추진하여, 7,000만원 상당의 정비비를 절감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RMS 기반의 예방활동 프로세스



비상사태 대비 위기관리 훈련

포스코는 국가보안 목표 시설로서 위험요소에 대한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쟁, 테러, 대규모 재해·재난 등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각종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마다 각급 행정기관과 상호 연계하에 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행 주요 과정은 최초 상황보고가 이루어지면 연습통제단에서 주야간 불시에 메시지를 시달하고, 상황요원은 지정된 시간 내 이를 접수·처리해 최종적으로 일일 상황보고를 하며 마무리됩니다.

2005년 훈련은 컴퓨터로 지휘소 설치 및 운영을 훈련하는 도상연습, 실제와 똑같은 상황을 가정한 훈련, 철강생산 원·부자재 수급대책과 포항항만 피해시설 긴급복구 및 운영대책에 대한 핵심과제 토의로 구분, 사이버 테러 등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를 적용해 실질적인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감사실이 연습 평가반으로 참여함으로써 객관적인 연습평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05년 포항과 광양 제철소는 재난방지 대응업무의 틀을 혁신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업무영역 불명확에 따른 점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풍수해, 지진, 해일, 폭염, 혹한, 폭설 등 자연재해 전 분야에 대해 대비책을 수립하는 등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방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소방설비 관리체계를 전문적 '통합방재예방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어떠한 재난에도 조업시스템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MES의 긴급 복구능력에 대한 검증을 위해 'MES BRS(Business Recovery System)'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포항제철소 BRS의 주요 기능은 포항 데이터센터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광양제철소의 MES 테스트계를 활용해 포항제철소의 MES 시스템을 복구하는 것이며, 이는 반대의 상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 BRS: 지난 2001년 미국의 세계무역센터가 테러에 의해 폭파됐을 때 미국 증권시장이 시스템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즉시 재개될 수 있었던 데서 유래한 용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감독체계

포스코는 공정거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직원들이 소관 업무의 법 위반 가능성을 자율적으로 점검한 후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부서와 상담하도록 하는 '부서별 자율점검 및 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자율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거래 체크리스트를 점검의 목적에 따라 자가진단용, 부문별, 위반행위 유형별 체크리스트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 구매, 외주 등 7개 핵심부서에 대해서는 자율점검 필수부서로 지정하였으며, 7월에는 이러한 자율점검의 체계 및 방법, 공정거래 체크리스트 등을 총 망라한 공정거래 자율점검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 공정거래 웹사이트

지속가능경영 성과

새로 조직된 CSM팀을 중심으로 포스코는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이해관계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경영체제를 정비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포스코는 2005년 CSM팀(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 team)을 정식으로 발족시켜 지속가능성을 회사의 경영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CSM팀은 지속적으로 변하는 대외 동향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관련 종합적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경영방침과 제도, 프로세스에서의 지속가능성 이슈를 진단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사내 관련 부서 활동을 조율하는 등의 기능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과정을 보다 체계화하여 경영시스템에 반영하고, 지속가능성 이슈를 모든 출자회사와 공급망에까지 확산하는 활동 등을 주요 과제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유지하는 것은 지속가능경영의 기초가 됩니다. 2004년부터 선택된 항목에 대해 독립적 외부기관의 검증을 받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포스코의 경제, 환경,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경영활동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높아지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자, 포스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질을 한층 높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이해를 높여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자 e-러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대외 단체와의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철강협회의 지속가능성 보고 프로젝트 그룹, 환경위원회, 이산화탄소 저감 프로젝트, 기후변화협약 대응 활동, LCA(Life Cycle Assessment) 및 LCI(Life Cycle Inventory)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산업계를 선도하여 경제 성장, 환경 보전, 사회 발전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orea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BCSD)에 2002년 창립 때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에는 세계 철강사 중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세계기업협의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에 가입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철강산업에서 지속가능경영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이에 앞서 6월에는 포스코의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포스코경영연구소가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동향에 맞추어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를 업그레이드하고, 논의 중인 이슈에 포스코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2005년 9월 포스코는 샘(SAM) 연구소의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DJSI) 회원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철강산업에서는 포스코를 비롯해 캐나다의 도파스코(Dofasco)와 유럽의 아르셀로(Arcelor) 등 3개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포스코가 세계 철강 산업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그 성과를 인정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3개년의 평가를 보면 포스코의 총점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강산업 베스트 기업과의 격차가 현격히 줄었습니다.

이번 샘 연구소의 지속가능성 평가는 경제, 환경, 사회에 걸친 20개 평가항목에서 총 76개 문항에 대해 실시되었습니다. 특히 사회 부문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강화되는 추세가 뚜렷했습니다. 또한, 정량적 지표에 기반한 성과 중심의 평가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경영 방침이나 관리 체계가 이미 빠른 속도로 여러 기업에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평가 결과에 의하면, 포스코는 경제 부문 종합 평가에서 산업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CEO 포럼을 비롯한 정기적인 국내외 기업설명회 등 활발한 투자자 관계 활동과 출자사 뿐만 아니라 공급사, 외주파트너사 등으로 확산 중인 내실 있는 윤리경영 실천 부문에서 철강산업 우수사례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배구조 부문은 2004년 대비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글로벌 우수사례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환경 부문에 대한 2005년 평가는 다른 부문에 비해 포스코에게 몇 가지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기후변화 부문은 철강업계 전체의 대응이 다른 산업 대비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포스코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이에 비해, 환경경영 일반은 DJSI에 선정된 기업 대비 열위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환경 보고 측면에서 국내외 출자사로 보고 범위를 확대하고 지표 정의를 분명히 하며, 세부 지표에 대한 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웹사이트를 통한 환경 성과 공개 방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사회 부문의 평가에서는 공급사 관리와 인적자본 개발 및 이해관계자

참여 항목에서 철강산업 우수사례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회공헌활동에서 전략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개선 사항으로 도출되었고, 사회적 성과 보고에서 보고 범위 확대 등의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무 정책과 지역사회 영향 관리 부문에서도 집중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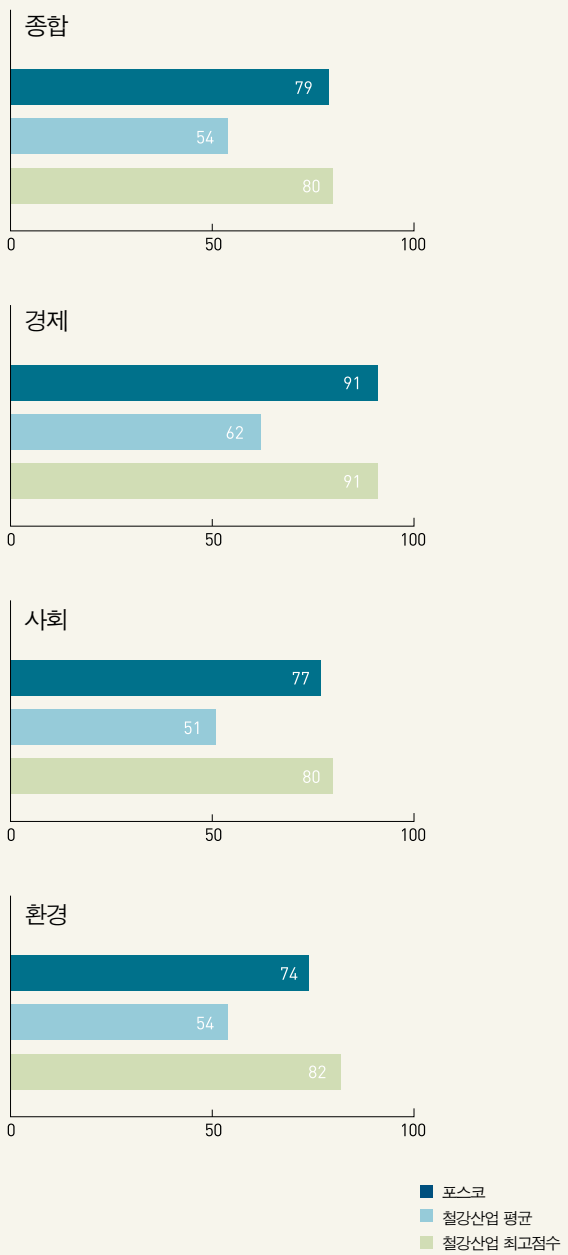
포스코는 2005년 평가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인 결과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샘 연구소에 벤치마킹 서비스를 의뢰하였습니다. 여기서 도출되는 여러 과제는 회사 부문별 지속가능경영 실행 가이드에 반영되어 각 부서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다우존스 지속가능지수(DJSI)

DJSI는 금융 정보 회사인 다우존스가 지속가능경영 우수 기업의 기업 가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주가 지수로, 다우존스 글로벌 인덱스에 포함되는 세계 2,500여 기업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절차를 통해 선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우존스사는 스위스의 샘(SAM) 연구소에 지속가능성 평가를 의뢰하고 있으며, 샘 연구소는 미디어 조사와 이해관계자 분석 그리고 광범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해 SAM DJSI 회원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샘 연구소는 회원사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며, 연례 재평가를 통해 평균 10~15%의 기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2005년 평가에서는 54개 회사가 탈락했고 57개 회사가 신규로 선정돼, 59개 산업부문에서 총 317개 기업이 2006 SAM DJSI 회원사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원사들의 주식은 '사회책임투자(Social Responsibility Investing)' 기금에 우선 투자 대상으로 추천됨으로써,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투자자들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AM DJSI 평가결과



2005년 국내외 수상내역

- 2005 존경받는 기업 대상,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서울경제신문(2005.2)
- 투명경영대상,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2006.2)
-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철강부문 1위, 포천
- 아시아 50대 기업, 포브스(2005.10)
- '150대 아시아 기업' 중 6위, 비즈니스위크
- 대학원생 기업선호도 2위, 잡코리아
- 구직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기업, 코리아리크루트사
- '전국 대학생 의식조사' 기업 이미지 부문 철강분야 1위, 한국대학신문

caring movement

인간에 대한 존중이 포스코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입니다. 철의 생산을 통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자 했던 포스코의 꿈은 직원들의 당당한 자부심으로, 고객들의 새로운 감동으로 그리고 파트너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자원이자 희망이기에, 포스코의 인간 사랑은 더욱 깊어갑니다.

HUMAN

22 안전과 보건
24 직원
29 고객사와 공급사
33 사회공헌

안전과 보건

"올해 임직원들이 가장 큰 힘을 쏟아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안전과 환경입니다. 모든 직책 보임자들이 '안전이 최우선' 이라는 생각을 확고히 할 때, 우리 회사도 사람을 중시하는 선진 회사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CEO, 2005년 1월 4일 운영회의)

안전과 보건은 포스코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며, 회사의 경쟁력에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포스코에서 안전과 보건은 창업 이래 최고 경영자의 관심과 의지를 바탕으로 기업문화로 발전해 왔으며, 무사고 기록은 이상이 아닌 목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안전보건관리지침은 전사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포항과 광양의 제철소는 각각의 안전보건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모든 포스코 직원은 물론 작업장 내의 외주파트너사 직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제철소 단위에서 분기마다 열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합니다. 위원회에는 노사 각 7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제철소장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또한 제철소 내 부문별 안전보건협의회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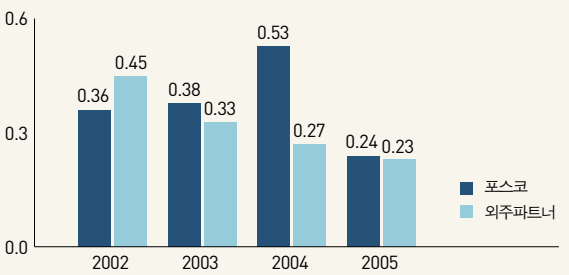
안전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포스코 안전프로그램(POSCO Safety Program)에 따라 신입사원에서 간부에 이르기까지 계층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e-러닝 과정을 통해서도 안전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예로는 격리 및 시건 제도(Isolation & Locking System; ILS), Tool Box Meeting(TBM), 공정안전관리제도(Process Safety Management; PSM), 필수안전수칙, 자율안전관리 인증제도 등이 있습니다.

포항, 광양 양 제철소의 안전팀은 안전 관련 활동의 효율적 추진과 현업 중심의 안전, 보건, 방재활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단계 전사 통합 안전방재 시스템을 개발하여 2005년 4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재해에 취약한 중대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고, 법정검사 누락 또는 지연을 방지해 관련 법규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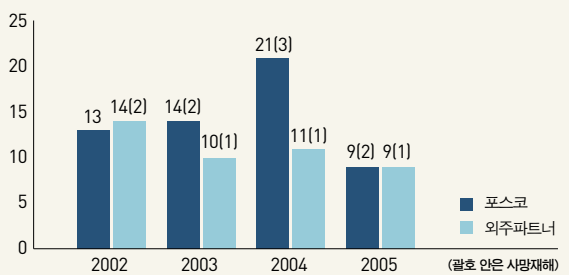
또한 안전 관련 통계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졌고 재해속보 등을 전 직원이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2004년 5월에

휴업도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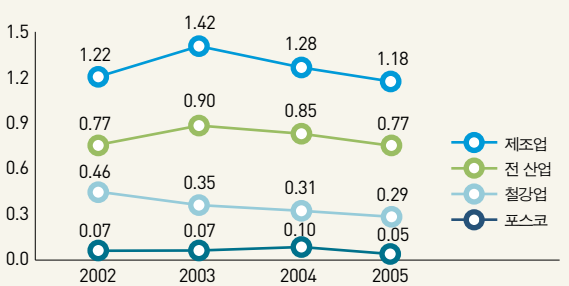
* 휴업 도수율=(휴업재해건수/연근로시간)x백만시간
* 외주파트너사 휴업도수율에 사용된 연근로시간은 각 사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기초로 산정

재해 건수



* 4일 이상 휴업이 발생한 경우 재해로 인정
* 2005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이후 판명된 재해 2건이 추가되어 2004년 포스코 재해 건수 및 휴업도수율은 각각 19건에서 21건, 0.48에서 0.53으로 정정.

재해율 추이



* 재해율=(재해자수/평균근로자수)x100
* 출처: 전 산업 및 제조업은 노동부, 철강업은 한국철강협회

는 가스시설, 위험기계기구, 소방시설 법정검사 등 대 관청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1단계 전사 통합 안전방재 시스템을 가동한 바 있습니다.

✚ 안전방재시스템(e-Safety System): 재해통계, 니어 미스(near miss), 위험기계기구의 결함 및 사후관리, 위험성 평가 등 안전관리의 전반적인 분야를 지원하는 사내 전산망. 이를 통해 각 부문별 최근 재해현황과 니어 미스 사례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음.

외주파트너사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교육훈련, 안전진단 등 폭 넓은 분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 조정자(safety coordinator) 제도를 운영하여 포스코와 외주파트너사 간에 활발한 의사소통과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철저한 안전 관리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결과는 안전방재시스템에 등록되어 모든 직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작업장의 안전에 관한 지표로 휴업도수율과 재해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휴업도수율은 100만 시간당 발생하는 휴업재해 건수를 말하는 것으로, 한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휴업재해로 인정합니다. 재해율은 근로자수 대비 재해자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안전 관련 지표는 매월 모든 임원과 관리자급이 참석하는 전사운영회의에 보고되며, 지표 결과에 따라 엄격한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

진료, 건강진단, 산업위생 기능을 갖춘 포스코 보건지원센터는 직원 개인별 건강관련 자료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전사 보건관리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건강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건강상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진료기능을 갖추고, 일반상병 및 만성질병 치료와 상담을 하고 있으며,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직원들에게 보건의학적 치료 지원을 위해 물리치료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또는 직장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지혜롭게 잘 관리하여 건강한 조직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전문 스트레스 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말부터 포항에서는 심리상담실 '휴토피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양에서는 인근 심리상담센터 및 신경정신과와의 협약을 통해 직원에게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일반 건강진단이나 작업환경과 관련한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종합검진시설을 갖추고 소음작업장 근무자의 소음성 난청검사, 분진작업장 근무자의 폐기능과 진폐검사,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근무자의 간기능과 혈구검사 등 정밀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이상자의 질병악화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요인으로부터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환경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인간공학적 개선, 올바른 작업자세 지도 등을 통하여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직원들의 작업피로와 근육 · 관절 계통의 유연성을 증대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스트레칭 체조를 개발해 그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환경의 유해요인으로부터 작업자 건강보호를 위해 우수품질의 위생 보호구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직원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5대 건강 생활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흡연은 각종 질병과 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다양한 금연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통한 만성질병 치료와 예방,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처방과 트레이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최첨단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인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의사, 간호사 등이 참여하여 의료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 체험관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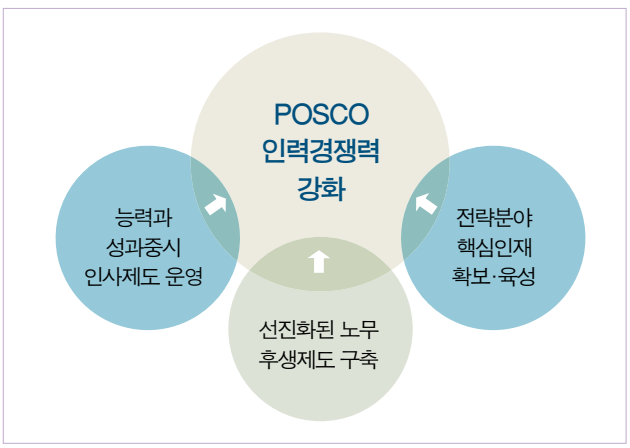
광양제철소는 2005년 9월, 실제 체험을 통해 안전문화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안전문화 체험관을 개관했습니다. 안전문화 체험관은 총 266평 규모로 안전전시실과 9개의 체험실습실, 정보자료실 등이 갖춰져 있어 산업현장 안전은 물론 교통 및 가정 안전에 대한 다양한 테마를 최신 설비를 통해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크레인 같은 전기기계 작업환경이나 밀폐공간과 같은 실제 작업현장을 그대로 재현해 학습과 현장업무가 곧바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안전문화 체험관을 외주파트너사는 물론 관계 건설회사 등에 개방할 예정이며, 향후 광양제철소 견학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일반인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직원

포스코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역량은 경쟁력 있는 인력자원입니다. 포스코는 직원복지와 노사화합, 교육훈련, 지식경영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직원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는 포스코의 인력자원 관리 목표는 국제경쟁력 확보입니다. 이는 곧, '글로벌 포스코'에 부합하도록 조직 구조를 혁신하고 일하는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최적의 인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포스코는 이를 위해 글로벌 경영, 신사업 진출, 철강 신기술 개발 등 미래성장 전략분야에서 일할 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며,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유학, 글로벌 지역전문가 현지파견을 시행하는 등 인력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과배분제, 우리사주제도, 노경협의회 등을 통해 직원의 경영참가를 활성화하고 노사화합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또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을 완비하는 한편, 4조 3교대, 주5일 근무제, 선택형 복리후생제도 등 선진형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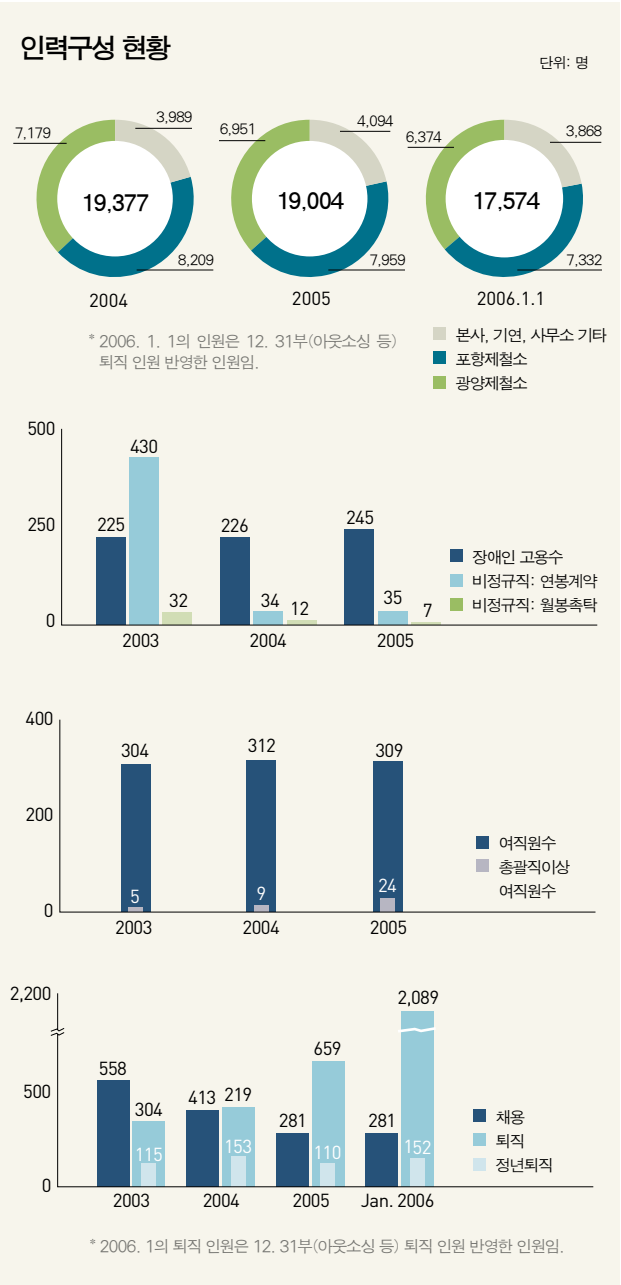
POSCO 인사 노무 제도의 방향



인력 현황

포스코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미래의 노무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 규모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05년 12월 31일부로 분야별 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분사, 효과적인 인력자원 운영을 위한 아웃소싱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한 2006년 1월 현재 인력 규모는 17,574명입니다.

포스코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고용 관련 법률 정신을 존중하며, 적극 준수하고 있습니다. 2005년 3월 신고 기준 장애인 고용은 법정 고용인원 228명을 초과한 245명입니다.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노경협의회

노경협의회는 직원들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직원대표기구입니다. 협의회는 총 20명으로 근로자위원 10명과 경영자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경협의회는 매 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부가적인 협의사항이 있을 때는 별도로 임시회의를 개최합니다. 제철소와 부문별로도 매 분기 협의회가 개최되며, 격월로 부·실협의회, 그리고 매월 과·공장협의회가 개최됩니다. 이들 협의회에서는 조직단위별 여건에 맞는 직원 관심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직원의 불편을 줄이고 직원대의기구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개인의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은 전화나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 받아 해결합니다.

2005년 1월 직접 투표 방식을 적용해 선출된 총 414명의 부서별 기초위원들은 노경협의회와 함께 단위 조직의 현안 문제와 공통 관심사항을 토의해 해결하고, 회사 경영 현황과 정책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직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05년 4/4분기에는 글로벌 경영여건 속에서 노사의 동반 성장을 위해 '노사공동 회사 경쟁력 증진 활동'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QSS 현장 혁신마인드 제고와 생산성 향상, 제도·관행 개선으로 낭비요인 제거, 전사 차원의 안전 마인드 제고 등이 있습니다.

2005년 노경협의회 주요 협의 내용

구 분		내 용
정기회의	1분기	안전화 품질 및 현장 작업복류 지원 개선 직원 가족 참여 행사 연장 실시
	2분기	직장보육시설 도입 ESOP 지원
	3분기	주택 자금 대부금 상향 조정 및 이자율 인하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위한 노사합동연구반 운영 합의 그린라이프 교육 개선 종합방안 마련 합의
	4분기	노사공동 회사경쟁력 증진활동 추진 2006년 직원교육 계획
임시회의	임금조정	회사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임금 위임 임금체계 조정 합의

영보드

포스코는 현장 생산, 연구, 마케팅, 기획부서 등 다양한 부서의 역량 있는 직원들 중 20명을 선발하여 영보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보드는 연 2회 회사 발전 방향에 대한 건의사항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토론회를 갖습니다. 현재 영보드 위원 중 직책 보임자는 40%, 여성은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 주제

2005	
	• 과거 5년전과의 변화내용 분석을 통한 향후 5년후의 변화방향 • 창의성이 살아있는 회사 만들기 • 우리의 일하는 방식 얼마나 변했는가? • 신뢰의 회사문화 구축방안

인트라넷 포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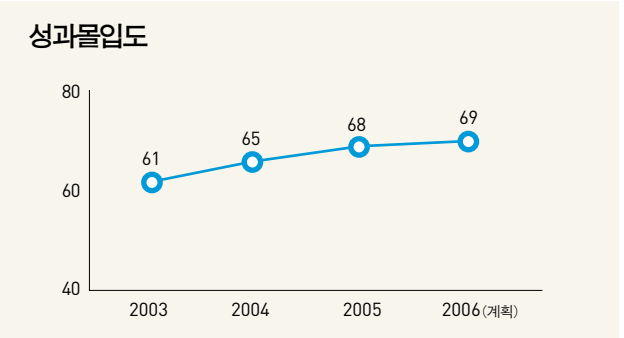
포스코는 직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공간으로 회사 인트라넷 사이트인 '포스-비(POS-B)'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곳에 필명으로 회사에 관련된 내용을 토론하고, 업무와 관련한 고충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 담당부서는 게시판의 글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게재하며, 업무에 직접 반영하기도 합니다. 포스-비를 통해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글을 올릴 수 있어 직원과 경영자간의 커뮤니케이션 창구 역할을 합니다. 직원들은 2005년 포스-비에 2,800여 건의 자유로운 의견을 등록하여 토론하였으며, 업무와 관련한 고충은 125건을 등록하여 업무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받아 고충을 해결하고 해당 업무에 직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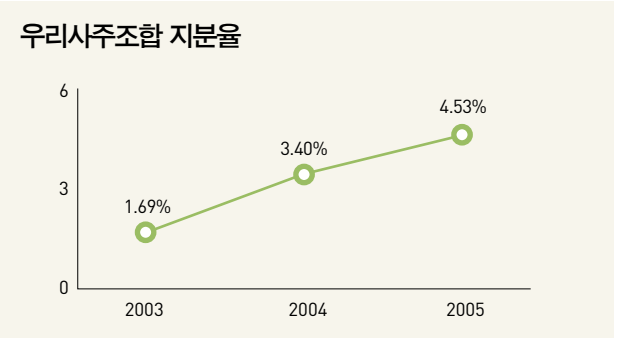
성과몰입도

성과몰입도 조사는 직원들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는 기존의 직원만족도 조사를 대체하는 것으로 2003년부터 매년 실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 한해 동안 2004년 조사결과에서 성과몰입 수준이 낮게 조사된 부문과 계층을 중심으로 각 부문별 향상 노력이 다각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포스코는 직원들의 성과몰입 수준 향상을 위해 계층별, 부문별 특성에 맞게 제도 개선, 간담회, 팀파워 활동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성과몰입도 향상 활동

구 분	활 동 내 용
본사	• 저근속사원 성과몰입도 제고방안 수립·시행, 승진기간 단축, 입사초기 6시그마 과제 부여 등 • 간담회 확대, 조직분위기 개선 등 상하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제철소	• 포항 : 현장 근무환경 및 후생서비스 개선, 평생학습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공유 등 현장지원 중심의 활동 추진 • 광양 : 근무/생활 시설의 개선, 계층별 특강/교육 및 현장직원 대상 대면접촉활동 강화 등 회사-직원 간 인식격차해소 중심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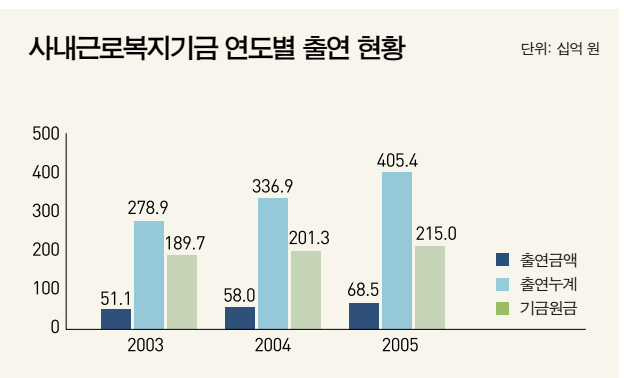




보상 및 복리후생

포스코는 대리급 이상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부분적으로 급여가 달라지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조기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성과를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영업이익의 일정분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창립 시기부터 직원들의 생활안정과 다양한 후생욕구 충족을 위해 직원과 직원 가족의 복리후생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생산성 증대를 위해 1991년 4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기금을 적립함으로써 직원의 복리후생 지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입니다. 노경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주택자금 대부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2005년에는 기금 운영기준을 두 차례 개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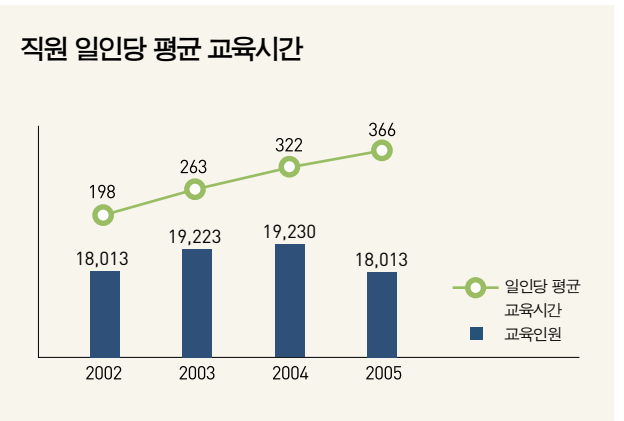
신(新)우리사주제도는 직원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기업가치 증가를 주주로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동일한 수량의 자사주를 회사가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매입 한도액은 2003년까지 240만 원이었으나 2004년부터는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직원이 원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구입 자금을 대출하기도 합니다.

교육 및 경력 관리

교육

포스코 인재개발원은 '성장과 혁신'의 경영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2005년 교육 운영 목표를 '첫째, 6시그마 혁신문화 정착 교육강화, 둘째, 평생 자율학습 체제 조기 정착, 셋째,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배양 교육강화, 넷째, 성과창출 직결의 교육혁신'에 두고 성장과 혁신을 주도해 나갈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005년 직원 일인당 평균 교육 시간은 366시간이며, 교육 연인원은 713,090명입니다. 이는 사내 집합교육과 e-러닝, 사외 위탁교육, 평생학습, 현업부서 주관교육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2005년 4월부터 평생학습이 도입됨에 따라 교육 인원과 교육 시간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포스코 인재개발원은 2005년 노동부가 전국 직업훈련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평가에서 인터넷원격훈련(e-러닝)과 재직자 위탁 교육(집합)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인증받았으며, 특히 인터넷 원격 최우수 훈련기관으로 선정돼 2년 연속 노동부 표창을 받았습니다.



교육 운영 목표

경영성과 향상 및 개인 경쟁력 증진

6시그마 혁신문화 정착 교육 강화	평생 자율학습 체제 조기 정착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배양 교육 강화	성과창출 직결의 교육혁신
• 변화관리 리더십 교육강화 • 6시그마적 일하는 방식의 선진화 • 6시그마 기법교육 확대	• 학습컨텐츠 및 방법 혁신 •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 평생학습 지원시스템 운영	• 글로벌 마인드 고취 • 글로벌 기초교육의 현장 적용력 제고 • 글로벌 전문인력 체계적 육성	• 핵심가치 공유확산 • 문제해결 중심교육 • 선진교육 기법적용

평생학습제 도입

2005년에 포스코는 일과 휴식, 학습의 조화를 통해 직원의 삶과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구하는 평생학습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평생학습제란 부서별 인력 여건, 직원의 필요 등을 고려하여 자기 계발이나 직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현업 부서 주도로 직원 요구에 맞는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학습과정은 교양문화, 가치공유, 직무역량 등 학습 흥미와 삶의 가치를 높이고 핵심 경영 가치를 공유하며 직무 관련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행 첫해인 2005년 포스코는 평생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직원 인식을 높이며 원활한 학습 여건 조성을 위한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평생학습 지원 시스템 개발, 교양문화강좌 개설, 사내 직무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포스코는 평생학습제가 직원 모두의 열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 현장 자율학습 문화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업부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 분야 및 내용

학습분야	가치공유	직무역량	교양문화
학습목적	회사의 핵심가치 공유를 통한 직원과 회사 간 신뢰 제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역량 배양으로 지식근로자 양성	삶의 가치와 보람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학습내용	경영환경, 혁신 마인드, 윤리, 안전, 보안 등	직무심화, 직무확대, 직무전환학습	7Habits, 벽 없는 조직, 독서토론, 교양강좌 등

고급기술전문가(POSCO Certified Professional)

포스코는 지난 1993년부터 시행한 전문직 제도를 대폭 손질하여 고급기술 개발에 전념할 핵심 전문 엔지니어를 육성하기 위한 고급기술 전문가 제도를 마련하고 2005년 9월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업 부문에서는 핵심 전략제품과 공정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정비 부문에서는 고급 정비기술 확보를 위한 요소기술을 중심으로 최고의 전문가를 선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사람들은 자격 인증과 함께 기술혁신 전문인력으로 구분하고 개인별로 과제와 경력을 관리함으로써 회사에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원적 인재양성 로드맵

전문가군

주니어 마스터 (팀리더급) → 시니어 마스터 (실장급) → 펠로 (임원급)

경영리더군

과 · 공장장 → 부장 → 경영리더

e-리더스 아카데미

포스코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팀리더급 직원, 6시그마 블랙벨트 요원을 선정해 포항공대에서 테크노 MBA 과정을 받도록 지원하는 e-리더스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리더십 역량, 글로벌 역량, IT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글로벌 리더십과 혁신의 비전을 갖춘 미래지향적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식경영

포스코의 지식경영은 학습조직문화 확산과 지식근로자 양성이라는 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5년에는 지식경영 활동목표를 '지식 활동을 위한 편리한 제도와 시스템 구축', '우수지식 창출'로 정하고, 지식경영시스템(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운영, 학습동아리 활동, 정보자료실 운영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식경영 실현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2005년에는 핵심지식 공유와 부서 맞춤지식 제공 등 Knowledge Plaza의 기능이 보강되었고, 하루 평균 7,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KMS에 접속해 13만 건 이상의 지식조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외전문가 DB 구축 등 KMS를 통한 업무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지식을 창출하고 일하는 방법의 선진화 정착을 위해 2004년 7월 시작된 학습동아리(CoP; Community of Practice) 활동은 제철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모든 직원이 지식근로자로 활동하는 업무 추진의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학습동아리란 공통 관심을 가진 직원들의 자발적인 학습 공동체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식을 창출하거나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2005년 현재 학습동아리는 2,970여 개이며 가입 인원은 5만 3천 명으로, 전 직원이 평균 2.7개의 학습동아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보자료실은 맞춤정보제공 서비스를 위해 임직원용 웹진을 발행하고 e-Book을 도입했으며, 정보자료 전자화를 통해 디지털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제6회 세계 지식포럼에서 '2005 세계 지식경영 (MAKE; Most Admired Knowledge Enterprise)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사외 학습동아리를 통한 사외전문가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고객사·공급사와의 전문지식 공유 등 지식 네트워크를 확장한 점을 인정받아 11월 매경·부즈앨런 지식경영대상 '기업가치 확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사내벤처제도

도전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스코 사내벤처제도는 독립회사형과 사내기업형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립회사형은 약 6개월간 창업 준비를 거쳐 독립법인이 되는 반면, 사내기업형은 회사의 경영전략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 아이템에 대해 약 2년 동안 사내에서 벤처활동을 한 뒤 분사하게 됩니다.

사내벤처 사례

포스코 사내벤처 3호인 CTA(Cleaner Technology Application; 청정기술적용)는 2005년 1월 창업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포스코의 친환경 제품 생산 정책에 의해 수년 간 개발된 청정 생산기술과 현장 설비 적용 노하우를 기반으로 청정기술, 설비, 소재 분야에서 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제7호 사내벤처 '알씨씨(RCC; Response to Climate Change)'는 2005년 말 분사했습니다. RCC는 기업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전략 수립 자문,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사내벤처활동을 통해 폭넓은 경험과 탄탄한 기술력을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철강 분야는 물론 기타 분야에도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내벤처 현황

구 분	벤 처 팀	사업 내용
사내벤처팀	MTS	공작기계 종합관리 및 공정관리 시스템 판매
분사벤처기업	㈜티에프에스글로발	유체와 관련된 IT 기반 Total Solution 제공
	㈜에스코프로	에너지절감을 위한 진단 및 설비투자(ESCO), 에너지설비 종합분석 시스템 개발, 제조 및 판매
	㈜씨에스삼육오	도/소매, 이벤트, 레포츠, 여행알선, 기타 생활문화 서비스
	㈜씨티에이	청정생산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 사업 등
	㈜우리디씨아이	집진기 진단/Cleaning/유지보수, 냉연 소둔설비 Cleaning
	㈜알씨씨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Consulting

✚ MTS: Machine Tool Service

고객사와 공급사

포스코는 고객사와 공급사와의 상생을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합니다. 고객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체계적인 고객 관계 관리와 고객 만족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공동개발과 시장개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사, 외주공급사와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경영혁신, 기술개발, 인력교류, 구매와 판매 협력 등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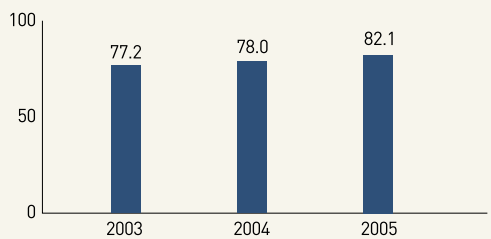
포스코는 고객 가치를 높이기 위해 관련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과 이를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 고객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고객 관계 관리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은 고객에 대한 정보와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분석하는 고객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합니다. 이는 고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객의 관점에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요구는 물론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해주는 웹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창구입니다.

포스코는 고객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고객의 요구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주는 '고객 케어(care)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고객의 소리(VOC)와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되는 잠재 고객들의 요구사항들은 신속히 처리되고 있으며, 고객의 소리 관리 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습니다. 2005년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모두 1,951건의 고객의 소리가 처리되었습니다.

포스코는 2005년 원자재난 심화를 고려하여 직거래 중소 고객사를 위한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고객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실수요 중소 고객사에 더 많은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포스코의 온라인 판매 채널인 e-세일즈의 중소기업 직거래 비율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오전 경매에는 중소 실수요 고객만 참여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현금 결제에 대한 할인폭을 확대하고 외상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45억 원의 금융 지원 혜택이 중소 고객사에게 돌아갔습니다.(중소기업 상생협력 참조)

이러한 고객 활동 전반에 대해 포스코는 매년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조사기관에게 의뢰하여 실시합니다. 의뢰받은 기관은 국내외 고객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 일부 고객사에 대해서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조사 항목은 가격, 판매량, 결제 조건, 주문 처리, 주문 대응력 등 12개 항목이며, 7점 척도 방식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측정합니다. 2005년에 국내 198개 고객사와 해외 94개 고객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고객만족도 점수는 82.1로 작년과 비교하여 5% 향상되었습니다.

고객만족도



고객과의 파트너십 사례

API 강재 가공연구센터

포스코는 2005년 5월 API 강재 가공연구센터를 준공하여,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API강재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총 210억 원이 투입된 센터는 성형실험동, 평가실험동, 용접실험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진 기술, 고객과의 파트너십, 종합적인 솔루션 제공의 세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에서 얻어진 기술개발 결과는 에너지사, 강관사, 시공사와 공유하게 되며, 제품개발 초기부터 고객사가 공동 참여하는 EVI(Early Vendor Involvement) 활동을 강화하여 고객 관점의 기술 개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고객에게 차별화된 기술을 제공하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킴으로써 고객과 윈-윈하는 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타이어코드 기술협력위원회

포스코는 전략제품인 타이어코드 선재의 제품가치 향상과 미래 핵심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고강도 선재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2005년 3월 ㈜효성, 한국타이어㈜와 함께 '타이어코드 기술협력위원회'를 발족하여 매월 정기적인 워킹그룹 활동과 책임자급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3600MPa(인장강도 약 360kg/mm^2)급 고강도 타이어코드 선재에 대해 고객사 품질인증을 획득하는 등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간 기술협력활동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급사와 외주파트너사

공급망 전체의 경쟁력은 포스코의 경쟁력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포스코는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급망을 갖추고자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공급사관계관리(SRM;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을 통해 공급사를 그 중요도와 성과에 따라 프라임그룹, 가치그룹, 개선그룹, 순환그룹으로 분류해 차별화된 구매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포스코는 우수 공급사와 장기적 협력관계 지속, 글로벌 소싱 네트워크 구축, 베네핏 셰어링 제도 정착, 가격과 품질을 고려한 설비구매 활성화, 녹색구매활동 확대, 신뢰받는 구매문화 정착을 주요 구매 방침으로 정하였습니다.

2005년 2월 포스코는 납품실적, 신용도, 협조도, 기여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14개 공급사를 선정해 회사의 공식파트너로 인정하는 PCP(POSCO Certified Partner)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들 우수 공급사에 대해 장기계약 등 계약 우대와 하자보증금,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 등의 실질적 혜택을 줌으로써 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CP 공급사는 개선 아이디어나 오류 지적 등의 활동을 적극 수행하게 되어 공급망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주파트너사 직원들의 작업환경과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외주사들의 작업수행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외주작업 핵심성과지표 평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핵심성과지표 평가제도는 품질평가에서부터 경영체질개선 노력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평가지표를 사용하고 유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평가 우수업체가 포스코와 공동으로 발전하도록 하였습니다.

2006년부터는 외주사와의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워크숍과 교육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외주사 경영층 대상으로는 분기 워크숍을 개최하여 국내외 경영여건과 회사방침을 설명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간관리층 대상으로는 변화관리와 노사관리 스킬 교육, 일반직원 대상으로는 기술교육 과정을 시행합니다.

중소기업 상생 협력

최근 사회적으로 양극화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이에 포함됩니다.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포스코는 공급망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때 개별 기업의 경쟁력이 더 높아진다는 이념으로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일방적인 상생 협력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추진으로 상호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 포스코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영혁신, 기술개발, 인력교류, 그리고 구매 및 판매 협력 부문의 네 분야에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지원팀을 신설하여 여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은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전사적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각 분야별 추진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2005년 12월 청와대로부터 '대-중소기업 협력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포스코의 중소기업 상생경영 사례는 국내 공영 방송을 통해 '양극화 사회 - 희망의 로드맵'이라는 기획 특집 방송과 책임있는 이해당사자들의 대 타협 도출을 위한 토론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 상생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2006년에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협력 활동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포스코 출자사를 포함하여 지원체제를 더욱 확산시키고, 공급망 관련 포스코 고유의 중소기업 협력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협력 프로세스 사례

포스코는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하나로 대형 플랜트의 국산화를 공동 추진하고 이를 중소기업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포스코는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기술력과 영업력을 축적할 수 있어 윈-윈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스코는 대형 플랜트에 대한 기술능력은 우수하지만 사업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에 발주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확인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적극적인 위험감수(Risk Taking)를 통한 중소기업 상생노력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에서 가동 중인 총 4기의 소결공장에 탈황·탈질소 설비를 설치하여 배가스 중의 SOx, NOx, Dioxin 등 유해가스 배출량을 대폭 저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환경투자 사업을 중소기업에 발주하여 착공했습니다. 그동안 '소결 배가스 청정설비'는 일본, 오스트리아 등 주로 외국기업이 공급해 왔지만, 사업검토 초기 단계에서 유사 분야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한국코트렐을 발굴해 국산화한 것입니다.

중소기업과의 협력 활동

부 문	지원정책	내 용
경영혁신	**중소기업지원팀**	중소기업 지원 상설조직(2005. 6)
	포스코, 출자사 상생협력위원회	주요 출자사 6개 포함(2006년 3개사 추가 예정) 출자사별 상생협력 활동 아이템 발굴과 액션플랜 수립 및 점검, 베스트플랙티스 발굴과 정보공유
	중소기업 상담센터	불공정 거래행위 사전 예방(2005. 7) 포스코 홈페이지 전용 전화와 팩스
	근로조건 개선	외주파트너사 직원 임금: 2007년까지 포스코 대비 70% 수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490억 원 지원) 후생편의시설 보수 및 조직활성화 경비 지원
	결제금액 전액 현금 지불	중소 거래사 70여억 원 금융비용 절감 효과(2004년~) 9월 말 결제금액 추석 이전 조기 지급
	포스코 협력기업 지원펀드	우대 금리 적용 대출 금융지원 펀드(기업은행 1,000억 원) 문의처: 기업은행(02-729-6472, 7269) / 포스코 Steel-N.com
	교육지원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향상 등 6시그마 교육 지원 포스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방
기술개발	**중소기업 공동연구 제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발전 협력관계 (1999~, 총 89개사와 69개 과제 수행, 누계 172억 원 투입 연구비 중 119억 원 지원) 개발제품의 포스코 공급권 부여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중소기업청과 사업참여 협약서 체결(2005. 6) ㈜ 키텍엔지니어링 선정
	기술이전 특허 조회시스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이용, 포스코가 보유한 특허공개, 특허검색과 기술이전 신청 통합(2005. 6) 2005년 11월 기준 기술이전 요청 건수 15건(5건 이전계약 완료, 10건 검토 중)
인력교류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중소기업 교육 훈련 사업기관 인증 취득(2005. 3) 132개사 참여, 총 131회 4,200여 명 이수
	중소기업 경영자문 사업	중소기업 경영자문 업무 협약 체결(2005. 8) 고급인력 경영자문단 풀(Pool) 구성
구매 및 판매 협력	**베네핏 셰어링**	공급사 공동 개선활동 수행, 그 성과를 공유(2004. 7), 2006년 외주파트너사로 확대 예정 첫해 전액 중소기업 환원, 그 이후 50대 50 공유
	중소기업 협력 프로세스	대기업 구매 물량 및 수입제품의 국내 중소기업 발주 전환 (전년 대비 2,700억원 증가한 2조900억원 중소기업 발주)
	중소 고객사 지원	직거래 공급량 확대(690만 톤·712만 톤) 선 입금 결제와 현금결제 할인율을 상향 조정 외상기간 연장 1사 1도움 제도(강재구매에서부터 제품생산까지 제반 문제를 합동으로 해결) 소액 클레임 선보상 후조사 '대·중소기업 협력관 전시회' 개최

베네핏 셰어링 (성과공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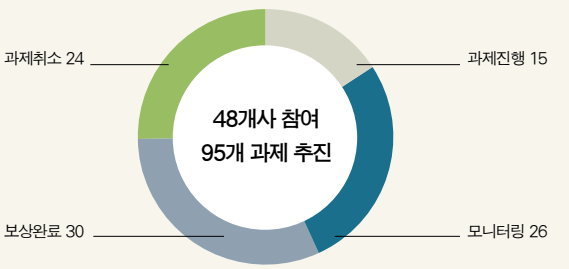
포스코는 공급사와 공동으로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베네핏 셰어링(Benefit Sharing)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베네핏 셰어링은 공급사는 자율적인 개선활동으로 경영 체질을 강화하고 포스코는 장기적으로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급망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제도입니다. 과제수행을 통해 공급사는 비용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6시그마 등 체계적 신경영 관리 기법을 습득하게 됩니다. 베네핏 셰어링은 과거 공급사와 외주파트너사에서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활동이 오히려 매출액을 감소시키는 모순점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의해 포스코와 공급사의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04년 7월에 구매부문에서 처음 시작된 베네핏 셰어링은 2005년 말 현재 48개사에서 9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성과가 확인된 17개사 30개 과제에 대하여 93억 원을 보상하였고, 과제가 완료되어 모니터링 중에 있는 26개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보상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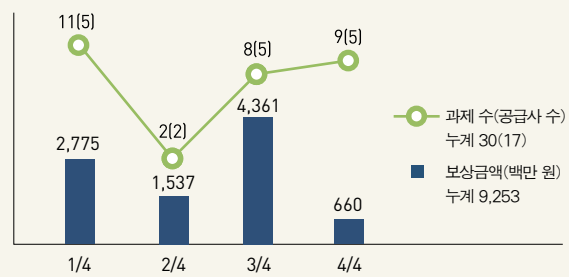
포스코는 2005년 11월부터 연간 계약금액이 5억 원이 넘는 151개 외주파트너사를 대상으로 베네핏 셰어링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구매부문에서 55개사 60개 과제를 추진하고, 외주부문에서 37개사 40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포스코는 베네핏 셰어링을 포함한 외주작업 합리화 절감액에 대한 보상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주파트너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한 합리화 성과에 대해서는 100% 외주파트너사에 환원하며, 포스코 주도로 진행된 합리화 성과도 작업비 감소액 6개월분은 외주파트너사에 지원키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적극적인 과제발굴과 지속적인 우수사례 소개를 통해 베네핏 셰어링을 더욱 내실 있는 제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과제수



성과보상 누계실적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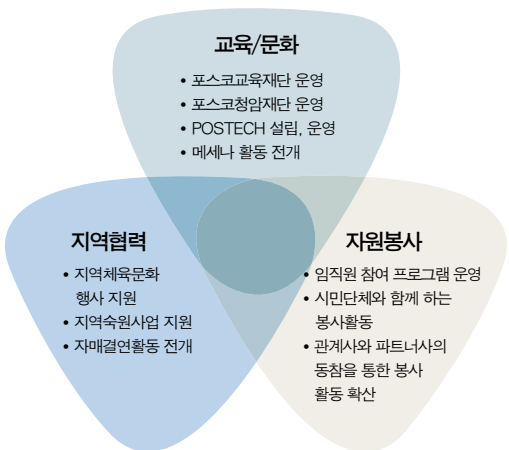


베네핏 셰어링 추진 프로세스

사회공헌

포스코는 창립 이래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업으로서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 지역협력,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포스코의 사회공헌활동 분야



교육, 문화 지원

포스코교육재단

포스코교육재단은 지역인재 양성과 직원 자녀 교육을 위해 1995년 설립되어 포항과 광양에 14개의 초, 중, 고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 산하의 각 학교들은 전국적으로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춘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으로 발전했으며 특기 적성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으로 선진적인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철공고는 2005년 졸업생 278명 전원이 평균 3종목 이상의 자격을 취득했고, 100% 취업하거나 진학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광양제철고등학교와 포항제철서초등학교는 '2005년도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선정되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과 함께 우수학교 인증을 받았습니다.

포스텍(POSTECH; 포항공과대학교의 새 이름)

포스텍은 국내 최초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2005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전국 123개 대학 중 4년 연속 종합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05년 포스코와 포스텍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우수 철강 인력 양성과 철강전문 연구 기반 구축을 골자로 하는 '철강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세계 유일의 철강 전문 교육·연구기관인 철강대학원이 7월 설립인가를 받고 석·박사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철강대학원은 학비가 전액 면제되며, 장학금과 국외연수기회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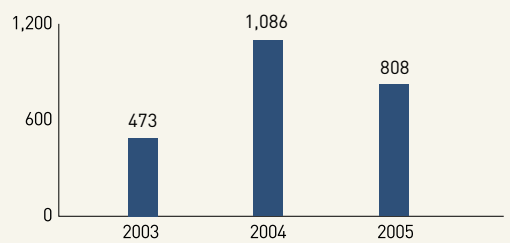
포스코청암재단

포스코청암재단은 포스코장학회가 확대 개편되어 2005년 8월 설립되었으며, 차세대 인재 육성, 아시아 네트워킹, 사회공익적 역할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장학, 학술, 연구, 문화예술 분야 등으로 사업범위를 넓혔습니다.

출범 첫해인 2005년에 중국, 인도, 베트남의 비전있는 우수인재 4명을 선발하여 서강대, 고려대 국제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이수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의 8개 우수대학과 장학사업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190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자녀와 복지시설 출신 전문대생 522명에 대한 장학금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사회공헌 활동비 집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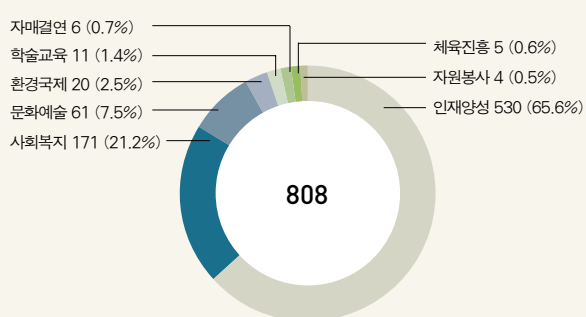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2004 지속가능성 보고서 데이터와 차이가 있음. 데이터 산출기준에서 프로축구단 지원금액 제외.

2005년 분야별 사회공헌 활동비 집행 현황

단위: 억 원



메세나 활동

포스코는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메세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센터 음악회, 캠퍼스 음악회, 포항 국제불빛축제, 광양만 대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문화 수준 향상과 지역주민의 화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문화관광부로부터 '2005년 메세나 대상(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포스코가 건립, 운영하고 있는 전문 공연장인 포항의 효자아트홀과 광양의 백운아트홀에서는 음악회, 연극, 무용, 국악, 오페라, 영화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 지역 주민에게 문화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5년 효자아트홀은 21회, 백운아트홀은 23회 공연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포스코센터 아트리움은 매월 한 차례 서울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무료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포스코 음악회는 클래식과 함께 한국 전통음악, 뮤지컬, 대중가수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쳐 도심 속 문화행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총 12회의 공연에 1만 2,7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메세나 활동'으로 호평받고 있는 포스코 캠퍼스 심포니 페스티벌은 2005년 문화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으로 확대하여 총 8회에 걸쳐 개최되었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문화예술을 통해 기업과 대학, 일반 지역주민의 만남을 활성화시키며, 대학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사랑받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는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에게 공연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으며, 교양강좌를 비롯해 올해 239회의 시민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포항 본사의 포스코미술관과 서울의 포스코갤러리에서는 저명한 작가를 초대하여 무료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 보존을 위한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에 참여하여, 2005년 9월 문화재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철제문화재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비무장지대에 있는 장단역 증기기관차 복원 및 보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차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멈춰 선 이래 방치되어 분단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INTERVIEW

● 최광웅 포스코 청암재단 상임 부이사장

포스코청암재단의 설립 배경

흔히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기업도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업이 사회의 여타 구성원과 더불어 성장해야 하며, 경제활동의 중심으로서 사회 공동체를 이끌고 보살피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포스코도 글로벌 기업상을 확립하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이번에 포스코장학회를 포스코청암재단으로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재단 이름의 의미

포스코청암재단의 전신인 포스코장학회는 지난 1971년 1월 박태준 명예회장의 제안으로 설립되어 34년간 직원 자녀와 지역사회 장학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포스코청암재단은 단기간에 포스코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며 창업 초기부터 사회공헌의 뿌리와 줄기를 만든 박 명예회장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그의 호를 따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설립작업 중 어려웠던 점

포스코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맞는 사회공헌 방향을 정하는 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학계, 기업 최고경영자, 사회공헌사업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 자주 만나 의견을 들으며 노하우를 얻었고 업종이 다른 국내외 여러 기업 재단도 벤치마킹하면서 부족한 점을 해결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과 폭넓은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이사진으로 초빙하였습니다.

재단의 운영 방향

우선 포스코의 기업문화와 이미지에 부합하는 전략적 사회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항상 고객존중의 마인드를 가지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생각입니다.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사업영역과 규모가 확장돼 아시아 지역에서 기업재단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지역협력

포스코는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위해 자매결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이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합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지역협력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위해 회사의 각 부서와 지역 마을, 학교, 단체 등이 교류합니다. 2005년 현재 228개 자매결연이 있으며, 회사 직원은 농번기 일손 돕기, 마을시설 보수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결연사업

2004년부터 포항과 광양의 생활이 어려운 240세대에게 매월 3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금을 관리합니다.

어린이 철강캠프

1993년부터 매년 여름방학 기간 포항과 광양 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철의 소중함을 알리고, 단체 생활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환경보호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05년 실시된 제13회 캠프에는 787명의 초등학교 6학년생이 참여하였습니다.

프로축구단

포항 스틸러스와 전남 드래곤즈 두 개의 프로축구단을 후원합니다. 포항과 광양에 국내 최초의 축구전용구장을 건립하고, 2002년 FIFA 월드컵을 공식 후원하는 등 포스코는 스포츠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행사

포항불빛축제와 광양만 대축제를 지원합니다. 2005년 두 번째로 열린 포항불빛축제에는 65만 명이 참관했으며, 150억 원 상당의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역숙원사업

산학연 기반을 갖춘 첨단 벤처산업단지인 '포항 테크노파크' 건설을 위해 현재까지 112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부지 5만 7천 평과 사업기금 100억 원을 출연하였고, 지방채 증권 100억 원을 인수하는 등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포항의 환호 해맞이 공원을 조성하고 광양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였으며, 2005년에는 전남 테크노파크에 2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5 포스코 봉사단

자원봉사활동

포스코는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여 건강한 기업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전 직원의 75% 이상이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봉사단사무국을 중심으로 포항과 광양, 서울의 지역본부는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등과 제휴하여 정기적으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임직원 참여 프로그램

2004년 10월부터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기준시간을 달성한 경우 개인에게는 인증서와 배지를 지급하고 봉사그룹에는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 말까지 441명의 임직원과 가족들이 100시간 인증을 획득하였고 3명은 1,000시간 인증을 획득 하였습니다.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회사는 필요한 봉사용 소모품과 차량, 중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 인트라넷의 사회공헌시스템에서는 자원봉사 그룹 등록과 조회, 봉사실적 관리, 봉사 수요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5년 9월에는 애니메이션 형태의 자원봉사 e-러닝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5,061명의 임직원이 수강하였습니다.

매월 셋째 토요일을 봉사의 날로 지정하여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나눔의 토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 광양, 서울 지역 70여 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월별로 주제를 정해 진행하는 등 이벤트 성격을 가미하여 임직원 참여도와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포항과 광양의 복지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결식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 지역주민 등을 위해 무료급식소인 '포스코 나눔의 집' 3개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가족, 지역주민 등 586명이 무료급식 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5년 한해 동안 연인원 186,631명, 하루 평균 540명이 급식소를 이용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소년소녀가장, 장애세대, 결손가정의 자녀와 회사 임직원이 1:1로 결연을 맺어 조언, 상담, 보호자의 역할 등 정서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멘토링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94명의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에서는 멘토링 봉사활동비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물품 재활용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Posco Day'를 실시하였습니다. 113,000여 점의 물품을 수집, 판매하여 9,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를 호남지역 폭설피해 복구에 지원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물품의 수집과 판매를 위해 350여 명의 임직원이 참가하였습니다.

포스코는 사회복지 NGO인 굿네이버스와 공동으로 재난재해대비 긴급구호용 Kit 3,000 세트를 제작, 비치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태풍 나비로 피해를 입은 울릉도와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에 지원하였습니다. 이 봉사활동에는 18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하는 헌혈운동에는 2,339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사무실에서 버려지는 폐토너와 카트리지를 모아 재생하는 Beautiful Office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2005년에 2,500여 개를 재생하였고 그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돕기에 사용하였습니다.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에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사회 저변에 봉사활동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교육인적자원부 등과 함께 하는 '전국 대학생 전공학문연계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97개 대학, 258개 프로그램에 15,200여 명의 교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관계사와 파트너사의 동참을 통한 봉사활동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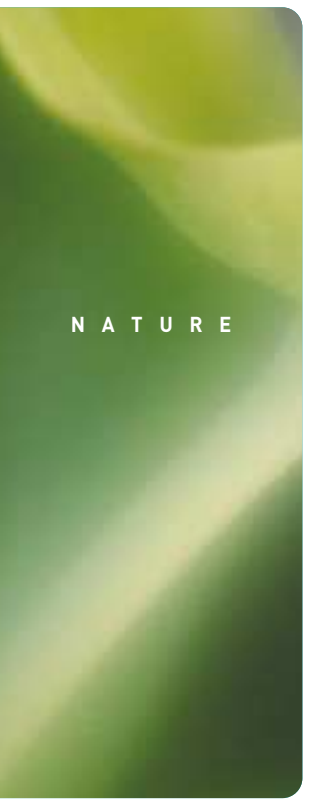
포스코는 2005년 관계사들과 더불어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70억 원을 기탁하는 등 나눔경영을 실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작업장 개소를 지원하였고 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협회 등을 통해 필요한 시설, 기자재, 차량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직원이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면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사가 지원하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초 대규모 지진과 해일로 피해를 입은 서남아시아 이재민을 돕기 위해 9,000 여 명의 임직원들이 모금한 1억 원에 포스코가 2억 원을 매칭하여 총 3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직원이 사외에서 획득한 강사료, 원고료 등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05년 한 해 동안 2,500만 여 원을 아름다운재단 등에 기부하였습니다.

한편, 포스코건설, 포스렉, 포항강판, 삼정P&A, 포스콘, 포철산기, RIST 등 7개의 관계사가 봉사단을 창단하여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Posco Day' 행사에는 164개의 외주파트너사와 공급사가 참여하여 나눔을 실천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 현황

구 분	2004	2005	증감
자원봉사활동 총시간	121,493시간	305,183시간	183,690시간 (151%)
전 직원 평균 봉사시간	6.7시간	12.7시간	6시간
자원봉사 참여인원(가족포함)	-	15,769명	
직원 봉사참여율	40.9%	75.7%	34.8%
자원봉사그룹 수	249개	315개	66개 (26.5%)
나눔의 토요일 참가인원	27,653명	45,206명	17,553명 (63.5%)
월평균 나눔의 토요일 참가인원	2,765명	3,767명	1,002명 (36.2%)



green movement

환경과의 조화로운 발전은 포스코가 설립 당시부터 끊임없이 추구해온 가치입니다. 체계적인 환경경영체제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감, 친환경 기술 개발, 환경친화제품 생산, 오염방지, 녹색구매, 자연보호 활동 등 포스코의 환경경영은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세상, 포스코가 열어가는 푸른 미래입니다.

NATURE

40 기후변화
44 환경경영체제
46 환경활동
50 환경성과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21세기에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 중 하나입니다. 이는 대체하기 어려운 석탄을 핵심 원료로 사용하고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철강업계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포스코는 기후변화 대응을 사업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2005년 2월 16일 교토 의정서가 발효된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국제 기준에 맞는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을 2005년 12월 말 구축 완료하여 교토 메커니즘에 참여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아-태 파트너십 철강 부문 태스크포스 활동에 참여하는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관 제철공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신공정 개발과 이산화탄소 흡수분리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는 에너지 절약형 소재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고장력 자동차강판의 공급을 통해 자동차의 연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각종 전동 모터의 전력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고급 전기 강판과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모터 철심 소재 등 에너지 절약형 철강제품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기후변화대책 활동

에너지 절약 및 기술 개발을 통한 CO_2 감축

- 에너지 절약을 위한 2차 자발적 협약 체결
- 산업자원부 철강업종 기후변화대책반 활동
- 온실가스 레지스트리 사업 참여
- 신공정 개발: Strip Casting 상용화기술 개발
- 철강공정 미이용 배열을 이용한 CO_2 흡수분리기술 개발 등

Carbon Management 체제 구축

- WBCSD와 Greenhouse Gas Protocol에 의거한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가동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및 사회적 기여

- 아-태 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철강 Taskforce 참여
- IISI CO_2 Breakthrough Programme 참여
- IISI Kyoto Protocol and the Steel Industry 프로젝트 참여

청정개발체제 대응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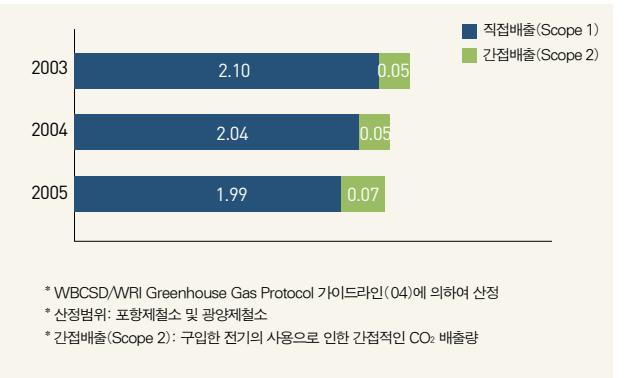
- 해외 조림, 소수력발전 사업 추진

이산화탄소 배출

일관 제철공정의 주요 온실가스는 철광석의 환원제로 쓰이는 석탄 원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_2)입니다. 따라서 철강재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늘어납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지속적으로 조강 톤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 2005년에는 1990년 대비 8.4%를 줄였습니다.

조강 톤당 CO_2 배출량

단위: T-CO2/T-S



* WBCSD/WRI Greenhouse Gas Protocol 가이드라인(04)에 의하여 산정
* 산정범위: 포항제철소 및 광양제철소
* 간접배출(Scope 2): 구입한 전기의 사용으로 인한 간접적인 CO_2 배출량

온실가스 레지스트리 사업 참여

포스코는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정책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추적 관리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 등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파이넥스 부생가스를 이용한 복합발전사업 추진 등 4개 단위 사업 프로젝트를 등록소에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 기술 정보협력사업(ESP; Energy Saving through Partnership)에 참여해 포스코에서 개발 적용한 기술과 노하우를 타 철강업체와 공유함으로써 국내 총 에너지 사용량 감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철강업종 기후변화대책반 활동

세계 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제 2차 의무공약기간(2013~2017년)에 온실가스 감축압력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

다. 또한 철강업계는 국내 에너지 소비량 가운데 10.5%(730.0백만 GJ)를 차지하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임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 감축압력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개발 적용 등 고효율 저소비형 에너지 설비와 청정에너지 사용 체제로의 점진적 전환 등 산업계 공동 대응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2005년 2월 철강협회와 산업자원부, 주요 철강업체, 연구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 철강산업대책반이 구성되었으며 포스코는 이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정개발체제에 대한 사전 대응 활동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공장 설비를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그 감축량만큼 배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사업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은 아직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포스코는 청정개발체제사업을 사전에 추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의 한 종류인 소수력발전을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검토를 마치고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수력발전'이란 3,000kw 이하의 작은 전력을 생산하는 소규모 수력발전으로, 기존 수력발전에 비해 유지비가 적게 들면서도 친환경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광양제철소에 발전 설비 2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르면 2007년 2월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482만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된 전력은 모두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예정이며, 앞으로 사업성이 입증되면 설비를 추가로 도입하여 발전 용량을 확대할 것입니다. 광양제철소는 2007년 소수력발전 사업계획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의 검증을 거쳐 UNFCCC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포스코는 해외 조림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 확보와 동시에 환경보존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05년 5월 해외 조림사업 추진반을 구성하여 해외 조림 투자환경, 경제성 분석 등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지역, 수종 선정, 시험식재 등 본격적인 조림사업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 과정평가

2005년에는 전 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기법을 적용하여, 포스코의 철강제품에 대한 이산화탄소 감축실적(Credit)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전 과정평가 기법은 먼저 에너지, 원료 등 철강 생산 투입물과 생산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최종 제품, 환경오염물질 등 배출물을 생산 공정별로 수치화해 투입물과 발생물의 상관관계를 밝힙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 등 환경 쟁점별로 투입 원료와 생산방식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종적으로 평가합니다.

포스코는 1995년부터 국제철강협회에서 추진하는 '철강제품 LCA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1999년부터 철강공정의 LCA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2001년에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과 자동 연계할 수 있는 LCA 자동 입력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전 과정평가 결과는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원료, 자재, 생산공정 선택 등에 활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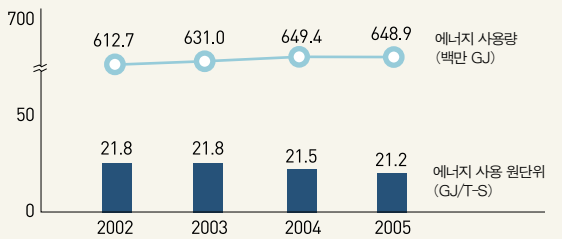
에너지 관리

포스코는 기후변화협약과 고유가 장기화로 에너지 관리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에너지 관리체제를 개편하여 에너지 절약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월드 베스트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절감 강화 계획'에 따라,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는 투자 활동과 공정별 전문 리더로 구성된 6개 유형, 18개 소그룹을 구성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유형별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절감 과제를 도출하여 실행하며,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내에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공정 최적화를 통한 에너지 원단위 개선'을 목표로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개선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에너지 담당부서는 월별 실적을 분석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 에너지 관리 워크숍을 개최하여 에너지 절감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 아이디어 제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05년에 총 528건의 아이디어가 제안 되었으며, 그 가운데 약 10% 정도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종합정보 시스템에서는 에너지 절감 추진 실적, 중장기 계획, 조강 톤당 열량 원단위 등을 조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 절감과 관련한 유형별 소그룹 진행 현황, 6시그마 과제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어 부서 간 에너지 절약 활동 관련 정보 공유가 편리해졌습니다.

2005년 포스코 전체 구입 에너지 사용량은 전년대비 14.6백만 GJ이 감소한 686.9백만 GJ입니다. 구입 에너지원별로는 석탄이 약 88%, 전력 7%, LNG와 중유 등이 5%를 차지합니다. 제철공정의 특성상 가열과 냉각이 반복되는 조업 공정에서 대량으로 소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하여 포스코는 부생가스의 회수 증대와 가열로 등에서 사용하는 연료절감에 치중하는 한편, 조업공정 단축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



* 에너지 사용량 = 구입에너지 – 판매에너지(타르 포함)
*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의 범위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이며, 본사와 포스코 센터는 포함하지 않음.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절감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사용 에너지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발전, 산소 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배출되는 폐에너지를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부생가스 활용과 자가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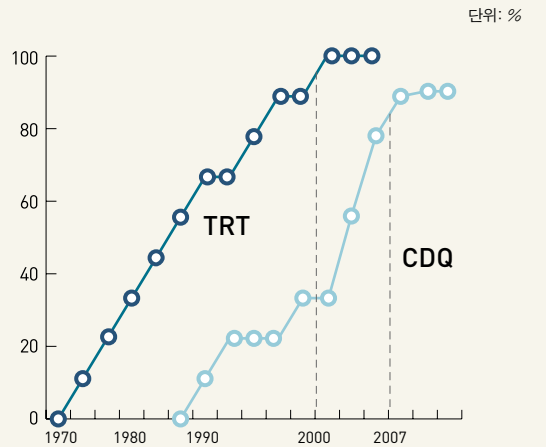
포스코는 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안정적인 제철소 조업용 전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가발전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본사,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에서 2005년에 사용한 전력량은 총 19,094GWh으로, 이중 78%에 해당하는 15,106GWh는 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한 자가발전과 CDQ(Coke Dry Quenching), TRT(Top Gas Pressure Recovery Turbines) 등 에너지 회수설비, 그리고 LNG복합발전설비를 통해 자체적으로 조달했으며, 나머지 22%에 해당하는 4,213GWh의 전력은 외부에서 충당했습니다. 포스코는 조업에 필요한 연료의 대부분을 공정에서 발생하는 COG(Coke Oven Gas), BFG(Blast Furnace Gas), LDG(Linz-Donawitz Converter Gas) 및 FOG(Finex Off Gas) 등 부생가스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고온의 적열 코크스를 물로 소화시켜 현열을 회수하지 못하고 대기에 방류하는 기존의 방식을 대체하는 건식소화설비(CDQ; Coke Dry Quenching) 2기를 광양제철소 3, 4 코크스 공장에 추가로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연간 3.5백만 GJ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00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2코크스공장의 CDQ가 가동되면 포항제철소는 2코크스공장의 4개 CDQ와 3코크스공장의 1개 CDQ를 포함해 모두 6개의 CDQ를 갖추게 됩니다. 또한 광양, 포항제철소에서 고로 개수에 따른 배에너지의 회수를 위하여 TRT 용량을 증대함으로써 시간당 5MW의 전력을 추가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로 개수와 파이넥스 공정에서 발생하는 잉여가스를 최대한 회수하기 위하여 현재 100MW급 기력발전 1기와 150MW 부생가스 복합발전설비를 건설하고 있으며 준공되는 시점에는 기력발전소 1,500MW, 복합발전소 995MW, 부생발전(CDQ, TRT) 289MW로 총 발전용량이 2,784MW가 됩니다. 이와 함께 200℃의 발전소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부생가스인 BFG를 120℃까지 예열하여 보일러에 사용하는 기술 개발로 3~5%의 연료절감이 예상되며 2006년도에 광양제철소 발전소에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코크스 건식소화설비(CDQ; Coke Dry Quenching): 코크스 오븐에서 배출된 높은 온도의 코크스를 질소 가스로 냉각한 후 용광로로 보내기 위한 설비. 냉각할 때 열을 회수해 증기를 생산하고, 이 증기로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생산,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으며, 단단하고 크기가 균일한 코크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포스코 주요 에너지 회수설비 도입률 : TRT, CDQ



* 06.1.현재 포스코 TRT 10기, CDQ 7기 가동중 (2기 신설계획 : 06.12, 07.9)

에너지 절약을 위한 2차 자발적 협약 체결

포스코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003년 에너지 사용량의 6.9%인 43.5백만 GJ 절감을 목표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2차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총 8,900억 원을 에너지 설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1차 자발적 협약 기간인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1997년 에너지사용량 대비 9.4%인 52.5백만 GJ을 절감하여,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바 있습니다. 포스코는 2005년 11월 에너지관리공단 주최로 열린 '제27회 에너지 절약 촉진대회'에서 에너지 절약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신공정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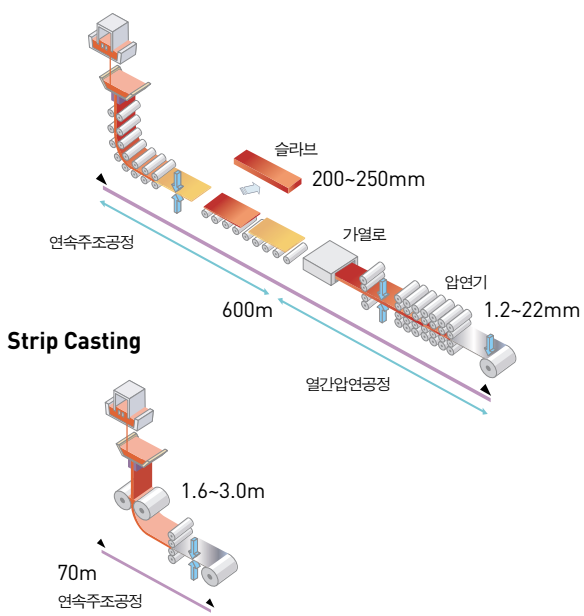
포스코는 열간압연 공정을 생략하고 쇳물에서 직접 박판을 제조하는 스트립 캐스팅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 말 상용화를 목표로 기존의 연주~압연공정의 정정과 가열 공정을 생략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공정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트립(poStrip)

스트립 캐스팅(Strip Casting) 기술은 기존 일관제철 공정 중 가열로와 압연 공정의 대부분을 생략하고 직접 두께 2~4mm의 박판을 주조하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스트립 캐스팅은 기존의 연주-가열로-조압연-사상압연을 1개의 공정으로 단순화하여, 쇳물로부터 바로 열연코일을 생산하게 되므로 설비투자비와 제조원가가 대폭 절감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냉각과 가열 과정의 생략에 따라 에너지 소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배출 가스량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포스코는 1989년부터 관련 연구를 시작하여 2004년 6월 포항제철소 내에 연산 60만 톤 규모의 '포스트립(poStrip)' 데모 플랜트를 착공하였습니다. 2006년 준공 예정이며, 이미 운영 중인 파일럿 플랜트를 통해서 고부가가치강의 주조 조업조건을 조기에 정립함으로써 다양한 강종이 동시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연속주조공정



신재생 에너지

최근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는 대안 에너지입니다. 한국 정부의 2002년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 소수력 등 8개를 재생 에너지로, 수소연료전지, 석탄액화 등 3개를 신 에너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청정개발체제사업인 소수력발전 사업과 함께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는 기존의 화력과 원자력 등 발전설비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는 중압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전환되는 에너지 공급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또한 스테인리스 소재의 수요처로서, 1MW급 연료전지 제작에는 분리판의 소재로 스테인리스 판재 20톤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포스코의 철강사업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04년 9월, 기술의 공동개발과 시장개척 협력을 위해 세계 1위의 기술 보유사이자 상용화 단계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미국의 퓨얼 셀 에너지(Fuel Cell Energy)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업에 대비해 한국과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검토 결과에 따라 국내에 생산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핵심기술인 분리판 분야의 최고 기술을 보유한 RIST(포항산업과학연구원) 및 한국전력 전력연구원과 협력해 2009년까지 연료전지 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50KW급 용융탄산염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연구를 통해 선진기술과의 융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4월 발전용 연료전지 1호기를 포항공대에 성공적으로 설치 가동해 현재 RIST 실험동, 가속기 연구소 등에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서울 탄천하수처리장, 광주 조선대병원에 2, 3호기를 각각 설치해 가동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50KW급 용융탄산염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저온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원천기술 개발 등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개발 관련 국책 과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연료전지: 수소와 산소가 갖고 있는 화학에너지를 전기화학 반응에 의해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기. 가스엔진, 가스터빈 등 타 발전기술과 달리 연소에 의한 에너지 변환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효율이 높고 공해물질 배출이 발생하지 않는 고효율, 친환경 발전장치.

환경경영체제

포스코는 자연 환경, 인류 사회와 상생하는 환경경영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환경비전과 방침, 환경조직, 환경회계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환경경영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환경목표와 실행계획을 세워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내외부의 환경심사를 받아 그 실효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환경방침

환경은 회사 경영전략의 주요 요소입니다. 포스코는 자연 환경과 인류 사회의 상생 원칙에 기반하여 환경경영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비전으로 추구합니다. 오염물질 배출의 억제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의 주도적 해결이 기업의 책무라는 자세로, 원료에서부터 공정 과정과 제품 완성까지 환경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의 모든 활동이 환경 보호, 효율적 자원 사용, 지역사회 복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환경방침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이슈와 여건 변화,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반영하여 연 단위의 환경목표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항과 광양 제철소는 부서별로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5년 환경목표 및 실천계획

목표 1 기후변화협약 대응기반 사전 구축	목표 2 환경부하의 지속적 저감	목표 3 환경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도 향상
기본방침 교토의정서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압력에 대비하여 사전 대응기반 구축	**기본방침** 배출물질의 사후관리 강화와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비한 사전예방적 환경활동 전개	**기본방침** 인근지역 체감환경 개선 및 이해관계자와의 신뢰증대
실천계획 • 국제기준에 의한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 기후변화정책 협력 및 철강업 공동계와의 협력 강화 • 에너지절감활동 지속적 추진	**실천계획** • 신규오염물질 규제 사전 대응 • 오염물질 총량저감 및 환경효율 증대 • 조강증산에 대비한 부산물의 경제적 안정 처리체제 구축	**실천계획** • 인근지역 체감환경 개선 • 환경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환경조직

환경심사

포스코는 ISO14001 규격 요건에 의한 환경경영시스템의 적합성 여부를 내부 심사와 외부 심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부 심사는 내부 심사원 적격성에 관한 사내 규정에 따라 자격 있는 직원을 내부 심사원으로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 심사는 환경경영시스템 외부 전문인증기관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05년 LRQA KOREA를 통하여 ISO14001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번 심사는 2004년판 ISO14001 규격에 의한 전환 심사를 포함하여 진행되었습니다.

ISO14001 인증서
2005년 재인증

2005년 ISO14001 심사 실적

구분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수검부서		제선부 등 18개	제선부 등 13개
외부심사	심사기관	LRQA KOREA (Lloyds's Register Quality Assurance Korea)	
	일시	5. 23 ~ 27	10. 24 ~ 27
	수검결과	• 외주파트너사에 대한 환경정보 전달 및 중요 환경측면의 적절한 관리, 이행 (화성부) •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인식교육 실시 권고	
내부심사	일시	5. 9 ~ 13	8. 10 ~ 12
	수검결과	• 매월 제강부 부서 환경운영회의 실시, 중점 관리사항 공유(우수) • 비상대응계획과 환경영향분석 연계성 미흡	

환경회계시스템

포스코는 활동원가관리(ABM; Activity Based Management)에 기반한 환경활동 비용 집계 시스템을 개발하여 2005년 1월 가동하였습니다. 이는 환경활동을 목적으로 집행된 원가를 월 결산과 동시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동으로 집계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 7월 시범 적용 후 2003년 말 시스템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ABM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활동은 환경과 관련하여 총 757개의 표준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또한 사전예방과 사후처리활동 등 53개의 속성별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함으로써, 환경원가를 활동별, 속성별로 집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에는 6시그마 기법에 의하여 부산물 재활용의 환경효익 분석모델을 개발하여 환경성과, 환경원가와 함께 환경효익과 환경효율도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환경회계시스템 구성

환경활동

제철소 면적의 25%를 녹지가 차지하는 등 녹색 제철소 조성을 비롯하여 환경에너지 관련 기술 및 환경친화제품 개발, 친환경 공급망, 교육 프로그램, 환경영향 평가와 결과 공개 등 포스코의 환경 보전 노력은 다양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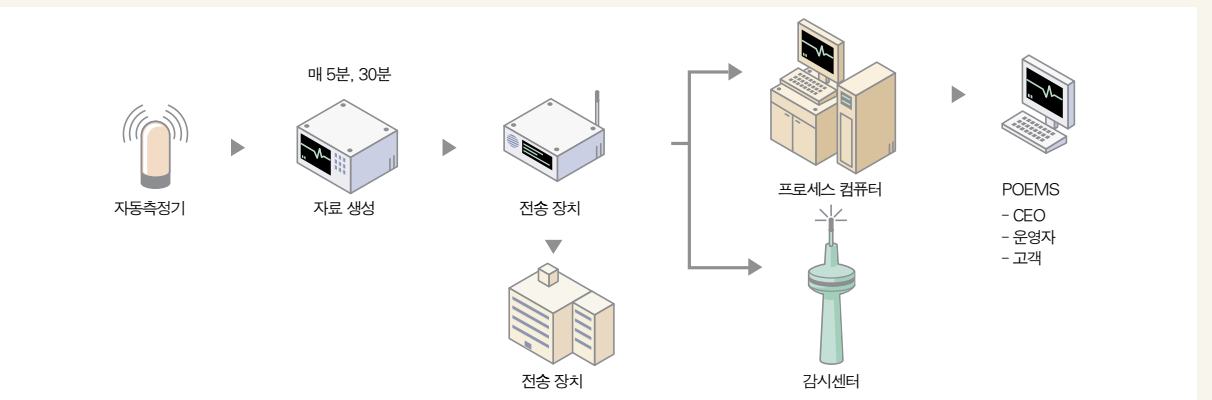
환경영향평가

포스코는 제철소 주변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주변의 대기와 수질, 생태계 환경조사와 더불어 연안해역과 토양의 생태변화나 미량의 오염물질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 제철소가 사용하는 폐기물 매립장 주변의 바다 수질과 생태계 및 지형 변화 등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대기환경 측정장비를 탑재한 환경 이동측정 차량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양 제철소 주변의 공기오염도를 수시로 검사합니다. 지역과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지역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환경자료 공개

원격 환경자동측정 시스템 운영도



자동측정설비 및 항목

구 분	굴뚝 배기가스	대기환경 측정	공간오염 측정	배출수질
포항제철소	41개소	2개소	7 paths	3
광양제철소	56개소	3개소	9 paths	-
측정항목	먼지, SO_2, NO_2 등 9개항목	PM10, SO_2, NO_2, O_3 등 9개 항목	SO_2, NO_2, O_3 등 7개 항목	COD, SS 등 4개 항목

✚ SO_2: 이산화황, NO_2: 이산화질소, PM_{10}: 미세먼지, O_3: 오존,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SS: 부유물질량

환경에너지 기술개발

포스코는 환경에너지 분야의 국내외 동향과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결과를 종합하여 기술개발 전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롤링된 기술개발계획은 포스트 교토(Post-Kyoto) 체제에 대비한 온실가스 저감 및 관리 기술, 제철소 오염물질 배출 저감기술, 부산물 활용 증대를 위한 신규 용도 및 고부가가치화 기술, 활용되지 않는

폐열의 새로운 이용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을 위해 포스코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공대, 포스코경영연구소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제품

포스코는 생산 과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과 에너지 사용 최소화, 사용 단계에서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재활용을 염두에 둔 폐기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고기능 신제품과 공정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4종의 환경친화형 제품을 개발한 이후, 2005년 현재 환경 보전, 에너지 절감, 장수명화 부문에서 누계 119종의 환경친화형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환경친화형 제품 개발이 전체 제품 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81%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판매량은 26만 3천 톤이었습니다.

환경에너지부문 R&D 투자

구 분	2003	2004	2005
환경에너지	111억 원	124억 원	145억 원
전체 R&D 대비 비율	8.8%	7.9%	8.6%

* 기술부문 R&D만 집계, 해당년도 착수기준

환경친화제품 유형

구 분	주요 기능	2000년~2005년 개발 건수
환경보전	환경유해물질 미함유, 인체 유해 요소 차단, 소음/진동 감소, 배기가스 정화성능 향상, 내충돌성/안전성 향상	12
에너지절감	자동차 경량화, 공정/열처리 생략제품, 에너지효율 향상, 가공성 향상	87
재활용향상	내부식성 향상 및 장수명화, 내구성 향상	20

환경친화제품 개발 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환경친화형 제품 개발 비율(%)	56	59	65	74	74	81
환경친화형 제품 강종 수	14	13	20	25	25	22
수주량(톤)	4,684	29,106	68,871	130,830	418,007	263,124

* 환경친화형 제품 개발 비율(%): 총 개발제품 수에서 환경친화제품이 차지하는 비율

포스코는 2004년 무크롬 용융아연도금강판(CGI; Continuous Galvanized Iron), 전기도금강판(EGI; Electrolytic Galvanized Iron) 제품을 개발하여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2005년에도 무크롬 용융아연도금 열연강판(HGI; Hot-rolled Galvanized Iron) 제품과 석도강판(TP; Tin Plate)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인체에 유해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는 복합기능제품인 항균강판(내지문성+항균성)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대장균, 포도상구균의 발생을 99% 이상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가전용품 등에 널리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스코는 제조공정이나 고객사의 공정에서 열처리를 생략하는 친환경 제품 제조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에너지 및 비용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용접 이전에 별도의 예열 없이 용접이 가능한 후판 예열생략형 제품(PFS-700)과 고객사가 열처리공정인 SA(Sperodized Annealing)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선재 제품(POSA1021B), 스테인리스 제품의 열처리 소모가 많은 BAF공정을 연속공정으로 전환한 제품(STS 410L)을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선재 POSA1021B 제품은 열처리공정을 생략할 수 있어 고객사의 원가 절감에 기여합니다.

포스코와 평산에스아이가 공동 개발한 파형강판은 2005년 3월 대한토목학회로부터 토목 분야의 새로운 우수 자재로 인정받아 토목 자재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파형강판은 두께 3.2~7.0mm 열연강판에 큰 골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강도를 높이고, 표면을 용융아연도금으로 처리해 내식성을 높인 강판으로, 천연 골재와 모래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구조물로 부각되고 있으며,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터널, 교량에 사용됩니다.

리사이클링이 우수한 스틸캔

포스코는 캔 소재로 장점이 많고 제조비용도 저렴한 석도강판의 수요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석도강판 공장, 품질부서, 기술연구소, 판매부서 직원들이 상호 협력해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스틸캔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수요 개발활동의 결과로 2006년에는 실제 상온에서 6개월 이상 보존 가능한 김치캔이 상용화될 전망이며, 다양한 모양의 스틸캔과 페트병처럼 뚜껑이 달린 보틀캔 등 새로운 타입의 스틸캔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스틸캔에 사용된 철의 주성분은 자동차나 가전제품, 건자재 등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탄소강(철과 탄소로 구성되는 강)입니다. 스틸캔은 재활용할 경우 불순물이 적어 다른 제품보다 재활용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고 모든 용도의 철제품으로 몇 번이고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입니다. 또한 스틸캔 리사이클링은 에너지 절약에도 공헌하고 있습니다. 스틸 스크랩을 사용하면 철광석으로 강재를 제조하는 것에 비해 에너지 비용을 75%나 절감할 수 있습니다.

모듈러 건설공법

포스코가 개발한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제작된 철강재를 현장에서 곧바로 조립해 건축물을 완성하는 것으로, 시공 과정에서 건설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주문 생산하는 미래형 건축시장을 개척할 가능성이 있으며, 구조재로 쓰이는 고내후성 열연강판의 수요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2002년부터 모듈러 공법 기술개발에 힘써 온 포스코는 현재 이 공법을 실용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행했으며 2004년 말 건설교통부로부터 건설 신기술로 지정받아 정부 공사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시공업체와 제작업체를 늘려 민간 건설시장까지 이 공법을 확대해 갈 방침입니다. 이미 포스코는 모듈러 공법을 활용해 지난 2003년 서울 신기초등학교의 6개 교실을 건설했으며, 2005년에도 서울 대조초등학교의 8개 교실 증축과 군부대 막사 등을 대상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친환경공급망 관리

포스코는 신규 공급사 등록과 기존 공급사 평가에 환경적인 측면을 강화해 포스코 뿐만이 아닌 공급망 전체의 친환경 경영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녹색구매

녹색구매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포스코는 2005년 9월 환경부와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상품 우선 구매를 프로세스로 정립하고, 자율협약 이행 실적을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먼저, 녹색구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물품등록 체계를 정비하고 녹색구매 프로세스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신규로 물품을 구매할 때는, 물품등록 초기단계에서 친환경성에 관한 내용을 등록함으로써 사용자와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색상품에는 환경마크 제품, 산업자원부 인증의 GR(Good Recycled) 마크 제품, 에너지 절감마크 제품 등 국가공인 친환경 제품 3개 유형과 유해물질 저감 물품, 폐기물 저감 물품, 기타 난연성 또는 외국의 환경라벨 획득 제품 등 포스코 지정 친환경제품 3개 유형을 포함 총 6개 유형이 있습니다. 2005년 포스코 친환경제품 구매실적은 817억 원이며, 2006년에는 956억 원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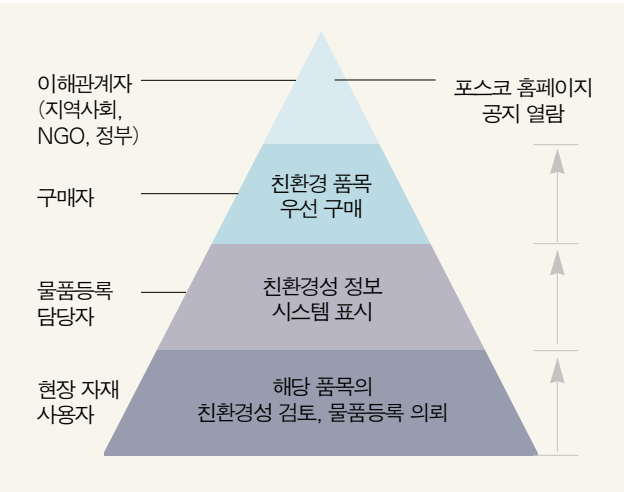
녹색구매 실무지침은 2002년 제정된 녹색구매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실무에 적용이 용이하도록 내용을 간소화한 것입니다. 녹색상품 공급사를 우대하기 위해 가격이 높아도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가격선호제(Price Preference Rate)'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매담당자들이 녹색구매 프로세스를 편리하게 수행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를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포스코는 2005년 12월 산업계 녹색구매 우수사례로 정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녹색구매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 1월에 친환경 구매팀을 정식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색구매 프로세스

대-중소 그린 파트너십 구축사업

포스코는 공급사와 함께하는 환경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대-중소 그린 파트너십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 1차 연도인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1개의 국내 중소규모 공급사와 함께 사업장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차 연도인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13개사를 대상으로 청정생산 기술개발과 체계적인 환경경영전략 수립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3차 연



도인 2005년 9월부터는 PCP 인증업체 11개사를 포함한 20개사를 대상으로 청정기술 이전, ISO14001 인증과 환경보고서 발간, 환경마크 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

포스코는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매 분기마다 기술발표회를 통해 최근의 환경이슈, 환경경영활동, 기술동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환경관리 과목을 편성해 필요한 환경관련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내 온라인 교육망을 통해 개설된 이 과정은 2005년 1,115명이 수료하는 등 2001년 개설 이후 총 8,000 여 명의 직원이 수료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제철소 핵심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계층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포항공단 생태산업단지 구축

포스코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이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포항철강공단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먹이사슬로 공생하는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산업단지에 적용하는 것으로, 철강단지 내의 산업체 간 배출물 교환망을 구축해 재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키는 친환경 산업단지 프로젝트입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의 잉여 증기와 우수처리수의 포항공단 활용방안 도출 등을 통해 포항공단 안에서 포스코와 타 기업 간의 배출물을 재자원화함으로써 먹이사슬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서로 협력하여 배출물 교환이용시스템을 유지하고 포항공단의 오염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법규 준수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고 보다 철저한 청정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과 폐기물에 대한 자체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법적 기준보다 더욱 엄격하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05년 환경관련 행정기관에서 실시한 총 64회의 점검에서 배출시설 설치신고 지연 등의 7건을 지적 받았으나, 즉시 보완 조치해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환경단체와 함께 환경보전활동 전개

광양제철소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시민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과 '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협의회 주관으로 2005년 7월과 9월에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광양제철소 환경관리현황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광양지역 환경현황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광양시의 상수원인 수어천에서 자연보호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지역 어업인의 생존터전인 광양만을 보호하기 위해 수중 정화활동 및 치어방류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민간단체와 함께 하는 수어천 정화 활동

환경성과

포스코는 대기, 수질,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친환경 설비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업 중 발생한 부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절감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환경경영 성과를 환경개선지수로 평가, 내·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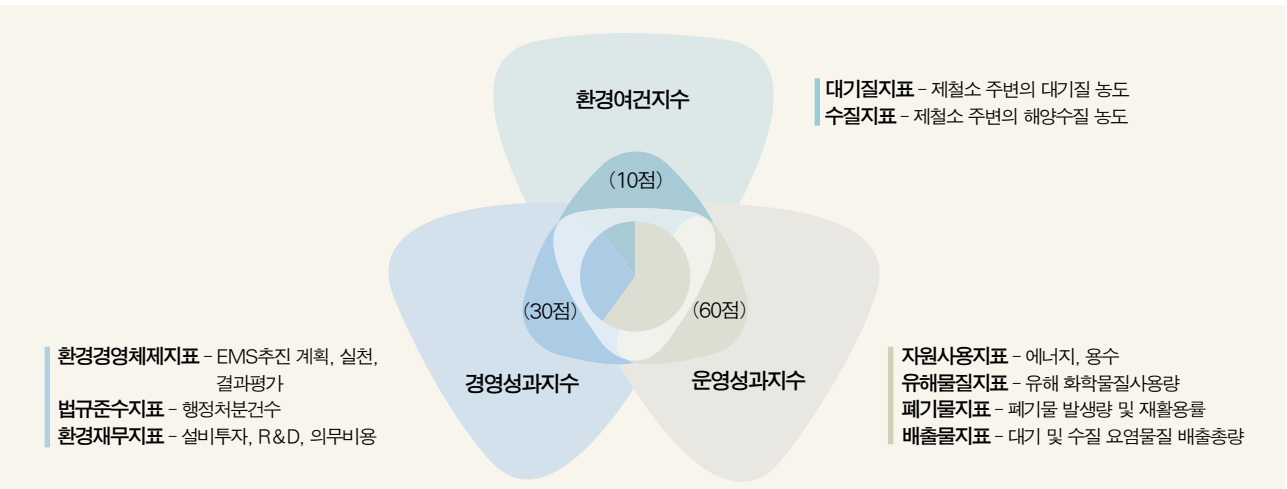
환경개선지수

포스코는 전사 차원의 종합적인 환경경영 성과를 평가하고 경영층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환경개선지수(POSEPI; POSCO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를 마련했습니다. 환경개선지수는 과거 3개 연도(1997~1999)의 평균 실적을 기준(100점)으로 하고 해당 연도의 개선 정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해 점수화하는 지수입니다. 이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균형성과지표(BSC; Balanced Score Card)로 등록되어 양 제철소의 경영활동 성과를 측정하고 부문별 관리자의 성과 평가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지수

항 목	기준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운영성과	60	81	85	84	83	83
경영성과	30	30	35	38	39	41
환경여건	10	10	8	8	9	11
계	100	121	128	130	131	135

환경개선지수 구성



대기

제철공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에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러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농도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등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다이옥신을 포함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규제하는 스톡홀름 협약이 전 세계 50개 이상 국가의 비준을 받아 2004년 5월 발효되면서 다이옥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이 협약에 서명한 상태이며, 2006년 관련 업종에 대한 배출기준이 정해지면 법률 정비작업과 협약 비준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단위: Kg/T-S

항 목	제철소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먼지	포항	0.23	0.23	0.21	0.23	0.22	0.24
	광양	0.32	0.30	0.23	0.23	0.26	0.25
황산화물	포항	1.40	1.29	1.17	1.16	1.07	0.52
	광양	0.89	0.74	0.71	0.71	0.79	0.61
질소산화물	포항	1.62	1.66	1.60	1.42	1.29	1.21
	광양	1.52	1.46	1.40	1.42	1.51	1.51

포스코는 2005년 7월 환경부가 주관하고 산업체와 환경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특정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이옥신 배출 저감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소결 집진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염소 성분이 높은 재활용수 사용을 중단하는 등 조업 개선 활동을 통해 다이옥신의 배출을 줄임과 동시에 최신 기술을 이용한 설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오염물질을 활성탄에 흡착해 분해 처리하는 최적가용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 설비인 활성탄 흡착설비 도입을 2002년에 결정하였습니다. 활성탄 흡착설비는 전 세계 소결기 가운데 10여기 정도만이 설치된 것으로 매우 선진화된 설비입니다. 744억원을 투자해 이를 포항제철소 3, 4 소결기에 설치하고 2004년 7월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시범 운전 결과 다이옥신 0.1ng-TEQ/Nm^3 이하의 배출과 황산화물 90%, 질소산화물 40% 저감 성능이 검증되었습니다. 한편 광양 소결로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 선택적 촉매 환원(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방식의 배가스 처리시설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4년에는 중탄산나트륨($NaHCO_3$)을 투입하여 다이옥신과 황산화물을 대폭 저감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2004년 12월부터 광양제철소 전 소결공장에 적용했으며, 2005년 1월부터는 포항제철소 1, 2 소결기에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2000년부터 다이옥신 발생 저감을 위한 요소투입기술과 활성탄 분사기술을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꾸준한 연구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오존층 파괴물질

포스코는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존층 파괴 물질의 사용을 중단하고, 대체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품 세정제인 TCE와 공조 시스템의 냉매로 사용되었던 CFCs는 대체물질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소화 설비에 사용되는 할론(halon)은 대체물질이 개발되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TCE: Trichloroethylene(트리클로로에틸렌)
✚CFCs: Chlorofluorocarbon(염화불화탄소)

파이넥스, '2004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 (산업자원부, 2005.1.20)

기존 제철공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추가 설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용광로에 쓰이는 우수한 품질의 철광석과 석탄이 점차 고갈되어 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980년대 이후 새로운 제철공정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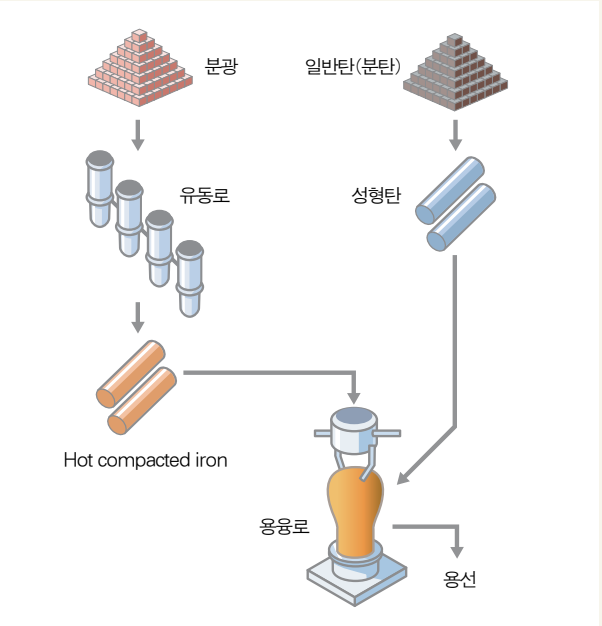
포스코는 1992년부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및 오스트리아의 철강설비업체인 푀스트 알피네와 공동으로 신제선기술인 파이넥스

기술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10여 년의 연구개발 끝에 2003년 6월 연산 60만 톤 규모의 데모 플랜트를 성공적으로 가동하여 연산 85~90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연산 150만 톤 규모의 상용화 설비를 착공하여 2006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용광로 공정은 분광을 괴성화시키는 소결공정과 점결탄으로 코크스를 제조하는 코크스 공정을 거치며, 이들 공정에서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파이넥스는 용융환원 제선기술로서, 소결과 코크스 공정을 생략하여 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세계 철광석 매장량의 70~80%를 차지하는 값싼 분광과 일반탄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05년에는 제철용으로 사용되는 고급 연원료의 국제 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값싼 분광과 저급 일반탄을 사용할 수 있는 파이넥스 공법이 세계 철강업계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켰습니다.

포스코는 2006년 1월 파이넥스로 미국 에디슨 재단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산하 미래의 동반자 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제1회 에디슨 혁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파이넥스 공정



✚ 용광로 공정 대비 황산화물은 6%, 질소산화물은 4%, 이산화탄소는 85%를 배출

수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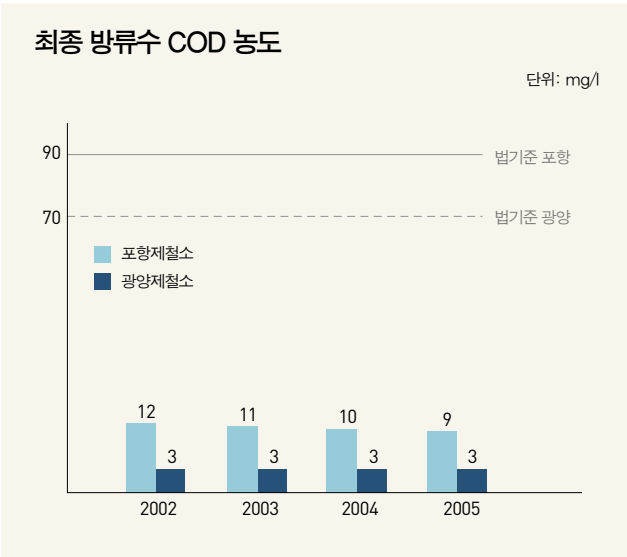
유럽 IPPC Bureau에 따르면 철광석을 이용하여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조강 1톤을 생산하기 위해 5톤에서 100톤의 용수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비해 2005년 포스코의 용수 사용량은 포항제철소 4.01톤/T-S, 광양제철소 3.57톤/T-S으로 현저히 낮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폐수 재활용과 과학적인 공정수 관리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2005년에 포스코는 영천댐과 수어댐에서 각각 하루 평균 13만 톤과 17만 톤의 용수를 공급받았는데, 이는 제철소 조업에 필요한 전체 소요량의 약 2%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98%의 용수는 공장에서 사용한 물을 다시 이용하여 충당하였으며,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방류수를 재활용하고 빗물을 사용해 충당하는 등 원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2005년 3월 포스코는 제13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 관리와 지역 환경에 이바지한 공로로 경북도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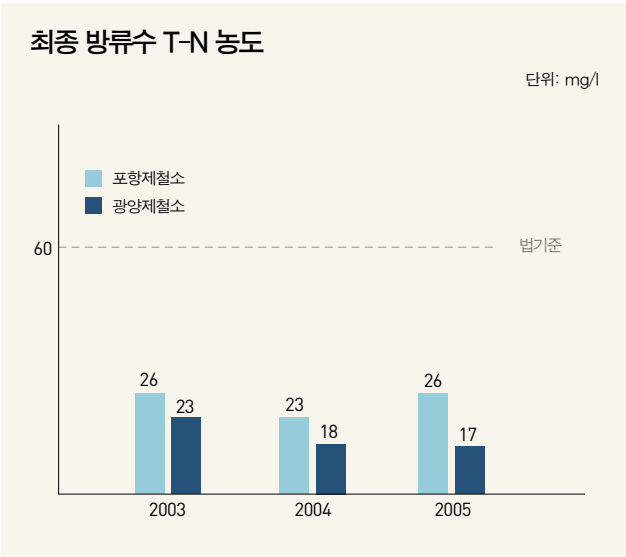
용수사용량 및 방류량

단위: ㎥/T-S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포항	용수사용량	3.36	3.52	3.74	3.85	3.96	4.01
	방류량	1.75	1.53	1.53	1.67	1.76	2.00
광양	용수사용량	3.49	3.43	3.36	3.49	3.64	3.57
	방류량	1.16	1.05	1.14	1.31	1.31	1.30

* 용수사용량: 외부 구입량 + 지하수 및 지표수 취수량





영일만과 광양만 보전

제철공정 각 단계에서 사용한 물은 각 공장별로 설치된 폐수처리 설비에서 1차 처리를 거친 후 98% 이상을 해당 공정에서 재활용하고 나머지 물은 배수종말처리 설비에서 2차 처리를 실시합니다. 2차 처리를 거친 물의 일부는 제철소 내 도로 청소, 원료 야드의 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살포수로 재활용 되며, 나머지는 인근 해역으로 최종 방류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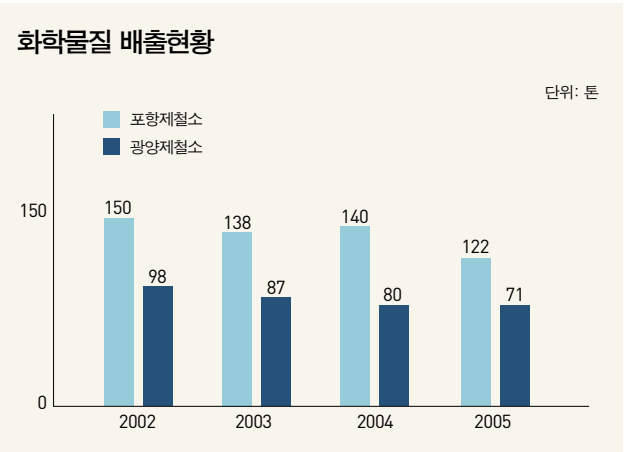
토양

포스코는 토양오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 인명과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1년 12월 '포항 및 광양제철소 토양오염 관리기준'을 제정하고 토양 오염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에 근거한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해당하는 석유류 저장시설이나 유독물 저장시설은 총 1,320개이며 정기적으로 제철소의 토양오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 한국환경수도연구소의 조사결과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조업으로 인한 토양오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 제철소 화성 공장과 광양제철소 배수종말처리장에는 수돗물을 정수할 때 사용하는 고성능 활성탄 흡착설비를 폐수처리공정에 설치하여 수질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우수에 의한 원료 야드 오탁수의 인근 해역 유출을 방지하고 처리하기 위해 우수 집수조를 설치하고 기존 선강 종말처리 설비를 개조하여 우수처리 설비로 활용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선강지역 단위 공장 1차 처리 배출수를 처리하는 2차처리 설비와 고로 배출수 처리설비 신설 투자를 진행하여 2006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광양제철소는 2006년 3월 20일 최신 생물학적 처리설비인 고로 배출수 처리설비를 준공하였으며, 향후에는 배수설비 방류수 재활용 설비도입, 6시그마 활동을 통한 수처리 시설 공정개선을 통해 배출수량을 약 30% 저감하여, COD, T-N은 물론 구리, 아연 등의 중금속 배출도 대폭 저감할 계획입니다.

화학물질

포스코는 2004년 12월 정부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은 체결한지 3년(2007년) 이내에 30%, 5년(2009년) 이내에 50%의 감축을 목표로 하는 '화학물질 배출 저감 30/50' 프로그램으로 국내 19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배출 저감활동

화학물질 발생 메커니즘 연구

- 철강공정 화학물질 배출 조사
- 냄새물질 발생 메커니즘 연구

화학물질 배출 저감 설비투자

- 화성공장 VOC 포집배관 설치
- 화성공장 Non-leakage type pump 교체
- 화성공장 BET밀폐설비 및 촉매산화처리장치 설치

화학물질 관리시스템 도입

- LDAR 설치
- 휴대용 VOC 모니터링 장비 운용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 휘발성 유기화합물
✚BET(Biological Effluent Treatment): 생물학적 수처리 설비

화성공정에서 발생하는 BTX와 암모니아 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누출탐지보수시스템(LDAR; Leak Detection and Repair)'을 도입하고, 고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소취제 살포와 수재 무증기 시스템의 도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BTX: 벤젠(Benzen), 톨루엔(Toluene), 크실렌(Xylene)의 유도화합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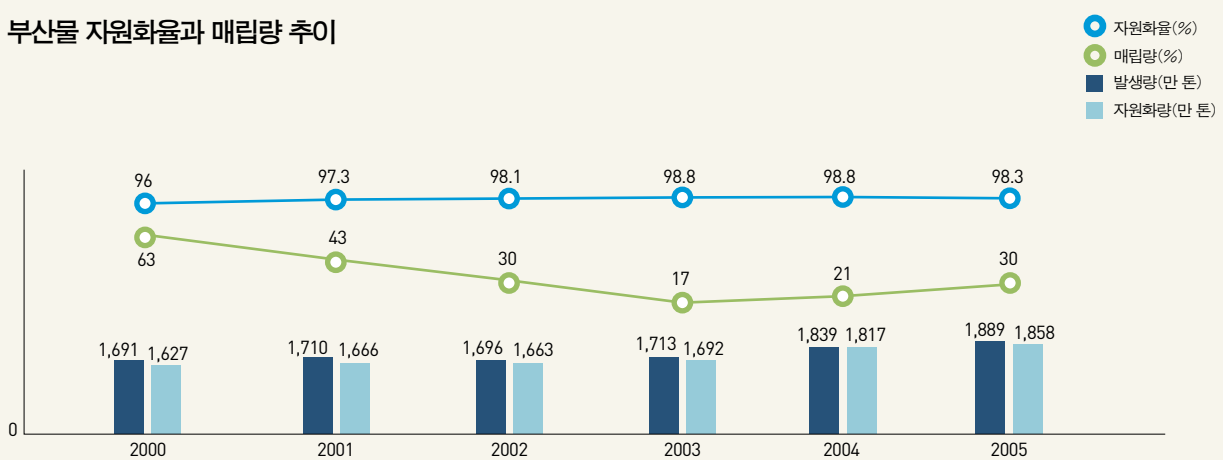
부산물

2005년도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조업 중 발생한 부산물의 총량은 1,889만 톤입니다. 이 가운데 고로 슬래그가 45%, 제강 슬래그가 29%로 총 발생량 중 슬래그가 74%이고, 더스트와 슬러지가 16%이며, 기타 부산물이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고로 슬래그는 시멘트와 비료 원료나 부지조성 성토용으로, 더스트와 슬러지 등 기타 부산물은 제철공정 내 철원과부원료로 재활용되거나 시멘트와 비료의 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산물 발생량의 98.8%인 1,858만 톤을 자원화하고 있고, 그 밖의 부산물은 소각로에서 소각하거나 고형화하여 매립하는 등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로 슬래그를 고부가가치로 활용하기 위해 2005년 전체 생산물량의 74%를 수재 슬래그로 생산했습니다. 또한 수재 생산 증대에 따른 괴재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제강 슬래그 수요의 안정 유지를 위해 복합 슬래그 도로 노반재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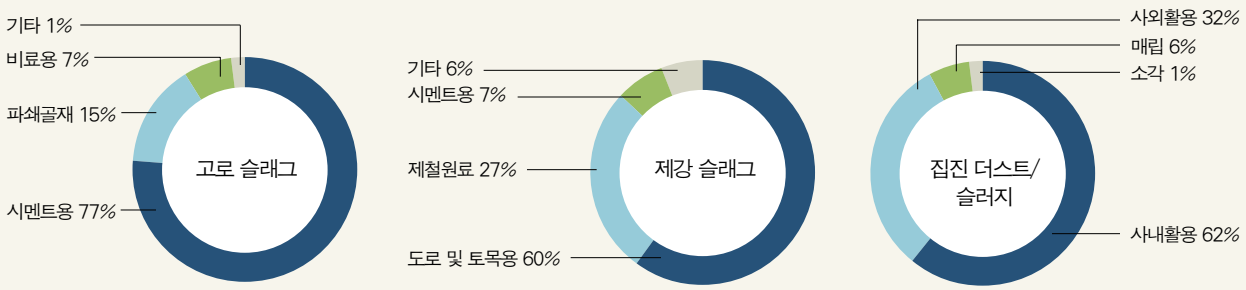
스테인리스 증설에 따라 신규로 발생하는 스테인리스 정련로 분말 슬래그는 비료용, 혼화재 등 다양한 신규 용도 개발을 통해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활용 더스트, 슬러지는 시멘트, 비료용으로 구입해 활용하고 공정 내 임가공품으로 활용해 매립물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강 증산에 대비하여 부산물의 안정적인 활용체제 구축과 부산물 특성에 따른 기능성 소재 개발로 부가가치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물 자원화율과 매립량 추이



* 매립량은 1999년 값을 100으로 하여 산출

부산물 종류별 자원화 현황(2005)



환경 투자 및 환경 비용

포스코의 환경 투자는 철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던 방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오염물질의 원천적인 저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05년도 환경설비 투자 금액은 총 설비 투자액의 4.2%에 해당되는 1,270억 원입니다. 포스코는 1968년 창사 이래 2005년 말까지 모두 2조 7,588억 원을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했으며, 이는 전체 설비 투자 금액의 8.7%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투자한 환경 설비를 유지, 운영하기 위해 2005년에 5,650억 원의 환경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에너지 회수 비용과 환경 연구개발(R&D) 비용을 포함하면 환경 비용은 총 6,270억 원입니다. 환경 비용의 용도별 구성을 보면, 폐기물 처리비용 36%, 대기 부문 설비 운영비 35%, 수질오염 방지 비용 19%, 그리고 기타(환경 R&D 비용, 에너지 회수 비용) 10%입니다.

2005년 포항제철소 및 광양제철소 환경설비 주요 투자내역

구 분	투자내역	금액(억 원)
대기	3, 4소결 코크스 설비 설치 2~5고로 원료저장조 비산분진 방지 소각설비 합리화	700
수질	선강지역 생활오수, 압연지역 배수체계 개선, 3배수 종말설비 증설	516
자원화 (기타포함)	STS 부산물 처리설비 교체 녹화	54
	합계	1,270

환경비용

단위: 억 원

구 분	집행내역	2001	2002	2003	2004	2005
환경설비 운영비	전력비, 정비비, 인건비 등	2,474	2,583	2,966	2,649	2,251
자원화비	부산물가공비, 운반비, 소각/매립비, 위탁처리비 등	1,357	1,336	1,342	1,464	1,994
감가상각비	환경설비 감가상각비	1,230	1,143	1,199	1,263	1,150
일반관리비	환경주관부서 인건비, 물이용부담금 등	65	119	205	210	255
환경R&D비*	환경연구개발비					103
에너지 회수비*	부생가스 회수비 온수·증기·전력 회수비					517
합 계		5,126	5,181	5,712	5,586	6,270

* 2005년부터 ABM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설, 집계하였으며, 환경 R&D는 에너지 부문을 포함하지 않음

value movement

세계 철강산업의 선도기업답게 포스코는 매년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뛰어난 성과는 모든 경제적 이해관계자에게 실질적 가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포스코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탁월한 역량을 갖춰나갈 것입니다.

BUSINESS

58 경제적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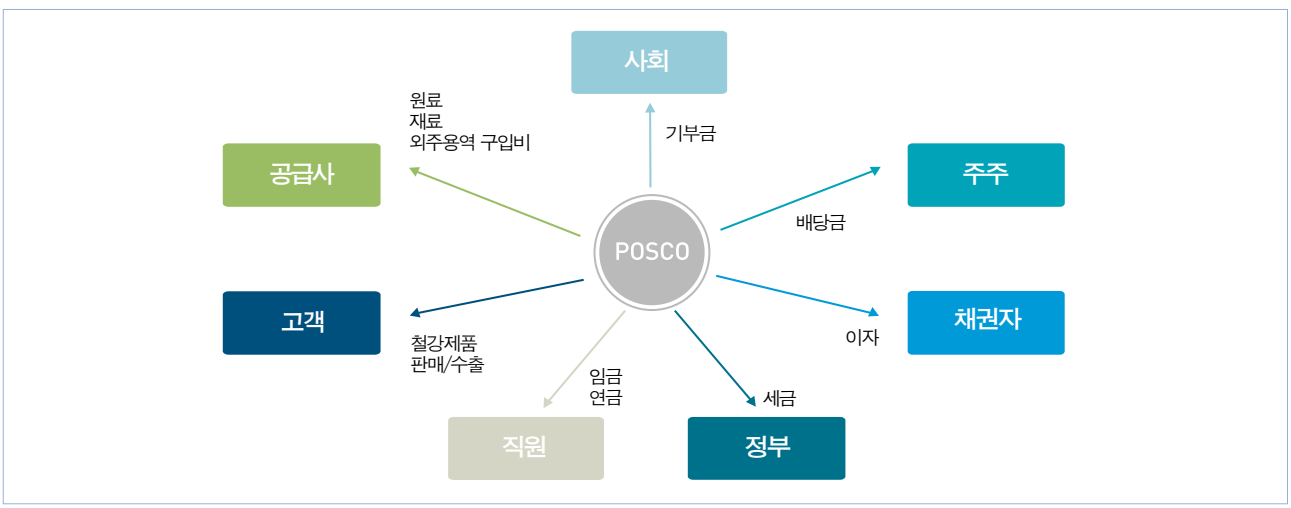
경제적 성과

포스코의 2005년 조강 생산량은 3,050만 톤, 판매량은 2,870만 톤이였으며 이중 전략제품 판매 비중은 44%로 1,250만 톤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9.6% 상승한 21조 6,950억 원, 당기순이익은 4.9% 상승한 4조 130억 원을 달성, 견실한 성장세를 기록하였습니다.

포스코는 사회와의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책임은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공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포스코는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공시사항과 절차를 준수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공시 지침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주주에게 충실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위원회 심의에는 사내외 변호사, 외부회계감사인이 참석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 통제 시스템을 통해 내부 통제를 거치고 있으며, 출자사간 공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를 통해 확인되는 다양한 재무지표는 포스코의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등 경제적 성과를 보여줍니다. 이는 생산, 판매, 기술개발, 원가 절감, 투자 등 다양한 경영활동의 종합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 포스코의 경쟁력은 물론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 재무지표들을 통해 포스코가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성과와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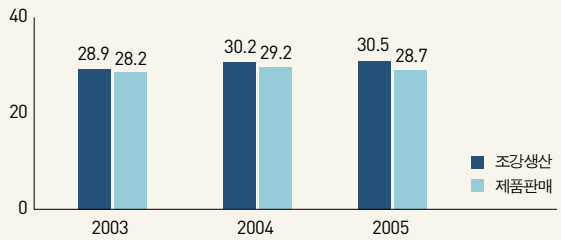
경영성과

포스코의 2005년 조강 생산량은 3,050만 톤이며, 판매량은 2004년보다 감소된 2,870만 톤이었습니다. 이중 전략제품 판매량이 전년 대비 16% 상승한 1,250만 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은 21조 6,9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7% 높은 5조 9,120억 원이었습니다. 인력 구조조정 비용과 유가증권의 매각 손실 등을 반영한 결과, 당기순이익 4조 130억 원이라는 견실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금창출 능력을 판단하는 EBITDA(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는 7조 3,930억 원, EBITDA 마진율은 지난해 32.8%에서 34.1%로 개선되었습니다. ROE(자기자본수익률)는 자기자본 규모가 계속 늘어나 전년보다 다소 하락한 22.5%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경영실적은 국제 철강 시황이 2005년 상반기까지 호조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이며, 또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를 늘리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03년 21.3%, 2004년 25.5%에서 보다 개선된 27.2%를 기록하여 3년 연속 20%대를 유지했습니다. 2005년 포스코의 신용등급은 무디스사 'A2',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사 'A-'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고로사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이며, 별도의 차입 없이 성장을 위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 정도로 건전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05 경영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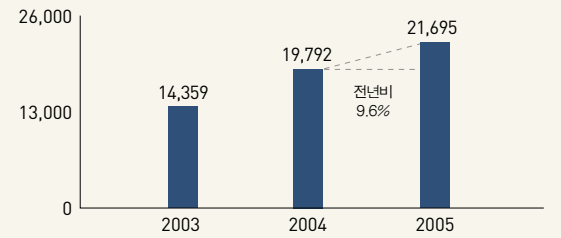
조강생산 및 제품판매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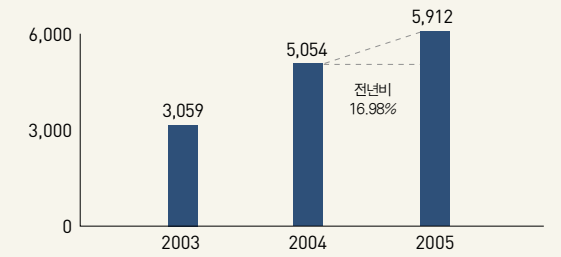
매출액

단위: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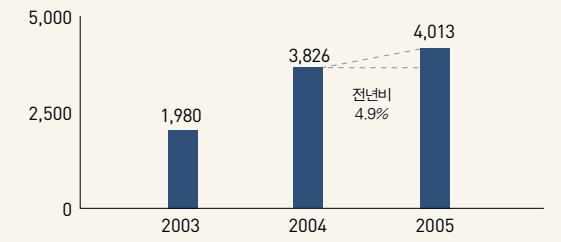
영업이익

단위: 십억 원



당기순이익

단위: 십억 원



주요 재무지표 추이

단위: 십억 원

구 분	2003	2004	2005
매출액	14,359	19,792	21,695
영업이익	3,059	5,054	5,912
당기순이익	1,980	3,826	4,013
영업이익률	21.3%	25.5%	27.2%
ROE	16.2%	26.3%	22.5%
EBITDA	4,519	6,500	7,393
EBITDA Margin	31.5%	32.8%	34.1%
유이자부채	3,580	2,498	1,416
자본	12,958	16,110	19,522
부채비율	42.1%	32.6%	24.0%

* EBITDA =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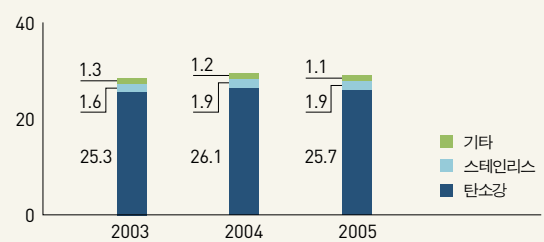
제품 판매 및 수출

판매 제품의 구성

판매 제품의 구성 변화는 전략제품 개발, 생산, 판매 확대 전략에 따라 열연은 감소하고, 냉연과 전기강판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강판, 고급 API 강재 등 전략제품의 판매량은 1,250만 톤을 넘어서 전년대비 16%가 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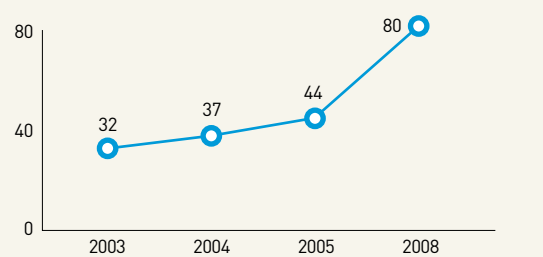
제품별 판매량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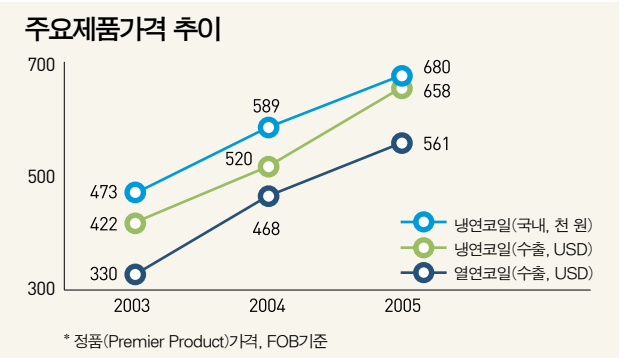
전략제품 판매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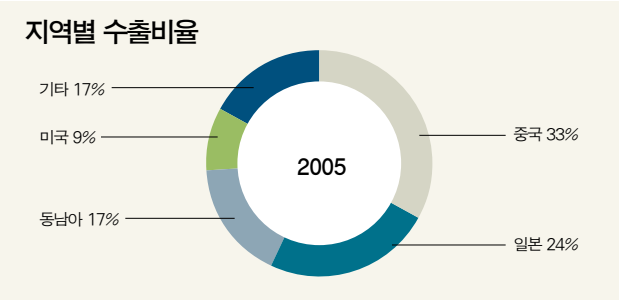
판매제품의 가격

2005년 포스코는 유연탄과 철광석 수입 가격의 급등으로 원료비 부담이 커져 원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한편, 국제 제품 가격 간의 차이에서 오는 시장 왜곡 현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경기 부진과 고유가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사들의 여건을 고려해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고객과 윈-윈하는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영하는 탄력적 판매 가격 체제에 따라, 2005년 9월 11개 제품에 대해 가격 인하를 한 바 있으며, 2006년 1월 13개 제품에 대해 추가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지역별 수출

2005년 수출은 751만 톤으로, 총 판매량의 26.2%로 증가하였습니다. 수출판매 지역은 전 세계 60여 개국이며, 아시아 지역이 7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중국의 비중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포스코는 고정 고객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주력 수출시장 이외에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 원거리 시장 개척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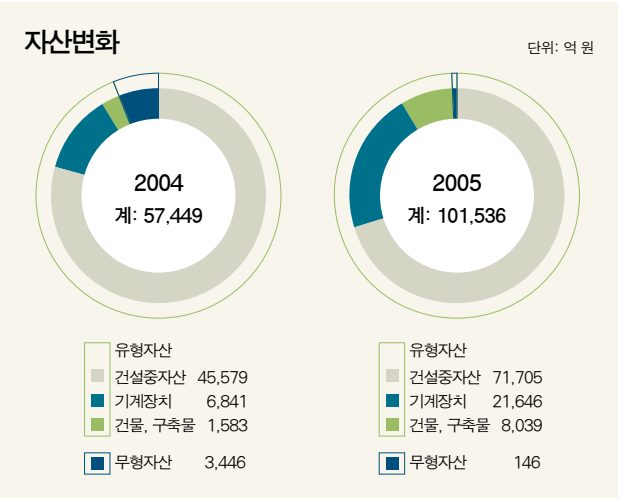


원료, 재료, 외주용역 구입비

원료, 재료, 외주용역을 구입하기 위해 2005년에 지출한 금액은 11조 5,059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원료비는 8조 9,305억 원이며, 재료비는 1조 4,290억 원입니다. 외주용역비는 외주파트너사에 대한 임금인상 정책을 지속하여 전년보다 747억 원 늘어난 1조 1,46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산의 변화

2005년 건물, 건축물 및 비품 등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금액은 전년보다 83%가 증가한 10조 5,182억 원입니다.



배당금

회사의 배당정책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수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2006년 2월 주주총회에서는 연말 배당금으로 액면가액의 120%인 주당 6,000원을 결의하였습니다. 중간배당을 포함하면, 액면가액의 160%인 주당 8,000원이 배당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또한, 향후 장기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 2004년에는 1,933억 원, 2005년에는 1,915억 원을 배당평균적립금으로 유보하였습니다.

배당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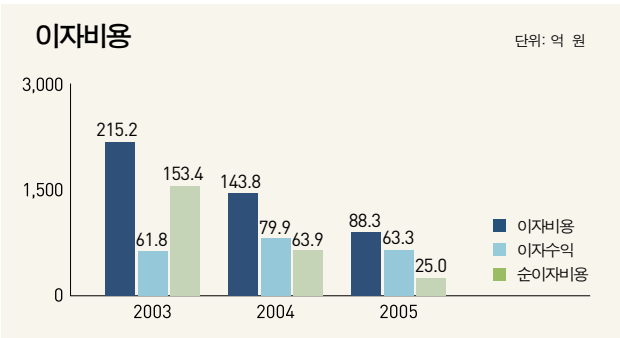
구분	2003	2004	2005
배당률(%)	120	160	160
배당액(원)	6,000	8,000	8,000
중간배당액	1,000	1,500	2,000
배당금총액(억 원)	4,851	6,444	6,384
연말주가(원)	163,000	187,000	202,000
주당순이익(원)	24,306	47,331	50,670

자기주식

포스코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05년에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 1,325,800주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 사주 조합에 매각하였습니다. 2005년 말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 수는 7,032,554주이며,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배당가능주식수는 80,154,281주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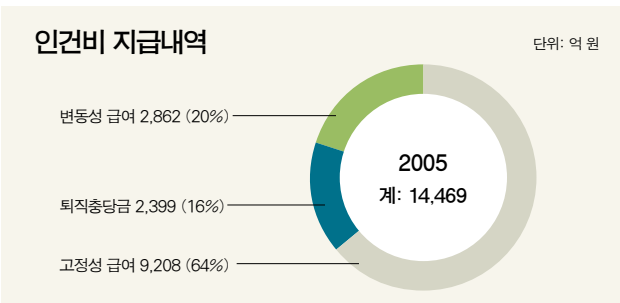
이자비용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2004년 1,438억 원에서 555억 원이 감소한 883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이자수익 633억 원을 감안하면 순이자비용은 전년대비 389억 원 감소한 250억 원입니다.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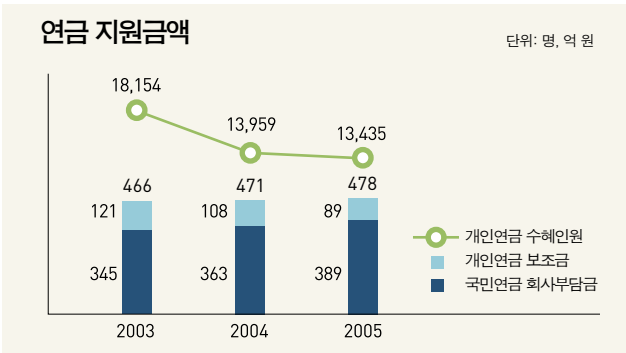
직원에 대한 경제적 급부는 급여와 복리후생 등으로 구분됩니다. 2005년 총 인건비는 1조 4,469억 원으로 이 중 퇴직충당금을 제외한 급여성 인건비는 1조 2,070억 원입니다. 2005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축소 등 대기업의 임금안정이 필요한 여건임을 감안, 별도의 임금인상보다는 경영성과금의 일부를 고정성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임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데 노사가 합의하였습니다. 고정성 급여의 증가로 전체 인건비는 2004년보다 87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연금

연금체계는 법에 의하여 전체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회사의 보조를 받아 직원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년 전년도 소득액을 기초로 표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이와 동일한 금액을 회사에서 추가로 지원하여, 본인부담금과 회사부담금의 합산액을 근로자 개인 명의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2005년 회사부담금은 389억 원으로 2004년보다 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회사는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개인연금 상품에 월 110,000원이상 가입한 직원을 대상으로 월 55,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말 기준으로 개인연금 보조금을 수혜 받은 직원은 13,435명으로 수혜율은 70%입니다. 2005년에 지급한 개인연금 보조금은 1980년 이전 입사자에 대한 지원기간(10년간)이 2004년도에 대부분 만료됨에 따라 개인연금 수혜대상 직원수가 줄어들어 2003년보다는 32억 원, 2004년보다는 1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금

포스코는 세금 납부를 통해서도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5년 동안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무상원조를 받지 않았으며, 세법으로 규정한 세액공제 이외에 포스코만을 위한 특별 세금감면 혜택 등 재정적 지원 또한 없었습니다. 2005년 3월 포스코는 제3회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에서 2003년 납부실적 기준으로, 법인세와 농어촌 특별세로 6,400여 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 국세청으로부터 '국세 5,000억 원탑'을 수상했습니다. 2005년 실제 납부세액은 국세 1조 3,703억 원, 지방세 1,493억 원, 관세 490억 원 등 총 1조 5,686억 원으로 전년보다 72%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포항시에 납부한 세액은 742억 원으로 46.9%가 증가하였습니다. 광양시에 납부한 세액은 667억 원으로 53.3% 증가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에 표기한 회계기준 법인세비용은 1조 3,413억 원으로 전년보다 4.7% 감소하였습니다.

기부금

포스코는 '조직 및 책임권한 규정'과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기부금 집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결하며, 재정 및 운영위원회에서는 1억 원에서 10억 원까지의 기부찬조 심의 의결과 10억 원을 초과하는 기부찬조를 사전 심의하고,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기부찬조는 회장의 책임권한 사항입니다. 2005년에 교육 및 장학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역사회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기부한 금액은 1,390억 원입니다.

global movement

원료 구매에서부터 생산과 판매, 연구개발에 이르기까지 포스코의 경영은 더 큰 세상, 더 넓은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포스코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능력과 기술, 원가는 물론 조직역량과 일하는 방식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세계 철강산업의 리더, 글로벌 포스코의 원대한 꿈을 향해 포스코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GLOBAL POSCO

64 BUSINESS NETWORK
66 USS-POSCO INDUSTRIES
68 창원특수강
70 포스코 인디아
72 장가항포항불수강

BUSINESS NETWORK

포스코는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해외투자를 추진해 왔습니다. 2006년 2월 현재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해외투자 법인 수는 중국 26개사 등 총 59개사이며 전체 출자금은 14억 8,000만 달러에 이릅니다. 포스코의 출자사 관리 기본 방향은 철강경쟁력 강화 파트너이자 새로운 성장 산업의 엔진으로써 포스코의 기업가치를 극대화 하는 것입니다.

포스코는 국내외 출자사와 함께 지속가능경영의 선도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 윤리를 회사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부문으로 인식하고, 윤리 경영을 범포스코 차원의 기업 문화이자 모든 경영 활동의 토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14개 국내 출자사와 끊임없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출자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 출자사의 성장을 지원하고 범포스코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5년 12월 '출자사 정보공유시스템' 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출자사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5년 9월 제1회 포스코·출자사 상생협력위원회를 열고 범포스코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동반 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에도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결의했습니다.

포스코 계열사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기업집단, 국내외 매출액, 기업중요도 순서

2005. 12. 31 기준

회사명	업종 설명	사업장
포스코건설	• 종합건설 • 철강플랜트, 도로, 항만, 철도 등 • 송도국제도시	한국
창원특수강	• STS선재, 공구강, 탄소합금강 등 산업용 특수강 제조	한국
포항강판	• 아연도금강판, 알루미늄도금강판 및 칼라강판 생산, 판매	한국
포스데이타	• 포스코 정보통신시스템 개발, 유지 보수 • 컴퓨터 관련 H/W, S/W 개발 및 판매 • 휴대인터넷(WiBro) 등 유무선 통신장비 제조 및 판매	한국
포스틸	• 철강재 내수 판매 및 수출입 대행업	한국
포스콘	• 산업용 전기제어기기 제조 및 판매 • 포항, 광양제철소 전기제어설비 정비용역	한국
포스렉	• 내화물 제조 및 축로 시공 정비	한국
포철산기	• 포항제철소 기계설비 정비용역 • 철강 설비 제작 및 설치	한국
포철기연	• 광양제철소 기계설비 정비용역 • 철강 설비 제작 및 설치	한국
포스-에이.씨.	• 제철 플랜트 및 일반 건축물 설계, 감리, 건설관리 (CM; Construction Management)	한국
승광	• 체육시설(회원제 골프장) 운영 • 관광객 이용시설 운영	한국
포스코경영연구소	• 기업경영 및 철강산업 전문 연구기관	한국

회사명	업종 설명	사업장
포스텍기술투자	• 유망 신기술사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한국
포스코터미날주식회사	• 석탄, 원료 등 화물유통기지(CTS; Central Terminal System) 운영	한국
삼정피엔에이	• 포스코 제품 포장 용역 • 알루미늄 가공 및 판매	한국
동우사	• 부동산 임대, 시설물유지관리 및 경비, 차량관리용역, 보험대리업	한국
POSCO China Holding Corp.	• 중국지역 철강제조 및 관련 부대사업에 대한 투자 • 투자사 제품의 중국지역 판매 지원	중국
POSCO Asia Co., Ltd.	• 홍콩을 기점으로 중국지역 철강재 판매	홍콩
Zhangjiagang POSCO Stainless Co., Ltd.	• 스테인리스 냉연, 아연도금강판 제품 생산 및 판매	중국
Qingdao Pohang Stainless Steel Co., Ltd.	• 스테인리스 냉연제품 생산 및 판매	중국
Dalian POSCO-CFM Coated Steel Co., Ltd.	• 아연도금강판, 칼라강판 생산 및 판매	중국
Shunde POSCO Coated Steel Co., Ltd.	• 아연도금강판, 전기강판, 칼라강판 생산 및 판매	중국
POSCO Suzhou Automotive Processing Center Co., Ltd.	• 자동차강판 가공 및 판매 • 상해인근 자동차사 및 부품사에 소재 공급	중국
POSVINA Co., Ltd.	• 아연도금강판, 칼라강판 생산 및 판매	베트남
VSC-POSCO Steel Corp.	• 철근, 봉강, 선재 생산 및 판매	베트남
Myanmar-POSCO Steel Co., Ltd.	• 아연도금강판 생산 및 판매	미얀마
POSCO Japan Co., Ltd.	• 일본내 지주회사 • 철강재 대일 판매 및 가공회사 지원	일본
POS-Thai Steel Service Center Co., Ltd.	• 냉연제품 가공 및 판매 • 태국 자동차사 및 부품사에 소재 공급	태국
POSCO India Processing Center	• 전기강판 가공 및 판매 • 뭄바이 인근지역 다국적 변압기 회사 등에 소재 공급	인도
POSCO America Corp.	• 대미 강재 판매 및 미국내 투자업체(UPI) 관리 • 철강통상정보 수집	미국
POSCO Australia Pty. Ltd.	• 호주 광산개발 합작사업 • 금속원료와 철강제품 무역	호주
KOBRASCO	• 철강원료 펠렛 생산 및 판매	브라질
POSCO Investment Co., Ltd.	• 포스코 및 계열사, 현지법인, 해외지점에 대한 현지금융 조달, 운용, 투자 • 금융자문 및 국제금융정보 수집	홍콩
POSCO-India	• 인도제철소 건설 및 현지 철광석 개발	인도

USS-POSCO INDUSTRIES

포스코와 US Steel의 합작회사인 UPI는 연간 120만 톤의 압연강판을 생산, 미국 서부 지역에 공급합니다. UPI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 회사가 되기 위해 안전, 고객만족, 탁월한 성과, 품질, 개인 존중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UPI는 US Steel과 POSCO가 각각 50%씩 출자하여 1986년 4월 설립한 합작사입니다. 피츠버그에 위치하며, 미국 서부 지역 13개 주의 100개 이상 고객사에 냉연, 아연도금강판, 주석도금강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최대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800여 명의 직원이 연간 120만 톤의 압연강판을 생산합니다.

판매와 EBITDA

구 분	2003	2004	2005	2006(계획)
Shipments(천 톤)	1,236.5	1,386.8	1,153.1	1,286.5
EBITDA(백만 USD)	2.7	58.3	12.3	38.7

기업윤리

UPI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직원들이 존중, 공정, 정직, 신뢰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규범과 핸드북을 배포하였고, 학대와 차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신입 사원에게 법적 책임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며, 모든 관리자에게 기업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이해관계 상충, 학대와 차별, 인터넷 및 이메일 사용, 정보보안, 회사자산 사용, 재무적 책임 등에 관한 회사의 방침을 온라인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환경

UPI의 환경정책은 지속적 환경 개선 프로그램(Continuous Improvement To Environment; CITE)으로 요약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을 고려하며 일하도록 임직원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 폐기물 발생은 물론, 직원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보건안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 회사는 유해 폐기물 법을 위반한 사항이 한 건도 없었고, 국가오염물질배출제거 시스템(NPDES; National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허용기준을 99.9% 준수하였으며, 청정대기법의 오염물질배출기준(Title V Air Permit)은 99.95% 준수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2003년에는 150에이커에 달하는 일부 부지에서 오염된 토양을 제거하는 대대적인 개선 프로젝트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5년에는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여 체계적인 환경관리체제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안전과 보건

UPI의 직원을 비롯하여 작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는 것은 회사 경영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UPI는 다양한 안전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훈련을 받습니다. 또한 안전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위협 프로그램 감사(USS audit of life threatening programs)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 회사의 휴업도수율과 OHSA(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의 도수율(recordable frequency rate)은 북미의 산업 전체 평균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해 통계

구 분	2003	2004	2005	산업평균
휴업도수율	1.09	0.83	1.1	2.2
OHSA	3.26	2.9	3.81	5.4

직원

회사 직원의 76%인 622명은 철강연합노동조합(United Steelworkers; USW)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고용 조건을 규정한 4개년 노동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현재의 협약은 2008년 8월 1일 만료됩니다. 협약에 따라, 생산 근로자는 시간급, 성과급, 분기 경영성과금을 받습니다. 또한 포괄적인 건강보험, 연금 혜택, 유급 휴가를 받으며, 퇴직연금제도인 401(k)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4%의 관리자와 비노조원들도 이와 비슷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1%를 적립하는 부가적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고, 연 소득의 6%까지 401(k) 연금보험 납부액에 상응하는 액수에 대해 회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노동협약을 비롯한 회사 방침은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종, 피부색, 신념, 성별, 종교, 국적, 장애, 임신, 군종사, 결혼 여부,

성 지향성, 이민자 신분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과 학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철강연합노동조합의 합의에 따라 회사측 임원 3명과 노조 임원 3~6명으로 구성된 '파트너십 위원회(Partnership Committee)'는 월 1회 회의를 갖고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토의합니다. 여기에는 안전, 경영 여건, 수익성, 작업 환경, 팀 활동, 회사와 노조의 공동 행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5명의 근로자 대표(Wage Facilitators), 4명의 안전 대표(Wage Safety Representatives)와 3명의 ISO 조정자(Coordinators), 그리고 이들의 해외 활동을 선정합니다. 이렇게 선발된 직원들은 직원과 경영진, 그리고 노조 사이에서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노동협약은 또한 4단계의 고충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서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의무적 중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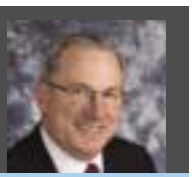
그 밖의 커뮤니케이션으로는 사장의 주간 업데이트, 주간 간부회의, 월간 경영 업데이트 회의, 집으로 배송되는 분기 뉴스레터, 분기 사업 검토회의, 그리고 전직원 연례 회의 등이 있습니다. 회사는 모든 임직원들이 '지속적 개선 팀 프로세스(continuous improvement team processes)'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팀 프로세스는 대부분 5명의 근로자 대표에 의해 진행되며, 이들은 참여자와 아이디어를 뽑고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 품질, 생산량, 생산공정, 재고, 원자재 취급 등과 관련한 문제를 일반 직원과 6시그마팀이 함께 해결합니다.

지역사회

UPI는 기업시민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UPI는 아동 당뇨병 연구재단(Juvenile Diabetes Research Foundation; JDRF)의 후원사이며, 재단을 위해 연간 10만 달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학교와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저소득층의 주거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Habitat for Humanity) 프로젝트에도 참여합니다.

임직원들은 철강산업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AISI)의 회원으로 참여하고, 지역 직업인력개발위원회(Workforce Development Board)에도 참여합니다. 또한 회사는 피츠버그 상공회의소(Pittsburg Chamber of Commerce), 콘트라코스타 지역의 경제협의체인 콘트라코스타 협의회(Contra Costa Council), 그리고 지역사회 고등학생에게 향후 진로 상담과 업무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주(州) 동부 산학 연합(East County Business-Education Alliance)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INTERVIEW



● Robert R. Smith, UPI 사장

UPI의 핵심 이해관계자는 누구이며 의사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UPI의 미션은 고객, 주주, 직원에게 최대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요구를 적시에 반영하며, 여러 경로의 교류를 통해 그들의 사업을 배우고 요구사항을 수렴합니다. 또한 고객의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 향상 노력도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Jacobson & Associates 철강 고객만족도 보고서에서 UPI는 다년간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UPI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과 회사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저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UPI 주간 업데이트를 비롯해 다양한 수단으로 직원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의 일원인 기업시민으로서, 지역사회와 세계에 공헌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매년 지역경제에 2억 달러 규모의 기여를 하고 있으며, 많은 자선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UPI가 직면한 주요 환경 및 사회 이슈는 무엇입니까?

UPI는 세계적인 환경관리 수준을 지니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배출수와 폐기물 관리, 여과 시스템 등 환경과 관련한 많은 활동은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것입니다.
사회적 이슈 중 UPI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직원과 방문자, 지역주민 등 모든 이의 안전입니다. 이를 위해 타 기업, 경찰, 소방서와 정기적 훈련을 실시합니다.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직원의 경쟁력입니다. 교육센터는 다양한 과정을 제공하여 업무 관련 기술 향상과 모든 직원의 발전을 추구합니다.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침과 프로세스, 관리방법 등이 있습니까?

직원 가이드, 업무수행강령, 그리고 전자화된 방침 매뉴얼이 있으며, ISO 9001과 14001도 지속가능경영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UPI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의 성공적 사업운영에 대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특수강

창원특수강은 품질, 안전보건, 환경을 경영활동의 3대 기본 요소로 하여 고객 및 이해관계자와의 공존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경영방침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품질, 안전, 환경 통합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7년 2월 삼미특수강의 강봉 및 강관 부문을 인수하여 설립된 창원특수강은 2005년 현재 87만 톤의 조강 생산 능력으로 산업의 소재인 스테인리스강, 공구강 위주의 선재, 봉강, 무계목 강관(無繼目鋼管, seamless steel tube)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5년 스테인리스강 선재 증산과 품질개선사업의 주 계약을 완료하는 등 2008년까지 대규모 설비 합리화 투자를 진행하여 조강 100만 톤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특수강 제품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선두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03	2004	2005
매출액	7,296	10,064	11,421
영업이익	100	575	563
순이익	3	335	372
총자산	6,586	7,413	8,157
부채	3,033	3,524	4,268
자본금	1,500	1,500	1,300

고객 및 이해관계자

기업 윤리

모기업인 포스코의 방침에 따라 2003년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이의 적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교육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 확산 활동은 물론 실효성 있는 여러 제도를 도입하여 윤리규범이 효과적으로 기업문화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특수강이 산업용 핵심 부품인 점을 감안하여 완벽한 품질관리와 검사를 수행, 고객사의 품질 요구특성을 충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고객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기 위해 방문 활동과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주문에서 생산, 출하에 이르는 주문별 진행상황을 eCS-net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

직원 의견을 반영하는 대표 기구는 노사협의회입니다.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정기·임시 회의뿐 아니라 매주 실무회의가 개최되고, 매월 부서 단위 기초협의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문별 임원과의 간담회나 노사 위원 워크숍 등 다양한 경로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노동조합과도 월 1회 상집간부회의를 개최하며, 노조 간부의 노사협의회 참여로 협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고충 처리를 위해서는 고충처리위원회를 비롯하여 음성 메일(Voice Mail), 우편(Direct Mail), 전자우편(E-mail) 등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수렴된 직원들의 고충, 건의, 문의사항은 해당 부서로 전달되며, 검토 결과 및 조치 내용은 2일 이내에 피드백 됩니다.

중소기업 상생협력

창원특수강은 기획·재무 담당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분기 1회 '상생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주파트너사 제안 제도를 실행하여 의사소통 경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납품 업체에 현금 지불 기준을 1천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208개사가 혜택을 보고 있으며, 공급계약을 바탕으로 납품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론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억 원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지역사회와 신뢰감을 형성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2004년 7월 출범한 사회봉사단은 직원들의 순수한 노력 봉사와 기부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5년 한해 동안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봉사활동의 날에 연인원 1,914명이 참여하여 사회복지시설, 자매마을 봉사와 해변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2.5억 원), 아름다운 가게 활동 참여(1,975점 수집), 산학협력을 위한 직업전문학교 장학금 기부 등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보건

창원특수강은 안전보건 관련 경영방침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했고, 2003년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KOSHA18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작업환경개선과 건강증진 등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분기마다 열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각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사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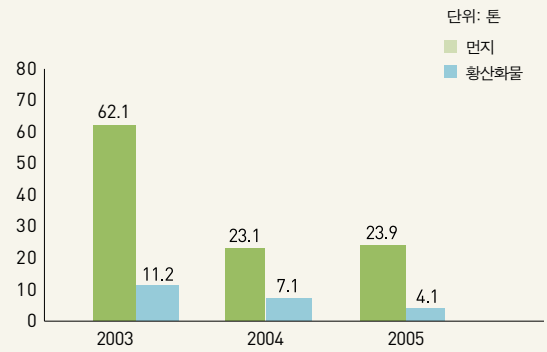
6시그마 경영혁신활동과 연계하여 안전보건 개선활동을 실시하며, 분기 단위로 안전보건활동 종합평가를 합니다. 안전확보를 위한 3대 위험관리활동은 잠재위험 발굴, 위험성 평가, 작업표준 따라하기로 구성되는 체계적 훈련입니다. 한편 작업환경 유해요인 측정과 건강이상자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외주파트너사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지원협약에 따라 안전보건활동 정보 제공, 평가, 개선 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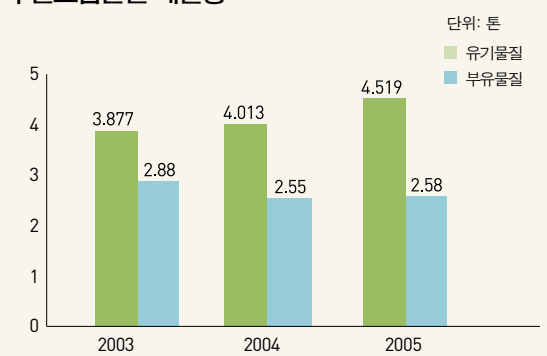
창원특수강은 환경오염을 환경방침에 따라 3년 단위로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부터 환경목표 준수율이라는 자체 지표를 설정, 전사에 공개하며, 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법 기준보다 강한 자체 기준 준수율, 굴뚝자동측정장치 (Tele-Metering System; TMS) 실시간 측정결과와 외부 기관의 점검을 통해 지적되는 사항 등을 점수화한 것입니다. 2005년에는 평균 98.3/100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굴뚝자동측정장치의 측정 결과는 사내 정보망은 물론 환경관리공단과 지역 관청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의 동향과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종합하여 중기계획인 '환경에너지 기술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질산 산세기술, 육가크롬 폐수 미발생 염욕처리 기술, 용재 부품성 향상 기술 등 청정생산기술 개발과 실용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996년 ISO14001 인증을 받았으며, 2005년에는 개정된 ISO14001:2004 규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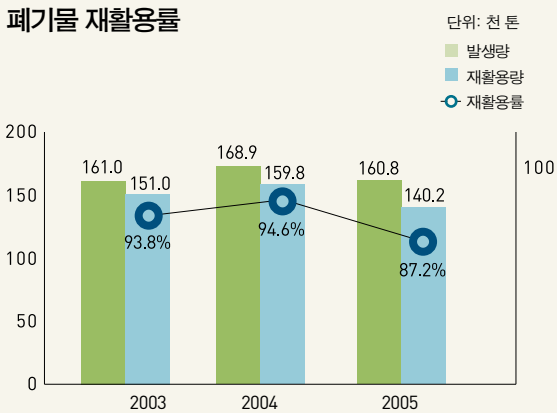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폐기물 재활용률



포스코 인디아

포스코의 인도 제철소 건설은 철강사상 최초로 해외에 대규모 제철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세계 철강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0년 포스코 인디아의 1단계 공사가 완성되면 연간 400만 톤 규모의 슬래브와 열연코일을 생산하게 되며 향후 1,200만 톤까지 설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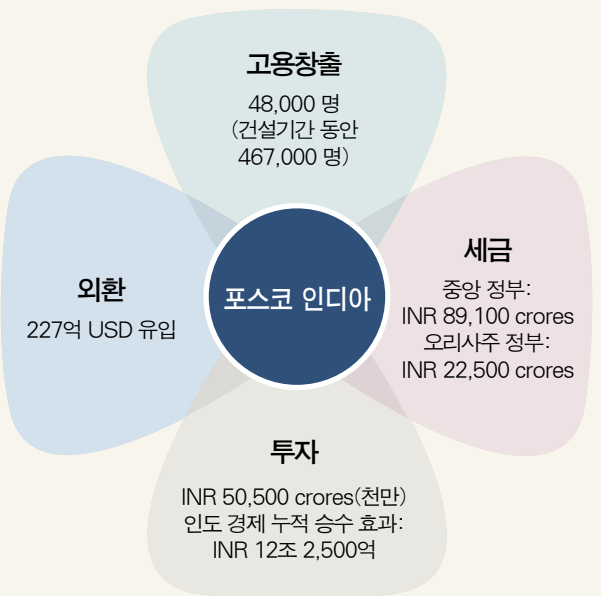
철강산업의 경쟁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글로벌 성장 전략을 추구해 온 포스코는 일찍이 인도를 주목하였습니다. 인도는 2020년까지 연평균 5.5%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Deutsche Bank, 2005.3). 2005년 인당 철강 소비량은 31kg으로, 중국 207kg, 미국 409kg 등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향후 철강산업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원료 확보가 철강사 경쟁력의 최대 관건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도 진출은 철광석 광권의 확보를 겸할 수 있는 투자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추진경과

2004년 8월 인도를 방문하여 투자를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포스코는 2005년 6월 인도 오리사주 정부와 일관제철소 건설과 광산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해외 일관제철소 건설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인도 동북부 오리사주의 파라팁(Paradip)항 인근 지역에 1단계로 2010년까지 연산 400만 톤 규모의 슬래브와 열연코일을 생산하는 제철소를 건설하고, 최종적으로는 생산능력 1,200만 톤까지 설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상 투자비는 1단계 37억 달러이며 최종적으로 1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전용 항만 등 관련 인프라 건설과 주택단지 등 직원 후생 시설 조성을 포함합니다. 오리사주 정부는 포스코 인도제철소의 경쟁력있는 운영을 위해 총 6억 톤의 철광석 광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향후 30년간 사용 가능한 양으로 추정됩니다. 2006년 주요 추진 업무는 광산 탐사권을 획득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2004. 8	인도방문 투자제안
9	JWG 구성
2005. 6	MOU 체결
8	법인 설립 (POSCO-India Private Limited)
9	광산탐사권(PL) 신청
11	오리사주 정부부지 매입허가 승인
12	포스코 이사회 사업 승인
2006. 1	파라딥 건설사무소 개설
	광산탐사권 획득, 부지 매입
2010.12	준공

기대 효과



인도프로젝트와 지속가능경영

인도에서의 지속가능경영은 포스코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인도의 여러 이해관계자 관련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과 주민 이주, 광산 탐사권 및 채굴권에 대한 적시 승인, 철도와 도로 등 정부의 인프라 건설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인도 중앙 정부, 오리사주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내 반대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 유치시의 파급효과와 파이넥스 및 미니플랫밀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한 경쟁력 제고 효과 등을 제시하여 설득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측면

포스코는 기존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인도 제철소 건설에서는 제선 공정에 용광로 방식보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이 현저히 적은 파이넥스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파이넥스는 기존 용광로 공법에 비하여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원가도 절감할 수 있는 포스코 고유의 신기술입니다.(51 페이지 참조)

사회적 측면

포스코는 경쟁력 있는 일관제철소를 건설하여 인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철소 건설 초기에 주민 이주와 토지 보상을 비롯한 환경 및 사회 이슈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 경제 조사를 실시하고 우수 사례를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재정착 프로그램(Resettlement & Rehabilitation Package)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지 채용 인력의 안전보건과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이며,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인도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분야	실천 계획
교육 지원	포스코 펠로십 인디아 (청암재단)
	인도지역 인문사회 연구 지원 및 국제 포럼 (청암재단)
	포스코 퀴즈 프로그램 시행 (연 15만 USD)
	제철소, 광산지역 도서 및 교사 지원 (연 14만 USD)
	(장기계획) 기술교육센터 건립
보건 지원	이동병원 운영 (의사 2, 간호사 2)
	수도 미공급지역 용수 공급
	World Food Program 지원 (연 50만 USD)
	(장기계획) 종합병원 설립, 서울대 구강암 봉사진료 등
사회기반 시설	제철소-파라딥 해안도로 (6km), 가로등 설치
	힌두사원 행사 지원 (연 1만 USD)
	(장기계획) 부바-파라딥 직선도로 건설 일부 참여, 복지시설 지원

장가항포항불수강

포스코는 중국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 투자를 확대해 왔습니다. 1997년 설립된 장가항포항불수강은 스테인리스, 아연도금강판 등 연간 40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철저한 현지화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철강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조강 생산이 10억 톤대에 진입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수요와 더불어 중국 내 생산 시설의 확대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2005년에는 철강 순수출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해 치열한 경쟁이 야기되었고, 이로 인한 철강 가격 하락은 2005년 하반기 철강 경기 둔화의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중국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1995년부터 활발한 투자로 중국 진출을 확대해 온 포스코는 지역사회에 직접적 책임의식을 갖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투자 사업체 관리를 위해 2004년 지주회사인 포스코 차이나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세계 철강 소비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시장에 대한 회사의 새로운 도전을 의미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중국 내 철강 생산 기지는 대련포금강판 등 총 4개입니다.

장가항포항불수강은 1997년 포스코 82.5%, 사강집단 17.5%의 지분율에 총 2억 9,600만 달러의 자본으로 설립되었으며, 스테인리스 냉연 28만 톤과 아연도금강판 12만 톤 등 4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영실적

(단위: 천 톤, 백만 USD)

연도	2002	2003	2004	2005
판매	348	410	462	500
매출액	405	538	865	936
세후 순이익	30	16	18	-44

스테인리스 일관제철공정

2004년 말에는 중국 내 스테인리스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강, 연주, 열연, 소둔산세 공장으로 이어지는 상공정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0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그동안 전기로가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오던 열연을 직접 생산하여 스테인리스 일관 조업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비 확장을 통해 중국 내 투자 수익을 현지에 재투자함으로써 현지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 중국사업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내 냉연 제품의 가격 하락세와 스테인리스 생산업체들의 지나친 설비 투자가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업체와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품질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전략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력 정책

장가항포항불수강은 회사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설비 확장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 학교와 교류하는 등 현지 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채용한 인력 및 기존 인력을 교육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업에 필요한 기능 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강, 사강 등 유사업체 및 포항제철소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중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력 현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지 우수 인력을 발굴해 채용함과 동시에 주요 직책에 대한 현지화를 통해 현지 직원들에게 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중국 직원을 도금공장장으로 발령하였고, 향후 냉연공장장을 현지 인력으로 대체하는 등 현지인의 승진 한도를 상향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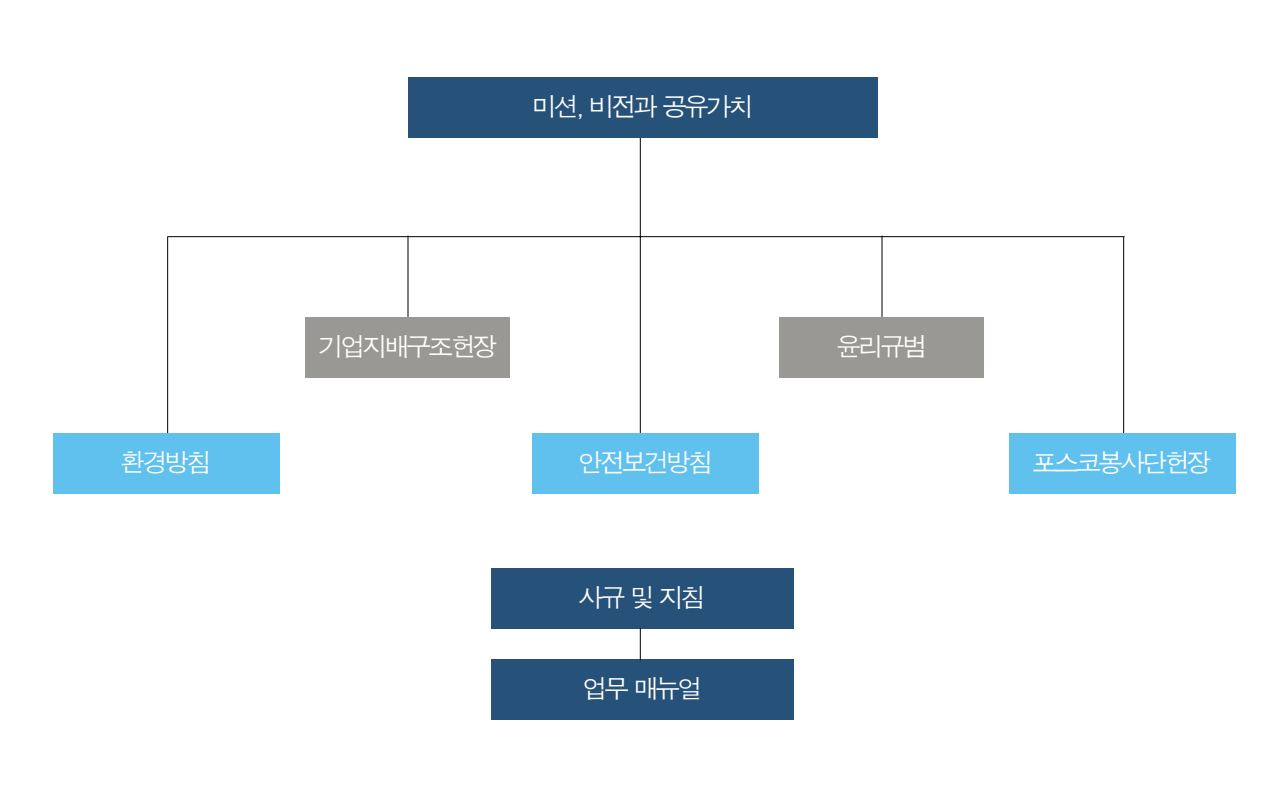
환경과 사회공헌

장가항포항불수강의 현지화는 중국의 지역사회와 환경에 대한 공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공장을 설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학교나 관공서 등에 컴퓨터와 같은 기자재를 기증하는 등 지역협력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장쑤성은 2005년 10월 정길수 총경리를 비롯한 21명의 외국인을 '프렌즈 오브 장쑤성'으로 선정해 대대적인 행사를 하면서 기념패를 전달했습니다.

장가항포항불수강은 매년 총 투자액의 4% 이상을 환경부문에 투자하여 지역 내 환경모범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소둔산세공장의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여 제품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기도 하는 등 환경과 에너지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헌장, 규범, 방침

포스코는 사내 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적절히 대응하고 회사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업무활동에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들 방침은 직원에게 다양한 형태로 배포되고 교육되며,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공개됩니다. 또한 적절한 조직과 실행 제도를 갖추어 회사 운영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전달됩니다.



	내용	웹사이트 찾아보기
기업지배구조헌장	주주 가치 증진,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 감사기구의 구성과 역할	기업정보 〉 기업지배구조 〉 기업지배구조헌장
윤리규범	이해관계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업무 수행의 윤리적 기준	기업정보 〉 기업윤리 〉 윤리규범
환경방침	법규 준수와 환경영향 최소화, 환경경영 시스템과 관련 활동 강조	지속가능경영 〉 환경과 에너지 〉 환경경영
안전보건방침	작업장에서의 안전보건을 위한 회사와 직원의 책임	지속가능경영 〉 안전과 보건 〉 안전보건정책
포스코봉사단헌장	기본 정신과 행동강령	지속가능경영 〉 포스코봉사단 〉 포스코봉사단 소개

보고서 발간 절차와 기준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의 활동과 성과를 중심 내용으로 하며,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회사의 장기적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일반적인 재무 보고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세계화와 함께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경영 위험도 다양화되고 있어 기업의 책임감 있는 경영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기아, 질병 등 국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는 관점도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지속가능성 보고서입니다.

가이드라인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선진 사례가 많이 참고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해진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발간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유지하면서 향후 진화하는 보고 기준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05년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증 작업을 거치면서 KPMG는 보고서 발간의 절차와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내부 업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보고 내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발간 절차와 기준 정립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발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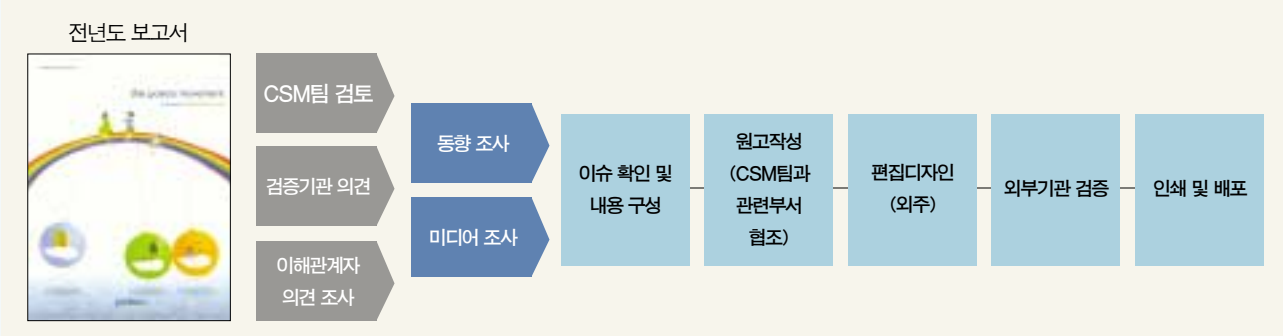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의 전체적인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는 혁신기획실 산하 CSM팀이며, 원고 작성과 데이터 수집을 위해 여러 부서의 도움을 받습니다. 포스코는 2004년 기존의 환경보고서와 사회공헌백서를 통합하여 처음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초기 보고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서 GRI 가이드라인과 SAM DJSI의 평가기준과 같은 외부의 평가항목을 참고로 했습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에 검증기관에서 제시하는 권고사항과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 및 웹사이트를 통해 들어오는 문의사항은 다음해 보고서 내용을 구성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지난 번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약 4개월 뒤 민간단체, 금융권, 연구소, 직원 대표, 외주파트너사,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 1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전반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 내용에 관련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보고서에 포함할 이슈를 선정하기 위해 검증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올해 초에는 CSM팀에서 사내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외부의 동향과 사외 미디어를 통한 회사 관련 이슈 조사, 그리고 사내 자료 조사를 통해 주요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원고 내용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검증 수행과 외부 동향 조사에서 철강산업의 경우 지속가능발전 이슈 중 기후변화,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들 이슈에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한 해 사회적으로 경제적 양극화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 이슈가 크게 부각되었고, 이와 관련한 회사의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보고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부각시켰습니다.

포스코의 자회사,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의 사업은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큰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보고서에는 포스코의 자회사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했으며, 한국, 미국, 중국, 인도 각 지역별로 철강사업에 관련된 대표적인 자회사를 선정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원고 내용 목록과 항목별로 정리한 안내문을 기본으로 관련 부서로부터 부분 원고와 데이터를 받아 CSM팀에서 최종 편집 작업을 합니다.



영문 번역과 책자 디자인 및 제작은 외주 업체에 맡겨 진행합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거치면서 CSM팀과 외주 업체는 긴밀한 업무 협의를 지속하게 됩니다.

외부 검증

포스코는 작년에 이어 KPMG를 외부 검증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검증 대상 데이터와 텍스트를 선정하였습니다. 검증 대상 항목의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검증의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검증 수행을 위해 네덜란드와 한국 KPMG의 전문 인력이 포항과 광양의 제철소, 그리고 서울 사무소에 투입되어 관련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담당자와의 인터뷰, 근거자료 수집 등 검증절차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보고서 원고에 대한 KPMG의 의견에 대해 토의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KPMG는 검증을 수행한 뒤 'Management Letter'를 제공하는데, 이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발간 절차 및 지속가능경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의견과 향후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포함합니다. 검증기관의 업무 및 결론은 76쪽의 검증의견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배포

검증이 끝나면 책자가 인쇄에 들어가고, 발간된 보고서는 배포 목록의 주소지에 배달됩니다. 처음 일괄 배포가 끝난 뒤에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 책자를 보냅니다. 이런 과정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금융기관, 민간단체, 정부기관,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등에 배포되고, 또 사내 다양한 부서를 통해 고객사와 공급사, 기타 관련 기관에 전달됩니다.

보고서가 발간되면 웹사이트의 내용도 이에 따라 개정됩니다. 독자는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를 할 수 있고, 보고서 책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의 피드백 양식을 웹사이트에서 작성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검증절차

검증 방법론 확인	검증의뢰서	검증범위 합의	검증 수행
검증절차에 대한 KPMG의 제안 (검증 기준 및 수준 등)	포스코의 검증 대상 지표와 텍스트 제안 (선정 사유 포함)	포스코와 검증기관 간 검증범위 협의 및 결정	절차에 따른 KPMG의 검증 수행 및 결론 도출

검증의뢰서

포스코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활동과 성과를 투명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2005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포스코는 ISAE3000과 같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증에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KPMG에게 다음과 같이 검증을 의뢰합니다.

포스코가 KPMG에게 의뢰한 검증의 범위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합리적 검증(reasonable assurance)과 제한적 검증(limited assurance)을 포함합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실린 재무 정보가 재무제표로부터 적절하게 도출되었는지에 대해서 합리적 검증을 요청하였으며, 다음에 나열한 항목에 대한 제한적 검증을 요청하였습니다. 각 항목에는 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 **2005년 에너지 소비량 데이터와 기후변화 텍스트**
기후변화 및 이와 관련한 기업의 에너지 관리는 세계적으로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며, 포스코는 2005년 이와 관련하여 많은 활동을 했으며 보고서에서의 비중도 늘렸습니다.

- **포항과 광양 제철소의 2005년 황산화물 배출량 데이터와 환경성과 텍스트**
오염물질 배출은 지역주민에게 주요 관심사항입니다.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활동이 점점 활발해짐에 따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제철소 주변 지역 환경 영향에 대한 정보 요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 **안전과 보건, 고객사와 공급사 텍스트**
안전보건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요 이슈 중 하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의 협력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2005년 한국에서 큰 관심사항으로 부각됨에 따라 포스코의 관련 활동을 보고서에 비중 있게 실었습니다.

검증보고서

포스코 2005 지속가능성 보고서 독자 귀중

서문

본 검증인은 포스코 2005 지속가능성 보고서(이하 "보고서")의 특정 정보에 대한 검토를 요청 받았습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검증인의 책임은 아래에 명시된 범위의 특정 정보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발급하는 데 있습니다.

배경 및 범위

포스코는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 및 보고에 대한 노력과 진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검증은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합리적 검증 :

- 수행 업무 및 결론 부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재무 실적 데이터가 포스코의 2005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적절히 추출되었는지 여부

제한적 검증 :

- 2005년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총 에너지 소비량과 황산화물(SOx)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가 신뢰할만한지 여부
- 보고서의 다음 부문에 담겨있는 정보가 적정하게 기술되었는지 여부
  - 기후변화(40에서 43페이지)
  - 환경성과(50에서 55페이지)
  - 안전과 보건(22에서 23페이지)
  - 고객사와 공급사(29에서 32페이지)

'적정하게 기술되었다' 는 보고서가 근거 원천 정보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원천 정보와 일관성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합리적 검증은 수행 업무의 성격과 깊이 측면에서 제한적 검증보다 상위 수준의 검증입니다.

포스코의 재무 실적 및 재무 상태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감사된 2005년 12월 31일자 기준의 포스코 재무제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본 검증인은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가 발행한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ISAE 3000): Assurance Engagements other than Audits or Reviews of Historical Financial Information에 근거하여 검증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여러 가지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 검증팀 구성원들은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를 이해하고 검토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 기술 및 전문가적 역량을 보유하며, 그들이 독립성 확보를 위해 IFAC의 회계사에 대한 윤리 헌장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킴
- 합리적 검증보다 낮은 수준인 제한적 검증을 제공할 경우에는 소극적인 형태의 결론이 적용됨

지속가능성 실적 보고에 대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포스코는 내부의 자체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2002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를 참고하였습니다.

고려 및 제약 사항

환경, 보건, 안전 및 사회 실적 데이터는 확정, 계산 및 추정 방법과 이들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근원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행 업무 및 결론

재무 데이터

본 검증인은 아래의 2005년 재무 실적을 감사된 포스코의 2005년 재무제표와 비교했습니다.

- 58과 59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59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자본
- 60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이자비용, 이자수익, 순이자비용
- 61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법인세비용

상기 내용을 토대로, 명기된 재무 실적에 대한 데이터는 2006년 1월 26일자로 독립적 감사인의 적정의견이 표명된 포스코의 2005년 재무 제표로부터 적절히 도출되었습니다.

총 에너지사용량과 포항과 광양의 황산화물 (SOx)배출량

포스코의 2005년도 총 에너지사용량과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의 황산화물(SOx) 배출량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였습니다.

-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및 포스코센터 방문
-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
  - 현장으로부터 보고된 데이터
  - 이들 데이터를 생성, 집계 및 보고하는데 사용되는 시스템
  - 현장 수준에서의 내부 통제
  - 전사 수준에서 행해지는 계산

상기 내용을 토대로, 포스코의 2005년 총 에너지소비량과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의 황산화물(SOx) 배출량 데이터는 신뢰 수준을 벗어나 보이지 않습니다.

명시된 부문

'배경 및 범위' 에서 명시된 부문에 수록된 정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였습니다.

- 보고 기간 중 포스코의 지속가능성 측면에 대해 언급된 언론 및 인터넷 자료 조사
-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된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검토
- 내부 문서, 인트라넷 원천에 대한 검토
- 명시된 부문에 포함된 정보의 평가를 위한 관련 담당자 인터뷰

본 검증인은 검토 이후 포스코와 보고서 수정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발견 사항에 대한 반영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의 최종판을 검토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을 토대로, '기후변화', '환경성과', '안전과 보건', '고객사와 공급사' 부문에 수록된 정보는 부적정하게 기술되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주석 사항

상기에 제시된 결론과 관계없이, 본 검증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독자들의 주의를 당부합니다.

2004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비해, 포스코는 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선택된 자회사의 지속가능성 정보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본 검증인은 포스코가 지속가능성 성과 지표의 보고 범위를 포스코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회사들로 확대하고, 보고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는 보고 기준을 개발할 것을 권고합니다. 더 나아가, 본 검증인은 포스코가 원료 공급 사슬 관련 지속가능성 이슈 또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권고합니다.

본 검증인은 포스코 경영진과 계약 범위 이외의 보고 프로세스 및 보고서 관련 관찰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포스코는 이에 대한 본 검증인의 의견을 잘 수용하였습니다.

2006년 6월 10일, 서울

삼정회계법인
이창수, 공인회계사

KPMG Sustainability B.V.
Prof. Dr. George C. Molenkamp

GRI CONTENT INDEX

● 보고 ◐ 일부 보고 ○ 보고하지 않음

GRI 항목	내용	보고여부	페이지
Vision and Strategy			
1.1	지속가능발전 관련 비전과 전략	●	4, 6
1.2	최고경영자 메시지	●	4
2.1	보고 조직의 이름	●	0
2.2	주요 제품과 서비스	●	6
2.3	조직의 운영 구조	●	6
2.4	주요 부문, 회사, 자회사, 합작사	●	6, 64-65
2.5	운영 국가	●	6, 64-65
2.6	소유 및 법적 형태	●	12-13
2.7	시장의 성격	●	4, 6, 60
2.8	보고 조직의 규모	●	6, 24, 59
2.9	이해관계자 목록	●	10-11
2.10	보고서 관련 담당자 연락처(이메일과 웹주소 포함)	●	83
2.11	보고하는 정보의 기간	●	0
2.12	가장 최근 보고서 발행 날짜	●	0
2.13	보고의 범위	●	0
2.14	이전 보고서 이후 규모, 구조, 소유 등의 중대한 변화	○	
2.15	합작사, 부분 소유 자회사, 임대시설, 외주 운영	●	0
2.16	이전 보고서 내용 정정의 성격, 영향, 이유	●	22
2.17	GRI 원칙과 프로토콜 비적용 결정	●	0
2.18	경제, 환경, 사회 비용과 혜택 결산의 기준	●	0, 55
2.19	경제, 환경, 사회 정보 측정방법의 변화	●	33
2.20	보고서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 확보와 향상을 위한 방침 및 내부업무	●	74-75
2.21	보고서 독립 검증 관련 방침과 업무	●	75
2.22	보고서 사용자가 부가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	●	83
Governance Structure and Management Systems			
3.1	조직의 지배 구조	●	12-13
3.2	사외이사 비율	●	12
3.3	이사들이 조직의 전략 방향을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의 결정 프로세스	●	12-13
3.4	경제, 환경, 사회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감독하기 위한 이사회 수준의 프로세스	○	
3.5	임원 보상과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와의 연계	◐	12-13
3.6	경제, 환경, 사회 관련 방침의 감독, 실행, 감사를 위한 조직구조와 핵심 담당자	●	18
3.7	경제, 환경, 사회 성과 관련 미션과 가치 진술, 내부 행동규범/원칙, 방침, 실행 현황	●	6, 73
3.8	주주들이 이사회에 권고나 방향을 제시하는 수단	●	12
3.9	주요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의 기초	●	10
3.10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에 대한 접근방식	●	10-11
3.11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에 의해 생성된 정보	●	10-11
3.12	이해관계자 참여에서 도출된 정보의 사용	●	10-11
3.13	예방적 접근방법 또는 원칙이 조직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	●	16-17
3.14	조직이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외부의 경제, 환경, 사회 관련 헌장, 원칙, 이니셔티브 등	○	
3.15	산업이나 기업 협회, 국내외 단체 회원 자격	●	18
3.16	Upstream과 Downstream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방침과 시스템	●	14, 29-30, 47-49
3.17	조직이 경제, 환경, 사회에의 간접적 영향을 관리하는 접근방식	◐	58-61
3.18	회사 운영의 위치나 변화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	●	4, 70
3.19	경제, 환경, 사회 활동/성과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절차	●	18, 각 섹션
3.20	경제, 환경, 사회 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외부인증 현황	●	45
4.1	GRI content index	●	78-79
Economic Performance			
EC1	순매출	●	59
EC2	지역별 시장 구분	●	60

* 2.14: 중대한 변화 없음
* 3.4: 일반 사안과 함께 고려되며, 별도의 프로세스는 없음
* 3.14: 없음
* EC4: 데이터 집계하지 않음
* EN1: 포스코 Fact Book 참고
* EN2: 데이터 집계 프로세스 미비
* EN4: 데이터 집계하지 않음
* EN6, EN7: 해당사항 없음
* EN15: 철강제품은 모두 재활용 가능. 실제 재활용 비율은 데이터 집계하지 않음
* LA8: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지만, 사전 예방 프로그램은 없음
* HR2, HR3: 윤리규범에서 간접적으로 다루지만, 인권만을 특별히 고려하는 절차는 없음.
* HR5: 법규에서 보장, 별도의 사내 방침은 없음
* PR1, PR3: 생산 제품이 중간재로서, 해당사항 없음
* PR2: 현재 보고서에 미반영

GRI 항목	내용	보고여부	페이지
EC3	모든 제품, 재료, 서비스의 구매 비용	●	60
EC4	합의된 거래조건에 따라 지불된 계약의 비율	○	
EC5	국가/지역별로 지급된 총 급여 및 혜택	●	60-61
EC6	이자, 주식 배당 등 자본제공자에 대한 배분	●	60
EC7	기말 유보금의 증감	●	60
EC8	국가별 납부한 세금의 총계	●	61
EC9	국가/지역별로 받은 보조금	●	61
EC10	지역사회, 민간단체 등에 대한 기부 현황	●	61
Environmental Performance			
EN1	유형별 총 자원 사용(수자원 제외)	○	
EN2	총 자원 사용량 중 사외 폐기물 재활용 비율	○	
EN3	주요 원천별 직접 에너지 사용	●	42
EN4	간접 에너지 사용	○	
EN5	수자원 총 사용량	●	52
EN6	풍부한 생물다양성 서식지 소유/임대/관리 현황	○	
EN7	생물다양성에 대한 주요 영향	○	
EN8	온실가스 배출	●	52
EN9	오존 파괴 물질의 사용과 방출	●	51
EN10	유형별 주요 배기가스 (SOx, NOx 등)	●	50
EN11	유형별, 종착지별 폐기물 총량	●	52, 54
EN12	유형별 중요 방류 물질	●	52, 53
EN13	중요 화학물질, 유류, 연료 방류 총량	●	53
EN14	주요 제품과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	47
EN15	판매 제품량 중 재활용 가능 비율 및 실제 활용된 비율	○	
EN16	환경 관련 국제 규약, 국내 규제 위반 사건과 벌금	●	49
Social Performance			
LA1	인력구성 현황	●	24
LA2	지역/국가별 고용 창출 및 이직률	●	24
LA3	노동조합이나 직원대표기구가 대표하는 직원의 비율	●	25
LA4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방침 및 절차	●	25-26
LA5	산업재해 관련 사고 및 질병의 기록과 공지	●	22
LA6	보건안전위원회와 적용 받는 인력 비율	●	22
LA7	표준 부상 및 결근율, 사망률	●	22
LA8	HIV/AIDS에 관한 방침 및 프로그램	○	
LA9	직원 유형별 인당 연간 교육시간	●	27
LA10	동등기회 방침 또는 프로그램, 모니터링	◐	14
LA11	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남녀 비율 등 다양성 지표 포함)	◐	12
HR1	인권 관련 방침, 지침, 조직구조, 절차	●	14-15
HR2	구매 및 투자에서 인권적 영향을 고려한다는 증거	○	
HR3	공급망에서의 인권 관련 방침과 절차	○	
HR4	차별방지 방침과 절차/프로그램, 모니터링	●	14-15
HR5	결사의 자유 관련 방침 및 적용범위	○	
HR6	아동노동 방지를 위한 방침, 적용범위, 절차/프로그램	●	14
HR7	강제노동 방지를 위한 방침, 적용범위, 절차/프로그램	●	14
SO1	지역사회 영향 관리, 이해관계자 확인 및 참여	●	10, 33-37
SO2	부패/뇌물 방지 방침과 절차	●	14-15
SO3	정치 로비/기부 관련 방침, 절차, 준법체제	◐	61
PR1	소비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방침, 적용범위, 절차, 모니터링	○	
PR2	제품 정보와 라벨링에 관한 방침, 절차, 준법장치	○	
PR3	소비자 사생활 보호 방침, 절차, 준법장치.	○	

용어 색인

내용	페이지	내용	페이지
6시그마	6, 8	온실가스 레지스트리 사업	40
건식소화 설비	42	우리사주제도	26
고객관계관리(CRM)	29	이해관계자 조사(지속가능성 이슈 조사)	10, 11
고급기술전문가 제도	27	자원봉사활동	36
공급사관계관리(SRM)	30	재무지표추이	59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15	전과정평가(LCA)	41
교토의정서	40	전문위원회	13
기업윤리 자율실천 프로그램	14	주주구성	13
기업지배구조	12	청정개발체제(CDM)	41
노경협의회	25	파이넥스	52
녹색구매	48	포스비	25
누출탐지 보수 시스템	53	포스코교육재단	33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	19	포스코청암재단	33
다이옥신	50	포스텍	33
리스크 관리 시스템	16	포스트립	43
매칭그랜트 제도	37	표준업무운영절차	8
메세나 활동	34	프로축구팀	35
모듈러 공법	48	학습동아리	28
배당금	60	환경개선지수	50
베네핏 셰어링(성과공유제)	32	환경영향평가	46
부생가스	42	환경회계시스템	45
사내벤처제도	28	활성탄흡착설비	51
생태산업단지	49	BET	54
성과몰입도	25	BRS	17
슬래그	54	BTX	53
신용등급	58	CSM	18
안전방재시스템(e-Safety System)	22	e-리더스 아카데미	28
안전문화 체험관	23	EBITDA	58
어린이철강캠프	35	PCP 제도(공식파트너제)	30
에너지회수 설비	42	POSCO Day	37
연료전지	43	ROE	58
영보드	25	VOC	54

독자의견 설문서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독자의 피드백은 향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포스코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사항에 성실하게 답하고자 합니다. 보고서를 이용하신 뒤의 소감과 의견을 본 설문 양식에 작성하신 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아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www.posco.com)에서도 동일한 설문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

1. 귀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 포스코 직원 ☐ 주주 ☐ 고객 ☐ 공급사 ☐ 시민단체
☐ 지역 주민 ☐ 투자 분석가 ☐ 학생 또는 학계 ☐ 기타: _____

2. 주요 관심 영역은 무엇입니까?

☐ 포스코의 환경 부문 ☐ 포스코의 사회 부문 ☐ 포스코의 경제 부문 ☐ 사회책임투자

3. 이 보고서가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까? 각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Sustainability	(미흡)	1	2	3	4	5	(만족)
Human	(미흡)	1	2	3	4	5	(만족)
Nature	(미흡)	1	2	3	4	5	(만족)
Business	(미흡)	1	2	3	4	5	(만족)
Global POSCO	(미흡)	1	2	3	4	5	(만족)
편집 및 디자인	(미흡)	1	2	3	4	5	(만족)

4. 보고서에서 빠졌거나 부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다면 기재해 주십시오.

5. 다른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비교하여 본 보고서를 평가해 주십시오.

(뒤떨어짐) 1 2 3 4 5 6 7 8 9 10 (우수함)

6. 그 밖에 의견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892번지 포스코센터
포스코 혁신기획그룹 CSM팀 (우편번호 135-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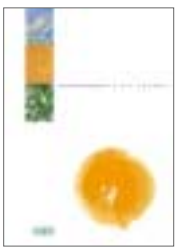
Tel: (02) 3457-1109/1871
Fax: (02) 3457-1998

보고서 발간 현황

포스코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은 보고서들

포스코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시행함으로써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환경보고서



사회공헌활동 백서

지속가능성 보고서

환경보고서 1995 ~ 2003

포스코는 설립 초기부터 추진해온 환경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은 환경보고서를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발행하였습니다. 환경보고서를 통하여 본사,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의 환경경영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고 그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공헌활동백서 2003

창립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포스코의 사회공헌활동을 종합, 정리한 사회공헌활동백서는 2003년 발간되었습니다. 인재육성, 체육문화,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모습을 담았습니다.

지속가능성보고서 2003 ~ 2004

2004년부터 환경보고서와 사회공헌활동백서를 아우르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은 보고서는 국제적인 발간 기준을 준수하고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습니다. 2005년에 발행된 '2004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환경재단으로부터 최우수 환경 보고서상을, 그리고 능률협회경영인증원으로부터 녹색경영대상 베스트그린레포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FORWARD-LOOKING STATEMENTS

포스코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서술하면서 포스코는 현 시점의 예측, 가정, 추정, 계획에 근거해 미래 서술 용어인 '기대하다', '믿다', '추정하다', '예상하다', '예정이다', '그럴 것이다', '계획하다' 등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서술은 특히 경영전략, 실적 목표, 연구개발 및 투자를 비롯한 활동 계획을 표현하는데 주로 쓰였습니다. 실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특정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상세한 서술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Form 20-F의 '위험 요소들'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분석해 서술한 표현에 대해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 바라며, 포스코는 이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발생한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미래에 대한 서술을 공개적으로 정정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연락처

포스코의 지속가능경영과 보고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892번지 포스코센터

포스코 혁신기획그룹 CSM팀 (우편번호 135-777)

Tel: (02) 3457-1109/1871

Fax: (02) 3457-1998

E-mail: sustainability@posco.co.kr

Website: www.posco.com

포스코 웹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를 포함하여 이전에 발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환경보고서, Annual Report 등의 PDF File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홍보	webmaster@posco.co.kr
기업윤리	ethics@posco.co.kr
투자 정보	ir@posco.co.kr
채용	hrteam@posco.co.kr
제품판매	marketing@posco.co.kr
자재구매	procurement@posco.co.kr
원료구매	westroom@posco.co.kr

발간일: 2006년 6월 12일

디자인 및 영문번역: UCC Inc.

인쇄: 삼성문화인쇄소

Printed in KOREA

본사 및 포항제철소
Tel. 054-220-0114
Fax. 054-220-6000

서울사무소(포스코센터)
Tel. 02-3457-0114
Fax. 02-3457-6000

광양제철소
Tel. 061-790-0114
Fax. 061-790-7000

www.posco.com

본 보고서는 재생용지에 콩기름으로 인쇄되었습니다.